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윤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유선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윤리’

Poetry after ‘Sewol ferry’ and ‘Ethics of Representation’

2023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유선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윤리’

지도교수 오 문 석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정 유 선

정유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중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문석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차승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양경언 (인)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신형철 (인)

2023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검토	11
II. 시와 재현의 윤리	28
1. ‘미래파’와 ‘시와 정치’	28
2. ‘사건’과 ‘재현’의 담론적 궤적	32
3. ‘재현-윤리’	35
III. 세월호 시와 규범적 재현	39
1. ‘거짓 맹세’라는 현상	41
2. 문학과 세월호 사건	45
3. 규범적 재현 양상	49
3. 1. 치안적 재현	54
3. 2. 서정으로서의 재귀	71
IV. 세월호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	88
1. 재현 형식의 실험	88

1. 1. 당사자의 시	90
1. 2. 직접 인용	93
1. 3. 생일시	102
2. 타자의 표정	117
V. 결론	125
※ 참고문헌	129
※ 부록 - 세월호 사건 관련 문학 자료	137

ABSTRACT

Poetry after ‘Sewol ferry’ and ‘Ethics of Representation’

Jeong yusun

Advisor: Prof. Oh Moonseok, Ph.D.

Department of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sponse of literature, especially poetry, to the event called the ‘Sewol ferry’, by examining the appearance of ‘ethics of representation’ in poetry after Sewol ferry. Several issues arise in front of the topic of the theme of How to ‘represent’ a catastrophic ‘event’. A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representation became the main agenda of the discourse, the ‘Unrepresentability’ of the poem became a hot topic of interest. However, there is also a ‘conventional’ form of representation found in poems after Sewol ferry.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asked how they are appearing, so this article would like to talk about other impulses hidden under the signifier of ‘literary representation’. The term that encompasses these principles is ethics of representation.

In order to explain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both the socio-historical background of Sewol ferry, ‘neoliberalism’ as a possible state of disaster, and the discursive situation of the Korean literary scene as a manifestation of this. It is worth noting that there is a social and literary history in the context that made the political power of representation possible.

Second, this study also draw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wol ferry and the events of May 18, April 19, etc. What recurs in the

Sewol ferry incident may be the 'revolution' of previous periods. In this moment,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d politically.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comes from the form of 'Lyric'.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self, poetry can imagine the 'repetition' of liberal democracy rather than the 'movement' of democratization.

Finally, we look at poem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that 'replay' Sewol ferry in a performative way. These poems attempt to speak to the reality of Sewol ferry, while removing lyrical perspective. However, as long as they are mediated by language,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risk of editing the real. At this point, we realize that experimentation with representational forms is an act of exploring the ethics of representation, and that the reality of Sewol ferry is only told when ethical risks are take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investigate the discipline of (mythical) representation. At this time, the 'seemingly constant' path between the (Sewol ferry) event and the representation may be deviated, and a starting point for the event to be 'more talked about' will be created.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세월호 이후의 시에 나타나는 ‘재현-윤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월호라는 사건에 대한 문학, 특히 시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축적된 문학의 표현들에 비해 ‘세월호 이후의 시’라는 부분에 주목한 연구의 양은 소략하다. 그 이유로 연구자들에게 세월호에 대해 쓰인 시가 역사적 ‘기록물’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록으로서의 기능이 르포, 뉴스 또는 기사, 구술기록 등의 영역과 겹쳐져 있으므로, 여기서 (소설도 마찬가지) 시의 측면을 변별하여 연구를 개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자명해 보였던 기반의 붕괴에 따라, 말하고 쓰고 읽는 게 무력해진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경험했다는 이유도 있다. 깨어진 기억과 기표의 약속을 잇대므로 글쓰기에는 실패가 예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말해져야 한다. 이 상황에 장르적 구별이 우선 될 수는 없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때문에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시의 독립적인 연구는 비교적 불필요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의 시 연구란 정말 무효한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기록할 때, 이 현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월호 이후의 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사건에 직면해 정의, 명명하고 싶은 욕구와 거의 동시에 마주친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된 규정들이 그것의 실체에 맞닿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건에 대해 타자화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객관적 시야는 존재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말하는 순간, 특정한 관점을 통해 ‘사건’이 ‘재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우선 사건이다. 바디우에 의하면 사건이란 “상황·의견 및 제도화된 지식과는 ‘다른 것’을 도래시키

는 것”¹⁾이다. 명확히 확립된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영역에서, 그러나 하나의 구조나 상황으로 파악될 수 없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인식적 범주(질서의 억압 또는 은폐) 밖에서 발해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실할 때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²⁾ 만든다. 이 지점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는 자아와 이를 기각하는 주체라는 분열은 발생한다.

이와 흡사한, 주어져 있던 일상으로부터 단절을 세월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이후 삶의 (관측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은 가시화되었다. 사건의 진상이 현재는 정리되어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2014년 4월 16일 직후를 떠올려 보자. 세월호 침몰이라는 상황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잘못된 발표가 연이어 있었고, “무분별한 속보 경쟁과 함께 출입처와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³⁾으로 오보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가장 급박한 순간조차도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먼저 고려”⁴⁾했다. 사건을 사고로 치환하는 기술의 전적인 포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세월호의 순간에 노출되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가 바디우적 의미의 사건을 겪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를 몰랐던 세계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는 없다. 세월호의 직, 간접적 원인으로서 한국의 법-질서적 차원이 은폐하며 배태시킨 참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과 ‘타자의 목소리’를 ‘또’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세월호를 두고 전개되었던 (문학의) 실천적 지향들은 사건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아주 오랜 후에도 아물지 않고 남은 이 상처를 우리는 온몸으로 증언

1)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84쪽.

2)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54쪽.

3) 정철운, <세월호 참사, 언론은 ‘오보 참사’>, 미디어오늘, 2014.04.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74>.

4)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전문] 문학인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14.06.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0642.html.

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가리고 말을 통제하는, 반성 없는 권력을 향해 끊임 없이 맞서고자 합니다.

문학은 본래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가장 위태로운 경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그치지 않고 분노 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⁵⁾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사건의 재현을 둘러싼 사유가 급속도로 확산하였고, 곧이어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말/논리를 압도하는 말/논리 이전의 충격”⁶⁾이 이에 대한 적절한 말들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탓이다. 따라서 재현 불가능한 것들의 재현이 문학의 쟁점이 되었고, 물론 이러한 시도는 매우 어려워서 드물게 성취된다. 의식적으로 사건에 충실한 어법을 구사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표상해 ‘재현’⁷⁾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현 주체가 대상을 ‘묘사’하며 그의 특정한 지점이 ‘대표’되도록 하고, 이 작동에는 인식적 가치가 개입하고 있다. 재현은 대상 자체를 향해있다가보다 재현을 가능하게 한 어떤 선별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순간 사건의 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되(언어적 질서 내에서 발화) 동시에 멀어지게 해야 한다는(언어적 질서 바깥을 발화) 양립 불가능한 문제의 지점에서 어려움은 발생한다.

그러던 중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기’ 같은 글쓰기는 요청될 수 있었다. 문학은 객관적 사실 자체를,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 등의 생각과 심리까지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시스템의 작동까지를 ‘그대로’ 담아내려고 했고,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족이 수월한 필요조건은 저자의 편집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고통을 겪은 당사자야말로 ‘서사화할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적실한 주체”

5)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앞의 글.

6) 이영진, 「2014년 여름, 비탄의 공화국에서」,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283쪽.

7)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메시스, 곧 재현에 문학의 본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미메시스는 무언가를 실제와 아주 흡사하게 보여주는 재현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려 하고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려”(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33쪽.)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재현이란 대상의 본질적 특성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행위인 셈이다.

다.⁸⁾ 따라서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거나, 1인칭 주어로서 당사자, 피해 유가족 등의 육성을 기록하거나, 또는 작가라는 위치를 말소함으로 당사자가 1인칭 주어로 발화할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세월호의 재현 불가능한 측면들은 재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정황이 세월호 이후의 ‘문학’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들었던 원인으로 기능한다. 사건이라는 문제가 문학성의 내, 외부에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나면, 세월호 사건과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방점은 문학이 아닌 ‘사건성’에 있게 된다. 문학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말하기 위한 하위 카테고리가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김영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학이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또는 “문학이 표현해야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보게 하는 것’ 또는 ‘사건이 우리 마음에 남긴 것’이다.” 등⁹⁾. 그러나 사건으로 타진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 ‘윤리적 주체’, ‘문학적 주체’가 사건과 결별해 있는가? 도리어 사건에 충실하게 구속되므로 탄생하는 존재처럼 보이며, 이것은 앞서 재현 불가능한 것의 재현이라는 식으로 명명해왔던 시도들과도 유관하다. 이런 순간 세월호 사건과 문학 사이에 강조점은 사건에 놓여 있는 듯싶다.¹⁰⁾ 이 연장 선상에서, 문학의 부분 범주로서 시란 별도로 주목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8) 박은희,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 제9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86쪽.

9)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감성연구』 16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66쪽.

10) 문학은 과연 재현과 결별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사건과 다르게 작동할 문학의 윤리라는 측면이 의식되었기 때문이겠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사건인 것과 문학적으로 사건인 것은 서로 다른 층위를 갖고 있다.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의 모습이 두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관측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덧붙여, 이 행위가 문학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하는—불가능한 재현이 되려 일종의 표제가, 제1원리로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예측의 염려를 함께 지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건이 타자처럼 도래한다면, 이에 충실한 문학의 말들 역시 우리의 인식적 지반을 붕괴시키면서 발설되는 것이다. 일상적 표현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언가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방식에 조용해 ‘다른 쓰기’가 모색된다는 이유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시, 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새삼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의지가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텍스트를 결정하는 것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역사성’이다(프레드릭 제임슨). 것처럼 재현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재현을 매개로 하는 분법적 인식 가운데 이것이 어떤 담론적 효과를 은폐한다는 사실은 잘 지적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세월호를 이야기하겠다는 주제 앞에선 한발 더 나아간 ‘의심’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세월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드높았을 때, 사건에 특정한 지점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충실하게 재현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의지들 속에서, 이를 추동한 ‘열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기록물이 어떤 재현인 한에서 현실의 정치, 사회적 무의식을 드러낸다면, 문학은 이 재현이 갖는 ‘한계’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사건의 실재를 관측한다.¹¹⁾ 세월호라는 사건이 언론 매체에 의해 가공, 편집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거나, 이 사건을 에워싸고 있는 ‘이해’의 담론적 기반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때 서로 다른 재현이기를 택한 텍스트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세월호라는 사건이 보다 더 다각적이라는 사실이다.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떨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떨어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11) 언어가 담지할 수밖에 없는 의미화의 측면에서 문학, 시의 표현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는 점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충실한 재현이란 문학에 있어서도 불가해한 영역이 아닐까? 한편 이러한 불가해를 구성하게 만드는 듯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꾸준하게 제기하는 식으로.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송경동,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부분12)

가만히 있으라 나오란 말 전혀 없고
 설마 하며 웃고 놀던 청년들이 잠기고
 물에선 돈만 세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구중서, 「다 끝났다」 부분13)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젓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 있으라, 제발 살아 있으라.

김선우,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분1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악

이진명, 「비」 부분15)

“저도 바닷가에서 자라 잘 아는데 바다엔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좀 세면 어때요? 저 바다가 반드시 우리 애를 엄마 곁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하략

이시영, 「5월 3일, 뉴스타파」 부분16)

기다리래. 6835톤 배가 뒤집히는 동안, 뒤집힌 배가 선수 일부분만 남기고

12) 송경동,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88쪽.
 13) 구중서, 「다 끝났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34쪽.
 14) 김선우,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44쪽.
 15) 이진명, 「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38쪽.
 16) 이시영, 「5월 3일, 뉴스타파」 전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25쪽.

가라앉는 동안, 기다리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래.

김기택, 「기다리래」 부분17)

엄마, 여긴 추워요

엄마, 여긴 진흙이 너무 많아요

진흙이 내 팔을 휘감고 있어요

진흙이 내 입술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강은교, 「딸의 편지」 부분18)

국가와 정치, 경제성이라는 심급을 비판하거나, 슬픔과 염려의 고백으로 존재하거나, 비명으로 존재하거나, 오직 유가족의 인터뷰이거나, 죽은 이를 발화자의, 자아의 자리에 서게 하거나 등. 재현이라는 ‘통일된 이미지’ 아래 가두어지지 않는 욕망의 흔적들은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는 일차적으로 세월호 사건과 재현 형식에 ‘미리’ 앞서 있는 몇 개의 사고유형에 대해 사회, 정치, 역사적 근거를 훑아 보고자 한다. 이후 사건과 재현 사이에 발생하는 무의식적 지향에 개입하여 재현이라는 표제 아래 뭉뚱그려져 있던 문학, 시의 이야기들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그 사건성을, 사건의 충격을 온존하거나 더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이후의 문학이라는 주제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 연구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특별히 ‘재난’, ‘증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월호 이후에 쓰인 시의 성격을 고찰했던 연구들을 참조해보고자 한다. 드물게 존재하는 이 연구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 연구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세월호 이후의 시라는 연구 주제의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해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

17) 김기택, 「기다리래」,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36쪽.

18) 강은교, 「딸의 편지」,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3쪽.

용하다. 먼저 권성훈은 “재난으로 인한 파괴와 소멸에 대한 죽음, 공포, 불안, 이산, 연민 등 정신적, 물질적 상흔이 소설 형식으로 창작되면 ‘재난 소설’이, 운문 형식으로 창작되면 ‘재난시’¹⁹⁾라고 규정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재난시는 일제 강점기 이래로 드물게 창작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소설과 달리 상징성과 압축성을 강조하는 운문의 특성”²⁰⁾ 때문이다. 한편 이성혁은 파울 첼란을 사례로 들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어떤 사태를 전달하는 증언이 아니라 그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구화된 정신과 말 자체를 증언**”²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럴 때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의 배후에 있는 권력이 고발된다고 말한다.

두 연구가 각각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일견 흡사하면서도 어딘가 다르게 느껴진다. 공통적인 부분은 세월호 사건 이후 쓰인 시를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권성훈은 재난에 대응하는 시의 총괄적인 양상에 대해 재난시라고 정의하면서 “세월호 재난 시집 대부분이 희생자의 추도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울분과 좌절의 감정이 문학적으로 정화되지 못한 채, **여과 없이 시로 형상화**”²²⁾되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이 지시하는 것을(앞 문단에 굵은 글씨로 표기한 이성혁의 문장까지 함께) 다시 말해보면, 불가능한 발화들을 시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시는 설명하지도 않고 표상하지도 않으며 단지 ‘보여줄’²³⁾ 수 있는 까닭에 말과 사유와 삶을 거두는 체제에 대해 고백하게 되듯이, “기외와 기표의 약속이 무참히 깨지는”²⁴⁾ 상황도 드러낼 수가 있다. 이성혁은 “말할 수 없는 학생들의 말을 시인의 입을 통해 증언”²⁵⁾하는 자(이영광)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빙의’라고 명명한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19) 권성훈, 「한국 재난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 변화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15쪽.

20) 권성훈, 앞의 글, 116쪽.

21) 굵은 글씨는 인용자 강조. 이성혁,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증언시의 시학」, 『어문론집』 제75호, 중앙어문학회, 2018, 265쪽.

22) 굵은 글씨는 인용자 강조. 권성훈, 앞의 글, 118쪽.

23) 옥타비오 파스, 김홍근·김은중 옮김, 『활과 리라』, 솔출판사, 1998, 148쪽.

24)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15쪽.

25) 이성혁, 앞의 글, 276쪽.

살고 싶어요……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수학여행 큰일 났어요 나 울 것 같아요를,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지나갑니다
 걱정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실제상황이야 아기까지 있어 미치겠다가
 가만히 있으세요 절대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세요가 사라졌습니다

「수학여행 다녀올게요-유령 6」 부분²⁶⁾

인용한 구절에서 “살고 싶어요……”, “수학여행 큰일 났어요 나 울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실제상황이야 아기까지 있어 미치겠다”, “가만히 있으세요 절대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나타난다. 강조할 부분은 후자의, 피해당사자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들의 출현에 있다. 말해져야 하는 것이 존재들의 삭제된 육성인 바, 당사자의 범주를 제한하는 논리가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라는 범주만으로 세월호를 증언한다면, 말해지는 것들 역시 한 기준 내에서 사건을 말해야 한다는 위험을 떠맡는다. 이렇게 발설되는 말들은 일종의 교착지점을 형성하며, 기의와 기표가 다시 맺는 약속을 상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시적 화자가 ‘다수-다양성’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로써 범-질서적 차원에서 허가되지 않은,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의 존재가 발설되는 것이다. 이 점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의지와도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 여러 장르 중 시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특별하게 주목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듯싶다. 세월호 이후 가장 기민하게 반응한 장르가 시였다는 점은 이와 무관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²⁷⁾

26) 이영광, 『끝없는 사람』, 문학과지성사, 2018, 153쪽.

27) “시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세월호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문학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었다. 가령 참사 직후인 2014년 7월에 발간된 추모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에는 고은, 강은교 등 문단의 원로시인부터 중견 및 신인작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69명의 시인이 대거 참여했다.” 박윤영,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 그리고 문학의 참여」, 『실천문학』 통권 제125호, 실천문학사, 2017, 20쪽.

한편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권성훈과 이성혁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제기, 주목하고 있으며, 그에 의해 세월호와 시라는 주제를 둘러싼 연구의 외연이 짐작되기도 한다. 첫째로, 세월호 이후 쓰인 시 일반을 권성훈이 재난시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대해 말해볼 수 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재난’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따라 그 원인인 ‘통치성’²⁸⁾에 대해서도 논하게 된다.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 · 근대화라는 가치에 매몰된 헤게모니적 지배가 일상화되었고, 통치성 일반이 그렇게 작동함에 따라 어떤 종류의 차별들이 매우 공공연하게 되었다는 게 주된 요지다. 여기에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이러한 현실은 개인이 ‘스스로’ 권력의 요구에 응한 데서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게 함께 지적되어야만 한다. 푸코는 ‘자유’가 “자본주의적 형식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준 요건들 중 하나”²⁹⁾가 되었다고 말했다. 개인이 자신의 자본이라는 구속 또는 형식을 뒤집어쓰기로 마음먹은 이래, 경제적 효율이 위시되는 사회가 도래한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이라는 기치 아래, 타인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수행성 속에서 재난은 출현한다.

둘째로, 나아가 이성혁은 세월호 참사의 사실로부터 추론 · 상상해낼 수 있는 ‘사실성’의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사실성의 강조란 그와 다른 듯한 경향(‘문학성’)의 시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데, 이 모두를 수렴하는 응결점이 재현이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사건 자체는 그 어떤 예술의 수단도 처방하지 않으며 금지하지 않는”³⁰⁾다. 사건을 어떠한 미적 가공 없이 그대로 재현할

28) ‘통치성’이란 푸코에 의하면 “[첫째] 인구가 주요 표적이고, 정치경제학이 그 주된 지식의 형태이며, 안전장치가 그 주된 기술적 도구인,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성찰, 계산, 전술의 총체”이면서 “둘째,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일련의 특수한 통치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랫동안 주권, 규율 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계속 우위에 서게 만든 경향”을 의미한다(콜린 고든 외, 심정보 외 옮김, 『푸코 효과』, 난장, 2014, 154쪽). 그것이 곧 개인의 사유와 행동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재난의 가능성을 배태하는 근거로서도 사유될 수 있다.

29) 미셸 푸코,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86~87쪽.

30) 자크 랑시에르, 김상운 옮김, 『이미지의 운명』, 인간사랑, 2014, 226쪽.

때, 도리어 ‘시적인 것’이 보유될 수 있다는 소리다.³¹⁾ 이처럼 세월호 이후의 문학 연구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는,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라는 논제는 이성혁의 논의에서도 감지된다.

권성훈과 이성혁의 연구는 ‘세월호’ 이후에 ‘쓰여 진 시’를 연구하는 데 (작은따옴표를 붙여 구분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지를 묻는 물음과, 이를 표현해내었던 방식에 대한 물음이 함께 겹쳐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자의 경우에서, 세월호를 재현하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분고가 시작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드높았을 때, 사건에 특정한 지점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충실하게 재현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의지들 속에서”, 즉 재현이라는 방법론은 세월호에 대해 하나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 불/가능한 재현. 하지만 재현 형식의 양상들은 다종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떤 재현이 필요, 타당한가?’가 아니라 ‘세월호 시가 서로 다른 재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대체 어떻게, 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묻기 위해 세월호를 에워싼 (문학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붙여 세월호 전과 후의 시적 경향을 대질코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검토

살펴보았듯, 세월호 이후 이를 다루는 담론들은 재현의 영역으로 결과하고 있었다. 이것이 세월호의 사건성에 주목하는 맥락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언론 매체와 정부의 편집이 은폐한 것을 다시 밝히면서, 사건의 실제와 함께 그것의 실

31) “기존의 문학장에서 주류 장르였던 시와 소설이 참사 앞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새로운 언어 형식을 찾아 암중모색하는 와중에, 독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은 오히려 기존 문학장에서는 주변적 장르에 속해 있던 르포와 인터뷰, 그리고 ‘받아쓰기’였다.” 김형중, 「문학과 증언」, 『감성연구』 1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50쪽.

재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³²⁾ 이러한 경향이 주될 때, 문학 담론에서도 세월호의 사건성 아래에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배치하여 논의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문학과 사건, 사이에 가교를 놓는 재현이 문제시될 뿐 ‘시’를 중심 키워드로 삼아 세월호를 연구하는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관련 평론까지를 포함해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힌다.

함돈균³³⁾은 한국문단의 ‘시와 정치’라는 논쟁이 “‘사회’의 몰락과 시민적인 것의 계토화 현상에 대한 항의의 성격을 띠”³⁴⁾고 있음을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질서와 경계가 분명했던 시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반해, 2014년 4월 16일 이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항의의 대상일 수 있었던 텍스트 자체의 부재라는 차원이다. 그간 막연하게, 자연스럽게 믿어 왔던 근거들을 무효화했다는 측면에서 언어의 파괴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에 의해 이전과 이후는 분기된다. 이어 함돈균은 공동 공간이 주관하는 질서 이전으로 질러갈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 요청의 바탕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근거들을 상징적으로 질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리한다는 점이다. 사건을 수습하지 않고—지옥의 가운데서—슬픔을 만나는 일은 그러한 까닭에 필요하며, 이것이 세월호의 사건성을 연장한다.

양경언³⁵⁾은 세월호 이후 쓰기라는 행위에 맞닥뜨려진 곤란 가운데, 기존의 쓰기 방식에서 달라진 ‘이후’의 말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를 모색하며 ‘304낭독회’를 주목한다. 낭독회는 작가와 시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연대의 장으로 기능

32) “이 끔찍한 참사를 가능케 한 것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보도와 명확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참사 원인 규명의 일차적 토대라 할 수 있을 ‘사실’, 혹은 뒤르케임이 ‘사회적 사실(fait social)’이라 부른 차원의 자료들 자체가 삭제되거나 소멸의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차원이나, 그러한 증거인멸과 책임부인의 과정이 관련자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부패, 관료제, 반공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효과라는 일반적인 설명틀 모두를 넘어, 2014년의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시공간적 복합체로서의 한국의 외설적인 중핵(obscene kernel)과 연결된 것이라는 엄격한 차원”을 고려할 때, 세월호의 사실은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광영빈, “세월호 참사와 문화연구” 학술 세미나, 서울, 2015.04.10., 2~3쪽.

33) 함돈균, 「연옥에서 기도하는 시인들」,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34) 함돈균, 앞의 글, 362쪽.

35) 양경언, 「눈먼 자들의 귀 열기」, 『창작과비평』 167호, 창비, 2015.

하면서, 낭독자와 청자의 실제 ‘공-현존’을 통해 시각적 원리의 ‘쓰기-읽기’ 너머로 향하게 만든다. 낭독자의 목소리에 실린 괴로움이 언어화할 수 있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이고, 청자들이 이에 집중하게 될 때 문자가 무용해지며 수행적 의미를 구성하게 되므로 그렇다. 또한 낭독회 참여자들이 ‘몸으로’ 이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역으로 ‘없는 사람’(세월호 피해자)의 존재가 부각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한편 낭송을 염두에 두고 쓰인 시들의 리듬은 다만 낭독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 기록되었을 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갖는다. 규칙성을 특성으로 삼는 ‘운율’이 사건을 망각함으로 일상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을 종용한다면, ‘리듬’은 치안 질서에 균열을 내며 사건이 초래한, 목격하게 만드는 참혹을 피하지 않고 지속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타자를 타인으로 정위하지 않을 때 이후의 말, 쓰기, 시의 가능성이 찾아진다. 요컨대 앙리 메쇼닉의 ‘리듬’과 랑시에르의 ‘치안’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그는 세월호의 시간성을 ‘함께’ 살아낼 때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신³⁶⁾은 추모시라는 형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세월호 침몰에 따른 죽음들이 ‘정치적 죽음-사건’으로 주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공적 차원에서 발생한 죽음-사건에 골몰하는데,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존재론적 행위로서의 추모가 죽음의 진혼에서 공동체의 윤리를 강화하는 계기—즉 살아남은 자들에게 구축될 삶의 문제로 변형된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에 물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그가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송경동)를 인용하며 보여주는 공감적 애도라는 결론이 세월호의 사회적 원인 앞에서 선 각각의 윤리적 지향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박윤영³⁷⁾은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 그리고 문학의 참여」라는 제목처럼 ‘세월호’와 ‘촛불혁명’ 사이에 자리하는 문학의 감응력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도리어 다수를 광장으로 모이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서 촛불집회는 촛불혁명으로 기입된다. 가교역할을 도맡은 것은 문학이

36) 문신, 「추모시에 나타난 애도의 시적 전략」, 『국어문학』 제66집, 국어문학회, 2017.

37) 박윤영, 앞의 글, 2017.

고, 내재적 연관성을 고은의 다 나오셨네 신경림의 원무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자칫, (혁명이란 명명 아래)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독해하는 순간 세월호와 관련된 쟁의 전체가 ‘과거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는 우려가 있다. 승리한 것이 있다면 정권의 교체로 나타나는 특정 당파, 그 지지자들에게서만 그렇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 그리고 문학의 참여」 이후의 일이다. “세월호 수사 방해, 진실 은폐, 구조 책임을 방기했던 당시 해경 지휘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자들, 최초 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았던 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원 무죄로 끝났다.”³⁸⁾ 우리 모두는 비참을 사그라뜨리는, 비가시화시키는 언설로 다시 돌아왔다. 이때 촛불혁명에 있었던 혁명성을 말하는 데 더 섬세한 분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최강민³⁹⁾은 세월호와 관련된 치유적 글쓰기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참여한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엄마. 나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붕괴하여, 세월호라는 재난 트라우마를 앓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술 글쓰기, 생일시 창작 경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상상적으로’ 소통케 함으로써 슬픔을 위무한다. 이때 “구술자를 대신하여 작가들은 구술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노력”⁴⁰⁾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사건의 ‘당사자성’이라는 점을 재고하게 만든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임지연⁴¹⁾의 연구는 시기상으로 최강민이 초점한 주제의 후속 연구처럼 보이지만, ‘생일시’가 희생자 단원고 학생의 목소리를 받아적는 시인이라는 ‘복수형 시적 주체’라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복수형 시적 주체는 사건을 동

38) 강승희, <304명 희생 참사...세월호 침몰 원인 ‘아직도 깜깜’>, 무등일보, 2023.04.13.,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92743>.

39) 최강민,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엄마. 나야.』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1집, 중앙어문학회, 2017.

40) 최강민, 앞의 글, 222쪽.

41) 임지연,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적 주체의 능동적 역할」, 『문학치료연구』 제6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일화하지 않고(작가의 목소리를 전제하거나 동일화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외상후 성장의 관점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으로 삶의 회복을 지향하게 만든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에서 (앞서 설명한 권성훈, 이성혁의 연구를 포함하여) 대체로 세월호의 사건성이라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⁴²⁾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가 세월호라는 사건 앞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지 물으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들(신자유주의 체제의 폐단, 여기에 덧대어져 있을 국가의 무능력/작동원리, 언어/문법의 파괴라는 현상, 타자의 존재 등)의 재현을 논구한다. 이처럼 재현의 필요와 타당성에는 큰 이견이 없어서, 본고에서 제기한 세월호 이후 제출된 시적 재현의 서로 다른 양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는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을 재현하는 가운데 세월호의 실재를 관측하기를 강조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논의 바깥의 시들은 비판의 대상 또는 재현 불가능한 재현의 타당성을 위한 증거로 참조될 뿐 유의미한 경향으로 초점되지 않았다.⁴³⁾

열거한 연구들의 결과에 물론 수긍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건의 문학적, 시적

42) 이외에 김애리자(김애리자, 「시에 나타난 소통과 치유의 과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와 최지혜(최지혜, 「2010년대 시에 나타나는 슬픔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의 학위 논문에서도 ‘세월호’와 ‘시’를 키워드로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애리자는 부분적으로 고은의 「이름짓지 못한 시」의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최지혜는 세월호 사건을 신자유주의적 연속으로 확인하고, 그에 의해 은폐된 ‘벌거벗은 생명’에 대해 초점한다. 이를 통해 2010년대의 문학의 연대에 주목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다소 과정적으로 사유되는 측면이 있다.

43) 김형중은 방민호의 소설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와, 박찬세의 시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시집 진부를 사례로 삼으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앞에서 시와 소설이라는 (근대)문학의 양대 장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어의 파괴라는 현상 앞에서 겪는 문학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건은 문학을 무능력과 직면하게 하고, 재현불가능한 것을 국가나 법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재현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세월호 앞에서 문학의 문제는 사건과 그것의 재현에 있다(김형중, 앞의 글, 각 46, 47쪽). 부기할 것은 그가 “정치 혹은 윤리 담론을 매개 없이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지적한 적 있어서, 1980년의 정치에 의한 철학의 봉합이 세월호 직후 발표된 시들에게서 나타남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후는 추측이다. 사건에 충실한 주체라면, 감각의 재분할 속에서 다만 사건/재현의 문제를 발화하는 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위계가 발생한 것이다.

재현의 이상적인 모델‘만’을 두고 펼쳐진 담론장의 모습을 곧장 동의하기에는 어딘가 적연치 않다. 이 지점에서 함돈균의 다른 논문⁴⁴⁾은 세월호 이후의 시적 재현의 다른 방향을 논구하는 데 있어 한 참조점을 제공하는 듯했다. 그가 먼저 지적하는 것은 세월호를 ‘기억하라’는 시민 정언명령의 순간이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때 “1차 정보의 총체적인 은폐·왜곡·조작·망실 상황에서 작가는 정보 자체를 ‘발견’하고 ‘증언’해야 하는 괴상한 상황에 놓인다.”⁴⁵⁾ 작가는 1인칭 ‘나’로서 사건의 ‘원천 정보’를 말하기를 요구 받는다. 재현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본래 재현하는 순간 개입되는 인식적, 언어적 편집 능력 때문에 촉발되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의 기억의 현시를 필요로 하며 생겨나는 요청 가운데 조금 다른 불가능성을 향하는 발화가 확인된다.

이 점을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인용해 설명하는데, 그에 의하면 “소년의 목소리’가 작가의 모종의 정신 영역에 ‘깃들고’, 그것이 **문장의 ‘나’로 (재현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다.”⁴⁶⁾ 작가가 아닌, 목격자와 증언자가 아닌, 그러면서도 작가이자 목격자이자 증언자인 어떤 존재가 ‘말한다’. 이것을 그저 재현이라고 부르기에는, 제 상황을 ‘겪어야만’ 가능한 발화이므로 ‘나’(작가)의 종합적 사고에서 ‘도약’해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위치에서 말하게 만드는 시가 있다. 이영광의 시 「수학여행 다녀올게요-유령 6」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세월호 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면서, 그 불가능 속으로 진입한다. 이때 시는 세월호에 대해 쓰여진 시가 아니라 세월호‘의’ 시로 직조된다. 상상이라는 수사를 동원했지만 이는 재현의 어떤 과정을 뛰어넘는 것이고, 다소 비약된 형태의 재현이라는 것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⁷⁾ 물론 이는 앞에서 검토한 연구들과 크게 유리된 결론이 아니다. 주목할

44) 함돈균, 「불가능한 몸이 말하기」, 『창작과비평』 169호, 창비, 2015.

45) 함돈균, 앞의 글, 425쪽.

46) 굵은 글씨 표기는 인용자 강조. 함돈균, 앞의 글, 430쪽.

47) 이 글은 이처럼 말하는 자의 다른 관점, 욕망에 따라 다른 재현들, 특히 재현이 아닌 것처럼 간주될 법한 재현의 형상 속에서 세월호 이후의 시적 지향이 태동할 수 있다고 본다. 묘사와 대표로서 ‘재현하기’를 뛰어넘을 때, 사건에 충실할 때, 그에 따른 ‘다른 윤리’를 통해서 일상의 어법을 초과/이탈하는 시 작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부분은 재현의 서로 다른 형상이 가능하다는 투의 논지 자체에 있다. “문장의 ‘나’로 (재현이 아니라) ‘나타난’ 것”처럼 고전적인 의미의 재현이 아닌 재현, 또 불가능한 발화이되 그 원인과 배경이 조금은 다른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 ‘있다’. 이것이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라는 지향 아래에서도, 그와 꼭 들어맞을 수는 없을 어떤 간극들을 증명한다. 이때 재현은, 그것 아래에서 몽개지던 의미의 결들에 대해 분류할 계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재현에의 열망’이라고 기술할 법한 경향이 촉발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선 한 척의 배가 침몰하는 데에 국가의 오작동으로서의 작동이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관련된 몇 정황들을 보자.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 나미노우에호(6,586톤, 1994 건조)를 8억엔(한화 115억 원)에 들여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여객선 세월호로 증개축해 사용했”(46쪽)고 “증개축한 결과, 세월호의 복원성은 전반적으로 일본 선박 건조 당시보다 취약해졌”(49쪽)으며, “하지만 한국선급의 경사시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50쪽)는 것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9시 36분경 진도VTS에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한 후, 자신들은 9시 46분경 세월호를 빠져 나왔다”(106쪽)는 점, 또 “123정은 정장의 구조 포기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다른 구조 활동도 시도하지 않았다”(110쪽)는 것, 더불어 “사참위가 처음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2015년 1월 20일 아침 별도 안건 없이 진행된 실수비회의에서 김기춘은 세월호특조위 설립 방해 지시를 했다”(208쪽)는 사실 등.⁴⁸⁾ 당시 목격되었던 국가의 사후적 대처(정부의 비참여적 행위 등)와 거의 동시에 밝혀졌던 사전적 과정(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적절한 심사와 운행을 가능하게 했던 관료주의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은 발생한다. 언어의 상징성을 받아들이며 인간이 된다는 점⁴⁹⁾,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대타자로서의 국가라는 측면을 의식한다면, 이러한 재난의 가능성을 이 사회가 ‘일상적으로’ 배태해왔다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가치와

48)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행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본권 II』(2022.9.1.)를 참조. 종합보고서 웹페이지 주소는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co.kr/>.

49) “우리는 언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말이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의 세계가 곧 우리이며 우리의 세계가 곧 언어이다.” 옥타비오 파스, 앞의 책, 37~38쪽.

유용성을 개인의 심급으로 삼도록 만들면 “신자유주의 체제 내의 시민들, 특히 빈곤하고 소외된 이들, 혹은 주류에 의해 그렇게 인식된 이들이 사회적으로 ‘처분 가능한(disposable)’ 존재로 구성”⁵⁰⁾된다.

이러한 맥락에 수궁하면서, 세월호를 에워싼 문학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붕괴 앞에서 문학의 무능력과 대면하기를 주장했다.⁵¹⁾ 말을 잃는 그 시간에 이전

50) 김수미, 「고통과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언론과 사회』 23(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70쪽.

51) 본 연구에서 참조한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우찬제, 「애도의 윤리와 소통의 아이러니」, 『문학과사회』 108호, 문학과지성사, 2014.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문학과사회』 108호, 문학과지성사, 2014.

이영진, 「2014년 여름, 비탄의 공화국에서」,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이진혁, 「세월호를 이제 그만 잊으라는 사람들에게」, 『창작과비평』 166호, 창비, 2014.

함돈균, 「연옥에서 기도하는 시인들」,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또한 문학동네에서는 계간 『문학동네』에 2014년 여름호와 가을호에 게재된 글들을 모아 단행본(김애란 외 11명,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을 출간하였는데, 여기 실린 이들의 이름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김행숙 「질문들」, 김연수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테이레시아스여」,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진은영 「우리의 연민은 정오의 그림자처럼 짧고, 우리의 수치심은 자정의 그림자처럼 길다」, 황정은 「가까스로, 인간」, 배명훈 「누가 답해야 할까?」, 황종연 「국가재난시대의 민주적 상상력」, 김홍중 「그럼 이제 무얼 부르지요?」, 전규찬 「영원한 재난상태: 세월호 이후의 시간은 없다」, 김서영 「정신분석적 행위, 그 윤리적 필연을 살아내야 할 시간: 저항의 일상화를 위하여」, 홍철기 「세월호 참사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김수미,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언론과 사회』 23(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김형중, 「문학과 증언」, 『감성연구』 1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백지은, 「‘가능한 미래’를 성찰하는 문학」, 『창작과비평』 168호, 창비, 2015.

백지은, 「수평선이 보인다」, 『문학동네』 83호, 문학동네, 2015.

신셋별, 「부모의 자리에 서서」, 『창작과비평』 168호, 창비, 2015.

신형철, 「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1」, 『문학동네』 82호, 문학동네, 2015.

양경연, 「눈먼 자들의 귀 열기」, 『창작과비평』 167호, 창비, 2015.

양재훈, 「불/가능한 공감」, 『작가들』 제53호, 인천작가회의, 2015.

정현, 「세월호 이후 정치적인 것의 세속화」, 『창작과비평』 170호, 창비, 2015.

의 ‘말-질서’가 아닌 방식으로, 지금 드러난 것을 계속 노출 시키며 상징적인 것의 죽음이 단행될 수 있도록. 더러는 그 바깥에 있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에 주목했고, 더러는 저 체제 안에 가담한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에 질문을 제기하며 윤리의 문제에 골몰했다. 이해될 수 없는 사건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했던 것은, 자신의 구성적인 위치를 해체하여 더는 전과 동일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문학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세월호를 재현할 때 맞닥뜨리는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라는 지점을 숙고하거나, 애도의 모습을 정치학적으로 주목하여 제도적 변화/윤리적 변화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문학의 실천과 응답들이 전개되었다.⁵²⁾

이렇게 기대되는, 추구하는 재현의 의미를 바디우의 어법을 동원해 말해보자면, 상태 또는 국가의 규정으로부터 ‘공백’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공백이란, 바디우가 존재를 정의하는 어휘 중 하나로 “일자의 실패를, 비밀자를 가리킨다.”⁵³⁾ 그러면 ‘일자’란 무엇일까. 이는 플라톤의 형이상학 속에 구축

함돈균, 「불가능한 몸이 말하기」, 『창작과비평』 169호, 창비, 2015.

함성호, 「타인의 고통과 만나는 문학의 자리」, 『작가들』, 제53호, 인천작가회의, 2015.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감성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이소연, 「더블클릭을 향한 열정」, 『문학과사회』 114호, 문학과지성사, 2016.

52) 하지만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그것을 과거의 언어로 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직한다. “사건을 언어화하는 일—그때 사건은 항상 과거형으로 표현된다—그것은 사람이 사건을 ‘과거’로 순치하는—길들이는—것”이다(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54쪽). 경험이라는 말로 쉬이 표현해버리듯이 사건은 기성의 언어에 의해 문법화되기 십상이고, 이 잘라진 말들이 내포할 인간주의의 곤경에서 재현에 대한 사유는 촉발되는 듯싶다. 물론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월호라는 진실로부터 탈각시키는 정치적 기획 앞에서, 문학적 대응들은 이를 ‘그대로’ 재현하기를 택함으로써 국가 또는 법의 언어가 강제하는 삶 속에서 이 같은 참가가 배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서도, 미처 자각되지 못한 정치적 무의식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세월호를 사건으로 호명할 때,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사건에의 문학적, 혹은 정치적 대응이 ‘다시’ 작동되는 식으로. 순간 재현 주체는 사건을 재현한다기보다 ‘이전의 재현’을 위해 복무하는 위험에 빠지며, 이는 “진실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정치적 기획”과 (세월호라는 사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흡사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53)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07쪽.

된 관념으로, 진리를 규제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한다(이데아론). 바디우가 보기에 이 사유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따라서 대상이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시켜버리는 데 있다. 때문에 (플라톤의 일자를 버리고) 존재가 ‘다수’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유의 틀이 고안된다. “자신을 현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수이다. 그리고 현시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자이다.”⁵⁴⁾ 이제 존재를 규정하는 질서, ‘일자화하는 구조’란 허구로 간주된다. 구조로부터 식별되지 않으므로 현시로서의 존재가 공백의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 필연적 질서에 의해 세계는 존재하므로, 따라서 이 단일한 체계가 모든 것은 일자로 셈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⁵⁵⁾ 이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사건에 의해 존재/공백이 해방되는데, 이에 충실하므로 재현은 기존의 지식 체계를 뚫고 나오는 앎을 보존시키도록 한다.

그런데, 또 바디우가 말한 재현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 바디우의 정리는 이렇다. “상황의 상태에 고유한 셈하기 또는 구조화의 양식, 상황의 상태에 의해 (상황 속에서) 하나로 셈해지면 어떤 항은 재현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재현된 항은 상황 속에 포함된다. 즉 그것의 상황의 부분이다.”⁵⁶⁾ 다수, 일자로 셈하기의 체제로서 상황 속에서, 셈하기라는 구조화가 놓치고 마는 것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이 재현이다. 이것은 개념어를 다르게 사용하므로 빗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현의 난관이 또한 이와 흡사하다. 바디우의 어법을 좇아 해석한 재현과 바디우가 지적, 사용하고 있는 재현은, 이를테면 구조를 돌출하는 것(‘현시’)과 구조 내의 표상(‘현존’)으로 대비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재현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자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이 담론, 또 구조 내로 편재될 수 있다는 점은 곧잘 잊혀졌

54) 굵은 글씨는 인용자 강조. 이 간극에서 ‘현시’와 ‘현존’은 구별될 수 있다. 알랭 바디우, 앞의 책, 55쪽.

55) 바디우는 이런 명명, 규정성을 ‘일자로-셈하기’라고 말한다. “일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자-결과는 일자로 셈하기라는 조작의 결과이다. 모든 상황은 그러한 셈하기에 의해 구조화된다.”(알랭 바디우, 앞의 책, 804쪽.)

56) 알랭 바디우, 앞의 책, 805쪽.

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과 실재 사이에 매개적 작용인 재현이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독해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무언갈 수행하더라도, 수행 주체의 지향이 무의식적으로 가리키는 곳에서 그의 인식적 체계의 되풀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주체가 반복하고 있을 선제적인 사고는 ‘무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렇게 강요되어 있다는 한에서 폭력으로 작동하며, 담론과 권력들의 차이에 따라 여러 양태로 분류할 수 있기까지 하다.

재삼 강조하지만 재현이란 ‘하나같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세월호 이후 쓰인 시들을 한 묶음으로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문학 담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불/가능한 재현의 동기에 수상쩍은 구석이 있다는 점을 이 지점에서 함께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세월호 이후 쓰인 시의 모습들을 제출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세월호 사건 직후 나타난 시들이 추모시라는 모습으로 ‘재빠르게’ 발표되어왔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성을 바탕으로 쓰였을 저 시들에 기시감을 부여한다.

사건에 대한 대응 절차가 준비되어 있었던 듯 느껴지게 하는 것에서, 재현이 이미 합의된 결과처럼 기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출된다. 이런 의심 속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또한 가능하겠다.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재현-형식’이 ‘재현-형식’으로 살아남았던 것은 아닐까. 추모시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시집들은 이런 의심을 강화하는 지표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겠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목록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다.⁵⁷⁾ 한편 이 연구는 세월호 문제를 다룬 시 중 재현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것의 심급을 다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언급한 시집 중 세월호 직후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시국 선언(「우리는 이런 권력에게 국가 개조를 맡기지 않았다」)에 이어 발간되었던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중심으로 무/의식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의미 형성의 맥락들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주요 텍스트로 선정한 데에는 발표 시기상의 이유도 있지만, 책의 소개처

57) 세월호 관련 시, 소설 및 문학 장르의 상세한 목록은 <부록 - 세월호 사건 관련 문학 자료>를 참조.

럽 ‘고은 외 68인’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이유
 가 크다. 공동저작물로서의 추모시집은 이외에도 『엄마. 나야.』, 『세월호는 아
 직도 향해 중이다』 등이 더 존재한다. 하지만 한 시집을 주요 텍스트로 위치시
 킨 후 출판된 다른 공동저작 시집들을 비교할 때 각 재현 양상들을 더 선명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는 이점 등을 감안하여, 연구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
 다』를 두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열거한 공동 추모시집 및 이외의 추모시집
 들, 세월호를 주제로 발표된 개별 시집, 시편들까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중 일부 시들을 제외하고서⁵⁸⁾, 제시된 시집들은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라도) 참사 ‘자체를’ 이야기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⁵⁹⁾ 다른 한편
 사건 이후 재현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재현의 문
 제는 일방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자신의 자명한 원리를 잃어버린 채 공백을 해
 방시키는 일들을 거론하기 위해 왕왕 1980년대라는 시대가 소환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적 재현이라는 문맥에 기입된 ‘정치적 무의식’의 요소가 좀
 처럼 의문시되지 않을 수 있었다. 본고는 이 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만
 약 이것이 일종의 정신적 도식 아래에서 구성된 산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가정은 세월호에 대한 문학의 발 빠른 대응 자체까지를 의심스럽게 볼 수 있
 도록 만든다. 세월호 이후 문학의, 특히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
 들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냐는 것.⁶⁰⁾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으

58) 정동수의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는 7쪽에 실린 권두시(「세월호야 넌 알고 있으리
 라」)를 제외하고, 세월호와 무관한 내용들—가령 “마당가 석류도 빠알강개/가을이 물씬 익어간
 다.”라는 식으로 생활에서의 서정적 자아의 발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일종의 원방으
 로, 종래의 상징질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그 의도를 해석해볼 수 있다.

59) 다소 반복적인 강조지만, 이때 재현 주체가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질서에
 따라 재현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묘사/대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재현 주체의 인식
 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재현하는 순간 인식적 가치의 측면이 작동하고 재현 주체의
 인식에 따라 그 양상이 구별된다면, 재현의 양상들은 결코 단일한 목소리로 나타날 수 없다.

60) 5.18이 긴 시간을 거쳐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세월호
 이후의 (문학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정치적 대립 또한 과열되어 있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정치적 처리과정이 극단적인 갈등을 겪었”(박종희,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

나, 이런 정황들 속에서 어떤 순전한 학습이 비춰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디우의 개념을 더 상세히 참조하여 해명해보고자 한다. 앞서 ‘사건’ 개념을 약술할 때 지시되었듯 그에게 있어 모든 진리는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수다. 이러한 존재/다수는 세계에서 어떤 일자화의 통제를 통과한 존재로 드러나고, 그런 까닭에 다수는 일자로 지칭된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일자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존재는 현시 속에서 나타나는 한에서만 다수(이며) …… 이 때문에 일자도 …… 또 다수도 아니다.”⁶¹⁾ 존재는 기본적으로 다수이지만, 현시하고 현존될 때 다르게 나타나므로 비일관성을 지닌다는 의미다. 다만 상황에서 세계의 규정성은 이를 계속적으로 억압하므로(현존, 재현), 한계에 부딪을 때 존재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이것이 사건이다). 때문에 일상성 가운데 돌출하는 것으로서 앞(또는 진리)이란 비정형적 다수를 ‘증명’하는 절차가 되기도 한다. 진리가 사건의 진리가 됨과 동시에, 그 현시 가운데 진리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 진리 산출 과정에는 과학, 예술, 정치, 사랑이 있다(이것이 바디우의 ‘네 가지 진리 절차’다). 사건에 충실할 때만이 새로운 진리가 도래하며, 이때 철학은 의미에 구멍을 내어 “진리들이 모두 함께 말해질 수 있도록 의미의 순환을 중단시킨다.”⁶²⁾ 따라서 (사건과 관련하여) 철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철학은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진리 공정들 또는 유적(산출적) 공정들의 유형들이 바로 그 조건들이다. 그 유형들이란 과학(더 정확히는 수학소), 예술(더 정확히는 시), 정치(더 정확히는 재내성의 정치 또는 해방적 정치), 사랑(더 정확히는 성적 입장들의 분리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공정)이다.⁶³⁾

보』 50(1), 한국정치학회, 2016, 241쪽.)는데, 이것은 유사 경험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선호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세월호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반응들은 많은 경우 세월호에 의한다기보다, 정치, 역사적으로 결정/각인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61) 괄호 및 내용은 인용자. 알랭 바디우, 앞의 책, 57쪽.

62)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6, 104쪽.

63) ‘유적’이라는 표현은 한 종류에 특유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진리의 서로 다른 절차들이 각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 절차들이 생산한 것 …… 이것은 유적 다수의 형태 아래에서 이 상황들의 진리일 뿐이다. 어떤 지식도 그 진리에 이름을 붙여줄 수 없고, 그 지위를 앞서 식별할 수 없다.⁶⁴⁾

철학은 “철학은 진리들의 주어짐과 그 공동 가능성이 언표되는 사고의 장소이다.”⁶⁵⁾다. 진리가 특정 영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영역의 현상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학, 예술, 정치, 사랑의 영역에서 도출되는 단면을 추상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만약 철학이 진리적 절차들을 평등한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네 가지 중 하나를 우월한 지위에 놓는다면, 특정한 진리 생산이 다른 진리 생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철학의) ‘공가능성’을 부정했을 때, ‘통합’이 발생한다. 이때 어떠한 진리도 생산하지 않고, 다만 ‘명명’하는, “진리들의 계기가 갖는 통일성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유적 절차들이 공가능한 것으로 숙고되는 개념적 장소를 제시”⁶⁶⁾하는 철학의 목표가 상실된다. 개념들의 공속적인 장으로부터 한 개념에 사유를 위임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바뀌는 것이다.⁶⁷⁾ 그리고 단 하나의 진리 생산 공정으로 통합, 수렴되는 일들은 한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 다른 진리를 생산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시한다. 이러한 번역에 물론 동의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독해를 위해 ‘(산출적)’이라고 병기하였다. 이 표현으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오직 생산될 뿐이라는 특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03쪽.

64) 알랭 바디우, 서용순 옮김, 『철학을 위한 선언』, 길, 2010, 156쪽.

65)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6, 103쪽.

66) 알랭 바디우, 서용순 옮김, 『철학을 위한 선언』, 길, 2010, 57쪽.

67) 바디우에 의하면, 19세기 경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통합에 의해 다른 조건들은 축소되었다. 이 지배적인 기준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 조건에 의한 철학이 통합을 제안하여, 철학을 이중으로(과학, 정치) 통합시켰다. 이후 (하이데거에게서 절정에 이른) 시에 의한 철학의 통합이 목격된다. 이러한 통합에 대항하여 철학을 ‘탈-통합’시키는 것이 바디우의 목적이다.

…… 철학의 중단은 자신을 조건 짓는 진리 절차들 사이의 경로 또는 지적 순환의 체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봉쇄되어 있다는 것에서 야기될 수 있다. 그러한 봉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시대에 대한 사유가 행해지는 공가능성의 공간을 수립하는 대신에, 철학이 자신의 조건들 중 몇몇에 자신의 기능을 위임하는 것, [다시 말해] 철학이 사유 전체를 하나의 유적 절차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때 철학은 그 절차를 위한 자기 자신의 폐지라는 요소 속에서 실행된다.⁶⁸⁾

철학이 공가능적인 진리의 조건을 대표하므로 사건의 순간성은 오독된다. 언제나 ‘진리들’일 진리 앞에서, 단 하나의 진리 산출적 공정이 고집되는 것. 그러면 진리의 생산이 중단되고, 위계가 생산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한국의 1980년대에 나타났다. 주지하듯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이 한국정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80년대라는 시대는 직접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거나, 그 경험은 ‘상처’나 ‘영광’ 그 자체이고, 정치의 현장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은 자체가 곧바로 정치적 자원이 돼 있기도 하다.”⁶⁹⁾ 천정환의 지적처럼 정치적 운동 경험이 개인 삶의 약력으로까지 기능했고, 이처럼 정치적 진리 공정의 범주들은 ‘노동자 남성 주체’라는 모습으로 문학에 매개 없이 접속했다. 노동자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 등(‘리얼리즘적 기율’이라는 오랜 문학적 관습까지를 함께 이야기해볼 수도 있다). 정치적 봉합 이래 어떤 사유의 전 과정도 정치성을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봉합이 여전히 제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로 우리 시대가 호출될 수 있지는 않을까. 사실 그대로, 사건 자체를 재현하겠다는 포부 저편에 있었던 것은 문학이 아니라 정치의 기율일 수도 있다.

파르주에 따르면 실재는 “인식보다 커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부이지만, 가공되지 못한 흔적일 뿐이라는 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다.”⁷⁰⁾ 곧, 실재

68) 알랭 바디우, 앞의 책, 93쪽.

69)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88쪽.

70) 아를레트 파르주, 김정아 옮김, 『아카이브 취향』, 문학과지성사, 2020, 20~21쪽.

를 인식하기 위해 그것을 어떤 ‘지식 형태’ 속으로 들여와야만 했다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현 주체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를 통해 법-질서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한국사회가 보증하지 않는 진실에 다가간다고 여긴다. 하지만, 한편 실제로 재현 주체가 발화할 수 있는 것이란 몇 가지 규정 또는 특정 담론이 보장하는 전망 속에서 ‘배치된’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재현이라는 ‘합의’ 일반으로 귀결시키는 어떤 충동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세월호 사건과, 이전의 사건으로서 5.18 등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들까지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이때 세월호 이후에 쓰인 시들의 무의식적 욕망의 지형을 훑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II장에서는 사회 담론, 문학 담론에서 이어졌던 일반적 경향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진단하면서, 특히 한국문단에 있었던 몇 논쟁(‘미래파’, ‘시와 정치’)의 측면을 조명한다. 이것이 사건, 재현이라는 문맥과 얽혀서 세월호를 이야기할 때 가동되는 인식적 배경의 한 꼭지를 형성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견되는 ‘재현-윤리’라는 문제, 그것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세월호 이후의 쓰인 시들, 특히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당시, 또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문학의 재현은 대상,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것이 사실의 은폐 또는 편집이라는 사회적 정황과 맞물리면서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저항의 의지 등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게 되었다. (문학) 담론 일반에서 세월호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하였던 이유다. 이에 따라 시인들 또한 사건 자체를 발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이 작성한 내용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은 저 담론적 의지들에 의한 것이고,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어떤 언어적 거름망에 의해 걸러진 발화로서 나타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취합 · 검토될 때 ‘재현이라는 일종의 합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어떤 전략이 관측될 수 있고, 이때 증언 자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의 의심할 수 없는 순수성에도 의문이 가해진다. 이 지점에서 세월호 이후

의 시 중 일부는 ‘세월호 이전의 시’로 사유될 수도 있으며, 재현이라는 결론 아래 뭉뚱그려져 있을 서로 다른 양상에 대해서도 탐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담론적 재현이라는 의심에 대해 시의 재현이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에 대한 저항이 전혀 궁구되지 않은 생산물들이라고 모든 시를 평가할 수도 없겠다. 따라서 <IV.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에서는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재현되고 있는, 거론된 그 어떤 인식적 재현에도 종속되지 않기를 행하는 시의 형상들이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V장 결론은 이어진 논의에 대해 요약하고, 본 연구가 남기는 과제를 밝히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II. 시와 재현의 윤리

이 연구는 서론에서 소개한 연구 성과들을 승계하여서, 세월호를 시적으로 재현하는 양상들 내부의 무/의식적 결정 지점을 다시 살피는 데 관심이 있다. 시적 재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을 상호작용의 측면을 초점하고자 하며, 이에 관계된 한국문학장이라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절의 목적이다. 따라서 세월호 이후에 쓰여진 시를 중심으로 재개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차원이 아니었겠냐는 의심(그런 식으로 세월호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붙여, 이를 가능하게 만든 근거로서 몇 상황들을 호출하고자 한다. 그것은 세월호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한국문단의 흐름이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나타난 시적 경향(소위 ‘미래파’)과 ‘시와 정치’의 담론 등을 확인해보고, 이어 사건·재현 개념을 에워싸고 벌어진 문학의 담론적 흐름을 개괄한 이후, 시에서 ‘재현의 윤리’가 어떻게 발생, 기능하고 있는지 그 작동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래파’⁷¹⁾와 ‘시와 정치’

71) 미래파는 권혁웅에 의해 제시된 표현이다. 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비평적 진영에 의해 다른 서정(이장욱), 뉴웨이브(신형철) 환상적 서정(김진수), 진화하는 서정(김수이) 같은 상이한 이름들로 지칭되었는데, 이때 의미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조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권혁웅, 신형철이 기존 서정시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이장욱에게는 ‘연속’을 강조하는 태도가 나타난다.”(안지영, 「‘포스트-’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 『인문논총』 제59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50쪽.) 또한 미래파 논의를 비판하는 입장 역시 전개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미래파라고 불린 시들의 경향이 너무 이질적이기도 했거니와, 2000년대 시를 이렇게 한데 묶어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고, 또 이 시도가 문학사를 구획하는 오래된 관습(10년을 단위로 하는)이라는 점 등이 있겠다. 즉 미래파는 그 명명이 시도된 직후 꾸준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던 셈이다. 하지만 이들 논의의 지형적 차이는 이 글이 따져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이 글은 첫째 서정의 문법 등으로 포획할 수 없는 2000년대 한국시의 새로운 현상들을 표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정황과 함께, 이를 둘러싼 문단의 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세월호 사건이 한국 문학장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처럼, 세월호 이후의 시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비단 세월호라는 사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한국문단, 이후의 시. 이들은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세월호 이후의 시의 기억의 한 처소로써 한국 문학장을 살펴보는 일은 유효하다. 세월호 이전의 시라는 것에 응답한 후에야 그 이후의 시라는 것에도 대답할 수 있다는 소리가겠으며, 이에 따라 관계된 사회, 역사적 정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바로 근대적 문학 관념으로서의 미적 자율성의 탄생과, 이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2000년대 후반 시와 정치 담론—즉 문학과 정치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논쟁의 측면이다.

‘근대문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⁷²⁾ 그것은 정치와 양립 불가능한 무엇으로 표상되면서, 문학 외의 다른 타자들과 양극성을 생산해내며 스스로의 미적 동일성을 강화하면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미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정립, 도입된 이후 순수한 미적 탐구라는 미명 아래 문학과 현실은 무관해져 갔다. 물론 문학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처럼 표상될 때, 이에 반대하는 문학의 운동들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민족문학 · 프로문학 · 참여문학이라는 이름의 실천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발상은 ‘문학에 근거하여’ 실제와 교섭이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문학이 현실을 압도한다는 관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하기 위한 수사적인 목적에서, 둘째 이후 ‘미래파 논쟁’으로 불리게 될 담론을 지시하기 위한 보통명사로써 미래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2)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이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문학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가 끝났다.”(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근대 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5, 64~65쪽.) 이 문장은 문학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근대문학’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문학이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문학의 정치성이란 문학이 정치를 떠맡기를 요구받으며 발현하는 것인데, 이 현상은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기폭제로 문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유관하다. 한편, 이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문학’에 대한 한정적인 대답이라는 측면은 강조해둘 필요가 있겠다. ‘사회를 정초하는 문학’으로서 기왕의 질서에 균열을 초래하는, 다른 감각의 반응 또는 질서를 이끌어내는 문학의 출현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적 자율성이라는 원리의 바깥에 놓인 운동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후로도 비슷한 사정이 반복되었다. 문학 고유의 물질성에 전념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립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 문학사에서 현실 또는 정치적 실천과의 긴밀성을 문학의 목적이자 무기로 삼은 문학관과 그로부터의 자율성을 문학의 본질 또는 본령으로 삼는 문학관 양자가 이론적 공전(空轉) 상태를 꽤 오랫동안 빚어온 것이 한국문학의 특수성으로 보일 만큼 두드러진”⁷³⁾ 사실로 나타났다. 미적 자율성의 성취 가운데 문학과 정치 사이에 해결치 못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를 뒤엎는 사건이 2000년대 후반 시와 정치에 대한 논쟁이다.

그 가운데 미래파의 출현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다. 미학적 전위의 극단이라는 일반적 평가는 이 지점에서 다시 설명될 수도 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낯선 육체의 등장이 고지하는 것은 실험이라기보다, 역사의 인력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체험이었다. 참여적 실천을 통해 문학의 ‘탈신비화’를 모색해왔던, 그 한 측면에서 개인 주체를 구체화 시키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면서, 이렇게 왜소해진 개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가 이후 일반적 경향으로 대두했다.

또 이 궤적은 문화적 유입이라는 현상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기적으로 미래파는 2005~2008년 사이에⁷⁴⁾, 시와 정치 논의는 2008년에⁷⁵⁾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수입된 ‘좌파 메시아주의’, 예를 들어 지젝, 바디우, 아감벤 등 이른바 ‘포스트-포스트주의’ 사상가들의 견해가 있었다. 진태원에 의하면, 이들은 당시의 공적 이상—신자유주의적 체제가 대타자를 호출해 제 질서를 수정, 보완하는 것과 달리 자본의 시간성을 종결시켜 무의식적

73) 김미지,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랑시에르의 ‘문학 정치’ 개념 적용에 관한 일고찰」, 『한국 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174쪽.

74) 오형엽에 의하면 미래파 논쟁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이장욱에 의해 2000년대의 새로운 시적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고(김행숙 『사춘기』, 김민정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의 해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권혁웅이 2005년에 발표한 두 편의 평론(「미래파」, 『문예중앙』, 2005년 봄호: 「상사(相似)의 놀이들」, 『문예중앙』, 2005년 가을호)을 통해서였다(오형엽, 「환상의 심층」, 『문학과 사회』 통권 제76호, 문학과지성사, 2006).

75) 진은영이 「감각적인 것의 분배」를 발표한 이후를 기점으로 삼고 있다.

실재를 드러내게 만듦으로써 이른바 제도 ‘바깥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에 골몰한다.⁷⁶⁾ 한국 역시 이러한 정황, 논담과 무관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래파는 상징질서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바깥의’ 실재를 현시시키는 (기존의 서정미학 체계와 다른) 다른 미학 체계로의 이동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닥뜨린, 또는 배태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허위의 역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현실이 강렬한 강도로 다시 감지되면서 일종의 굴절을 경험하게 된다. 오랜 경제 불황 가운데, 이를 벗어날 희망으로 약속된 정부의 등장이 도리어 폭력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용산참사’ 등)이 모두에게 목격되면서 미래파의 논의가 시와 정치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게 되었던 것이다. 치열한 사유의 복판에서 진은영은 “삶과 정치가 실험이 되지 않는 한 문학은 실험이 될 수 없”⁷⁷⁾음을 주장했고, 미학의 정치를 삶의 정치 속에서 구성하는 사건으로서 시의 정치성을 말할 수 있다는 논제 가운데 시와 정치 논의의 외연이 급속도로 넓어졌다. 곧 시와 정치 논쟁이란 문학의 자기 점검 속에서, 현실에 대한 문학의 참여 요청이 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문학-주체에게 던져지는 최후의 질문으로 나타났던 셈이다. 이후 초점은 개인의 ‘윤리’라는 주제로, (대안적인 운동 또는 조직을 구체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변적인 부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론 속에서 상징과 실재의 대극 구도를 ‘제도 질서의 안/밖’으로 이해하는 시선이 늘어나기도 했다.⁷⁸⁾ 상징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바깥’이 위반을

76) “인민의 권력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진정한 정치의 장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태원, 「좌파 메시아주의라는 이름의 욕망」, 『황해문화』 통권 제82호, 새얼문화재단, 2014, 180쪽.

77)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 통권 142호, 창비, 2008, 84쪽.

78) “실재를 발본적 부정성의 풍경으로 전유하고자 했던 미래파시론에 동조한 여타 평자들과 그에 반대하는 다른 평자들 사이에서, 상징계와 실재계를 제도 질서의 선명한 안과 바깥으로 이해하는 시선이 점차 확대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최종환, 「2000년대 현대시론의 정전 구성과 메시아주의의 수용 문제」, 『우리어문연구』 51집, 우리어문학회, 2015, 111쪽.

위한 수단으로서 전면화될 때, 전복에 대한 강박이 초자아의 쾌락에 의해 이용되면서 미학의 실험이 다른 관례로 간주되는 식으로. 하지만 본디 미래파 등의 주장은 자기 반성적 맥락을 계속적으로 점유함으로 수행되는 것이다.⁷⁹⁾ 다만 이를 수행할 개인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좀 더 보편적인 세계 구성원들에 대한 시야 속에서 재사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래파의 자유주의적 시학은 시와 정치 논의 속에서 민주주의적 시학의 모양새로 ‘변양’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⁸⁰⁾

2. ‘사건’과 ‘재현’의 담론적 궤적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삶과 세상을 재현하는 장치인 문학에서 어떤 ‘퇴행(성)’이 문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재현된 내용만이 아니라 재현된 방식도 그러하다는 뜻이다. ‘재현장치’의 무능은, 재현의 대상(소재), 목적(주제), 방법(서사)에 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현의 의도, 감성, 윤리 등과도 당연히 밀접하다. 바꿔 말해, 어떤 ‘문학’을 낳은 인식의 체현이라고 할 때, 문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맞지 않는 낡은 의제가 아니라 어떤 의제를 표출하는 언어의 (문학적이라고 여겼던) 사용 방식이 변화하는 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⁸¹⁾

일련의 정황은 ‘사건’과 ‘재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고무 영향을 미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개념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이전까지

79) 일례로 김수이는 “현사회의 감성 및 주체 구성의 매트릭스를 구조화하고 있는 선들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할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 김수이, 「자체제작 소리를 내는 상자들, 그리고」, 『창작과비평』 통권 150호, 창비, 2010, 55쪽.

80) 최종환, 앞의 글, 118쪽.

81) 백지은,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 문장웹진, 2017.02.01., https://webzine.munjang.or.kr/board.es?mid=a20104000000&bid=0004&list_no=2396&act=view&ord=B&nPage=1&c_type=A&c_page=.

의심 없이 허락되어온 문학적 규범과 관습 등을 의문시한다. 사건이 진리의 보편성이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진리 산출 공정)를 재가동시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잉여 또는 초과’를 주목한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상징계적 의미에서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한 것(the real)’을 드러내기 위해서, 리얼리즘적으로 재현해왔던 기존의 문학적 방법들이 지양되기 시작했다. 문학, 나아가 예술의 구현원리로 자리 잡았던 재현이 더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 기호를 사용하므로 재현이라는 수단을 통해 현전하게 된다는 한계 앞에서 혁신이 꺾혀졌던 것이다.

블랑쇼, 리오타르 등의 논의를 통할 때 재현 불가능한 것의 재현이란 아우슈비츠 같은 사건의 문제에서 포기나 거부로서 ‘비재현’으로 수렴된다. 문학은 차라리 ‘침묵’하거나(블랑쇼), 그러한 사태 앞에서 마비된 감각이라는 상태를—즉 재현의 포기를 전달하는 데 그쳐야 한다(리오타르). 물론 이를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재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순간이야말로 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들은 비재현이란 되려 사건을 은폐하길 바라는 가해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의 가시성’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디디-위베르만), 무의식적인 ‘이미지의 소거’에 가담하지 않도록 재현을 통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아감벤).

이때 랑시에르는 재현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탐문하기 위해 당시 한국문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호출된 이론가였다. 특기할 부분은 2008년 진은영이 랑시에르를 인용하여 예술이 감성의 활동에 관계하는 한 감성적인 것들의 형태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미가) 정치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후로, 문학의 재현과 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실험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내포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문학(예술)과 일상(정치)의 관계는 내내 의문시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문학을 얼마나 생산해왔고 앞으로 어떤 문학을 만들 것인가가 문학의 생명력을 가늠”⁸²⁾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들 속에서 감지되는, 문학과 일상

82)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작과비평』 통권 142호, 창비, 2008, 14쪽. 인용한 문장 앞에 “축제와 시위의 현장에서 문학이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한

을 무매개적으로 접합하는 사고들은 이 지점에서 성찰될 수 있었다. ‘재현 없는 사유’가 가능할 수 없는 까닭에, 재현된 ‘이미지’를 향해 묻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상을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가?’라고. 이미지가 대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과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이것에 서린 역사성을 되물을 때 문학과 정치가 맺고 있는 밀월 관계 또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감성적인 것들의 분할을 재분배하게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바에 의해서 규정할 수 없는 사건의 개념은 이러한 국면 가운데 참조되었다.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⁸³⁾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에 따라 상황을 사고하고, 그럴 때 새로운 존재방식은 발명될 수도 있다. ‘진리’가 산출되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주체’일 수 있다면, 이를 따르며 사건의 실재를 드러내는 재현의 방법을 ‘재현-윤리’라는 이름으로 제시해볼 수도 있겠다.

한국의 전(前)시대는 아마도 그러한 봉합의 사례 하나로 인용될 만하다. 80년대는(한 시대는 매번 자신만의 운명이 있는 법이니, 그 시대를 가치절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분명 사유가 단 하나의 진리 산출적 공정, 즉 정치에 의해 봉쇄된 시대였다. 철학만이 아니다. 사실은 문학 역시 정치에 의해 봉합되었던 시대였을 터인데, 조강석이 지적하는바 정치적 담론과 문학 작품 간의 범주를 혼동한 채, 후자에 대해 전자의 잣대를 무매개적으로 들이대는 관습은 바로 그 시대가 우리 문학에 남긴 유서 깊은 흔적이다.⁸⁴⁾

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나아가 한 차례의

국문학의 생명력을 가릴 일은 아니다.”(14쪽)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때 문학의 가능성은 어떤 정치적 사건의 참여로 가름할 일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지구상의 축복’에 걸맞은 문학을 창작하고 향수하는 일”(17쪽)을 문학하는 사람들의 과제로 부여해버릴 때 정치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문학적으로 윤리적이라는 식의 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촛불의 정치적 효과가 문학의 감성적 혁신을 곧바로 이끌어낸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83)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54쪽.

84) 김형중, 「사건으로서의 이방인」, 『문학들』 제14호, 심미안, 2008, 48쪽.

사건 후 상식과 질서로 굳어져 더 이상 진리를 산출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태도들도 있다. 한때의 재현-윤리가 형식으로만 살아남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김형중이 1980년 이후의 사건들에서, 혹시 정치에 의해 문학이 ‘봉합’된 것은 아닌지 되묻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⁸⁵⁾

3. ‘재현-윤리’

재현-윤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재현-윤리는 바디우가 정의한 바를 따르고 있어서, 사건에 충실할 때 나타나는 것(진리)으로 하여금 사건을 말하게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으로 쓰인다. 랑시에르식으로 말하면 새롭게 분할되는 감성적인 것에 의한 재현이 될 텐데, 낯선 만남을 통해 나타나는 개별적인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이 새롭고 다른 것을 재현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건을 재현할 때, 그것을 그동안의 현실로는 환원할 수 없다는 측면 때문에 타자를 사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본적으로 제기된다. 그런데 타자를 사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같은, 온전한 이해를 넘어서는 재난에서 여기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종종 불가해한 것으로 남겨지는 점을 생각해보자.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와 남겨진 자들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지적은 대체적으로 옳다. 타자의 위치에 서는 자아는 없는 법이다. 아우슈비츠로부터 네 장의 이미지가 오기 전까지 “지방을 모으도록 된 도랑들의 발상”, “인가의 유해들과 섞인 뼈들을 ”노동자들“이 그 위에서 가루로 뺏아야 한다는 콘크리트 블록” 등을 사유하기가 어려웠듯이.⁸⁶⁾ 상

85) 그에 의하면 “촛불시위는 ‘정치적 사건’이어서 정치적 진리 산출 공정을 작동시킨다. 그것이 예술적 진리 산출 공정 ‘또한’ 작동시키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형중, 「문학과 정치 2009」, 『문학 과사회』 통권 제87호, 문학과지성사, 2009, 351쪽.

86)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오윤성 옮김,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레베카, 2017, 20쪽.

상할 수 없는 것들은, 상상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 때문에 비재현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결함이 언어적 현실과 ‘나’는 결코 타자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를 정초하게 만든 한계를 쇄신함으로써⁸⁷⁾ 재현 불가능한 것의 재현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자를 사유한다는 것에 타자를 사유할 때 소용되는 인식의 조건을 다시 살핀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이런 경우 재현 체계를 통해 사건을 투사하지만 동시에 이 화면을 구성하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타자를 구성하는 질서의 장악력을 무화시킬 때 출현하는 진실, 실재를 탐문하는 작업은 이미 실험되었고, 그것이 2000년대에 등장한 시적 경향이였다. 이들은 서정적 자아라는 작동원리를 뿌리치는 듯했고, 이는 근대적인 의미의 진정성을 불신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였다. 사건 이후에, 사건을 재현할 때 시도되는 접근법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세월호 이후 ‘선’ 따위의 이름으로 독해되지 않도록, 자아의 동일화라는 논법 저편에서 타인의 타자성을 승인하기 위해 자아의 자리를 비워두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생일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친구들아 나야
 지혜
 권지혜

권지혜(이원), 「따뜻해졌어 지혜」 부분⁸⁸⁾

아빠 미안

87) 디디-위베르만은 이때에도 결함이 발생하지만, 그를 무릅쓰고 말(재현)해야 한다고 본다.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절대적 표현들—대체로 호의적인, 언뜻 보
아 철학적인, 실제로는 게으른—로 아우슈비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앞의 글, 43쪽)을 의식하기 위해서. 그때 재난의 순간에 존재했던 타
자들은 사유될 수 있다.

88) 권지혜(이원), 「따뜻해졌어 지혜」, 『엄마. 나야.』, 난다, 2015, 24쪽.

2킬로그램 조금 넘게,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서 미안
 스무 살도 못 되게, 너무 조금 곁에 머물러서 미안
 엄마 미안
 밤에 학원갈 때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 미안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도 일주일이나 연락 못해서 미안

유예은(진은영), 「그날 이후」 부분⁸⁹⁾

모든 언어/문법이 붕괴한 지점에서 죄책과 우울과 절망만이 남고 이를 대면하기조차 버거울 때, 결국에 당사자들만이 정주하게 되어버릴 순간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해내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그곳의 참혹’ 가운데 둔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발화를 통해서 세월호의 관측되지 못하는 어느 측면이 현시된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누군가에게는 딸이자, 동생이자, 친구라는 것(“엄마 아빠 언니/그리고 친구들아 나야”)과, 또 이들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아빠 미안/2킬로그램 조금 넘게,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서 미안”) 속에서 세월호는 그것의 실재를 점증적으로 드러내어 보인다. 물론 이는 재현-윤리가 실현되는 사례의 중 부분적인 모습이다. 세월호를 재현하는 데 있어 그것의 불가능성을 탐문하는 시도는 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당사자성 이외에도,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현실 체제, 가담자 또는 관찰자로서의 죄책감, 문법의 상실,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적 차원 등을 법-질서적 원리 바깥에서, 세월호의 사건성에 충실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IV.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재현-윤리란 사건의, 주체의, 윤리에 충실하여 재현할 때만 가능하므로, 사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 의도에 의해 그 작동이 불능한 경우가 또한 존재한다. 가령, 사건에 사후적이거나 과정적으로 발생하는 진리의 순간을 자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앞서 있어서, 이전의 재현-윤리를 따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상식과 질서로 굳어져 더 이상 진리를 산출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태도”다. 이 지점에서 재현-윤리라는 용어를 사

89) 유예은(진은영), 「그날 이후」, 『엄마. 나야.』, 난다, 2015, 176쪽.

용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사건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재현-윤리라는 용어를 가름했지만, 과거의 재현-윤리 모델을 고수하며 (주체가 아닌) 자아에 충실하도록 때 발생하는 것으로 ‘형식적 재현-윤리’가 또한 있다. 이러한 점들을 다음 장에서 ‘규범적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Ⅲ. 세월호 시와 규범적 재현

세월호를 두고서 인간 개념의 해체를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다. 당시 인간이라는 단위, 기호는 근대적 인간이라는 기표 아래에 경제와 생명의 이미지가 겹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는 이번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인천-제주 노선을 240차례 운항하면서 138회 이상 과적을 했다.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은 3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⁹⁰⁾

세월호 참사는 안전관리업무의 민영화(민간 위탁)와 비정규직화(비용 절감)가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⁹¹⁾

신자유주의 이래 ‘효율’은 일반 삶의 정언명령이 되었다. 현대 사회는 이를 용인해왔고 전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⁹²⁾ 개인은 경제적 이득을 소원하므로 이에 의해 법의 규제까지가 의심스럽게 완화되기도 했다.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은 구조적으로 거부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불법⁹³⁾과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고

90) 류이근, <돈이 곧 메뉴얼이 된 한국사회>, 한겨레신문, 2014.5.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7063.html.

9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 길, 2014, 156쪽.

92) 제국주의가 표면적으로 사라질 때, 그에 의해 예측된 경제라는 형태로 근대화 과정은 진행되었다. ‘개발독재’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발은 산업화, 또는 근대화라는 가치와 결합된 채로 헤게모니적 언술을 수반할 따름이었다. 이후 자본과 권력이 일반의 삶과 명료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제도·장치가 등장한다.

93) “세월호를 도입하기 전 청해진해운은 2011년 7월 증선 인가를 신청하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2014)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 그러나 인천항만청은 증선 신청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동년 9월에 조건부 인가를 해주었다.” 또한 인천 해경이 세월호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양호’ 판정을 내렸으나 “하지만 4월 16일 당시 세월호에 있던 구명보트 46

가 일어날 전반적 조건을 숙성시켜온 이 모든 행위들”⁹⁴⁾ 속에서, ‘이윤’이라는 목표 아래 타인에 대한 사유의 측면이 지불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그의 고통, 삶은 ‘인구라는 단위에서’⁹⁵⁾ 방기되었다. 사정이 이러한즉, 인간이라는 가두리의 중심을 경제로 대표되는 생명, 생명으로 대표되는 경제가 순환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목격하는 가운데 존재의 결정적인 근거 같은 것들이 또한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리라. 따라서 “사건 이후의 주체”가 맞닥뜨리는 것은, 그 사회와 시스템의 일부였던 구성원 모두가 떠안는 윤리적인 문제”⁹⁶⁾이기도 하다. 사회구조적 원인이라는 문제로부터 이동해, 저 체제 가운데 삶을 존속했던 개인 주체들이라는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 이유다. 그러므로 문학이 묻는다. 여기 이 삶에 참가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를 묵시적으로 승인해왔던 존재들에게 원죄와 무능력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하여. 고통의 가해자로서—상징질서에 의해 분배된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허락해온 자로서의 자각 끝에 도래할 순간이 시급했으므로. 이때 재현은 정치와, 윤리와, 문학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 간주되었고, 국가, 법의 언어가 강제하는 것과 다른 사실성으로서 기억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자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문학 및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장치, 체계가 제 나름의 이야기를 쏟아내었던 현상은 시사적이다. ‘새롭고’ ‘다른’ 윤리로의 접속 또는 전환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서의 재현에, 하지만 그 목적에 위배되는 듯한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시기 각계에서 법적 검토와 도덕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들을 이용해 도달코자 한 곳은 ‘이해’의 처소로 보였다. 언어적 세계의 균열 앞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까닭에 제 질서를 다시

개 중 작동하는 것은 1개뿐이었다.”(공동성 · 심동현 · 윤기웅, 『세월호 침몰』, 대영문화사, 2016, 각 33, 39쪽.)

94)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미지북스, 2015, 322쪽.

95) 푸코에 의하면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구의 수량(‘통계’)과, 조건(‘생물’)이 문체시되는데, 이것은 경제적 효과와 맞물려 있으면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차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타자의 물이해라는 현상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통치합리성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벌어지는, (통치의 목표로서) 개인과 전체의 연결이라는 층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96) 이광호, 앞의 글, 324쪽.

확립하려고 한다는 점을 부기해보자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는데 부정적 의의만 있는 건 아니리라. 또 그러한 실천이 종래의 질서를 반복하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질서가 수정, 보완될수록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은연중 드러나기도 했다.⁹⁷⁾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에워싼 담론 내에서, 어딘가 대립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립적인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었는가? 재현에의 골몰이란 이미 역사적으로 합의된 바로서 기능하는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 문학의 재현이 도달한 곳이 또한 어떤 이해의 저장소가 아니었을지 의심해야 한다는 소리다. 재현은 ‘규범적인 것으로의 반복’과 어딘가가 다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지점에 주목하는 논의가 그간 없었고, 도리어 “문학은 나쁜 권력과 싸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독재’와도 싸워야 한다”⁹⁸⁾는 명제 아래에서 재현의 진실성은 결코 의심되지 않았다. 관련된 몇 상황들을 살펴보자.

1. ‘거짓 맹세’라는 현상

아감벤에 의하면 ‘맹세’라고 하는 수행적 언어 속에는 “특수한 <성사>로 전문화하는 것—<권력의 성사>—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⁹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말과 사물을 일치시켜 왔다. 이때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충실할 수 없

97)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보자.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그 불법 및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다수인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4.6.5.,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19929&lawCd=2000000134168&lawType=TYPE5&pageIndex=&rowIdx=8519>). 법 개정의 이유가 중한 범익침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발생의 원인을 제공자/책임자에 한정하면서, 현재를 ‘(치안)질서’적으로 유지하는데 공헌한다.

98) 이광호, 앞의 글, 324쪽.

99)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언어의 성사』, 새물결, 2012, 123쪽.

는 인간의 신뢰 불가능성”¹⁰⁰⁾과 “언어 자체에 관련된 약점”¹⁰¹⁾—사물을 그 자체로 지시할 수 없는 한계에서 발생하는 ‘거짓 맹세’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적 절대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속의 기초로서 맹세는 법과 종교적인 맥락을 가로지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 질서에 특정 언어적 명령의 발동은 전제된다. 사회는 이처럼 ‘언어의 성사’를 통해 유지되는데, 어느 날 거짓 맹세라고 할 수 있을 외침 또는 약속이 출현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주기별로 진행되었던 ‘기억식’이 그것이다. 기억식은 ‘잊지 않겠다’는 문장을 일종의 표어처럼 끌어들었고, 이것은 “법의 공포公布를 동반하는 정치적 저주politikē ara”¹⁰²⁾ 대신 ‘도덕적 양심’을 수단으로 약속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보였다.¹⁰³⁾

그런데 거짓 맹세라는 이름으로 (당시 한국사회에서) 세월호 기억식 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지목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기표와 기의의 약속이 깨어지는 사건이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하지만 거짓 맹세로서 세월호 기억식을 호출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거짓 맹세자들에게 실현되지 않는 ‘저주’의 조항이자 범위를 그 기원에서부터 다시 탐색하면, 법의 효력을 무실하게 만드는 게 법-질서적으로 내포된 거짓의 위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맹세는 본질적으로 거짓맹세의 가능성을 내포”한다.¹⁰⁴⁾ 세월호 기억식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지점에 있었다. 사건이 사회의 은폐된 문제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했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오랜 폐해였다는 사실에서 ‘국가/법’은 전면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기억식이 환기시키는 것은 헌법의, 국민주권에 대한 맹세다.

100)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5~26쪽.

101)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6쪽.

102)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38쪽.

103) 물론 우리 사회의 모두가 저 맹세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저주의 현실적 집행력으로서의 법률이 이에 작용될 수 없기도 했거니와, ‘이젠 좀 잊자’, ‘지긋지긋하다’는 식의 무수한 불만들도 함께 쏟아졌다.

104)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4쪽.

이 순간에, 세월호가 저주의 실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심정명의 지적처럼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잊힌 사건은 무수히 존재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수련원 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와 판교 환봉기 붕괴까지.”¹⁰⁵⁾ 법-질서의 규약 내부에서 상기 사건들이 약속되고 기억되지 못하였으므로, 비슷한 사례의 재난, 예외상태의 출현은 상시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제나’ 국가 또는 법이 ‘아닌 것들에 의해’ 맹세를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촉발되는 (기억식의) 맹세가 겨누고 있을 진실이란 사회, 질서적 차원을 ‘참칭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세월호 기억식의 맹세가 거짓을 내포한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다. 물론 세월호 같은 사건 앞에서 이것마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거짓 맹세라는 형식을 띤 맹세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다시 현실의 비참이 방기되고, 사회구조의 문제는 불변한 다. 그래서 저주가 쏟아지지만,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다.¹⁰⁶⁾

한편에서, 세월호 사건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었으므로(사고와 사건이라는 표현 사이에서 길항하며 ‘세월호 참사’라는 중도·공식적인 명칭을 얻기 전, 또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개관되기 전), 이를 제도 내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조류의 시 쓰기가 진행되는 듯 보였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의 발간 자체가 상상적 질서 내로의 편입이라는 의미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되거니와, 같은 해에 발간된 다른 시들(『한 편의 시와 일흔 한 편의 시』,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 등)에서도 세월호가 어떻게든 정의 내려져야만 하는 듯 여겨지고 있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¹⁰⁷⁾ 또 2017년 3월 10일 박근

105) 심정명, 「재난을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 『한국학연구』 제5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494쪽.

106) 이 세계의 참가된 자,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해온 자로서 저주의 대상들을 당사자로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을 ‘로고스’에 바쳐 스스로 ‘언어를 가진 생명체’”(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142쪽.)일지라도, 이들이 거짓 맹세로 인해 죽을 자들로 판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7)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세월호를 정의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서 무너진 질서의 복원을 통한 치유의 기능이 시급했다는 이유와, 치안적 재현의 대상이 되면서 세월호가 민주주의적 역사의 문맥 속에서 다소 성급히 이해되었다는 것, 또는 사건이 아닌 사고로 사유됨으로 상징 질

해의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가 아주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과 맞물리면서, 세월호를 제도화하는 일련의 시도에는 어떤 영광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가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로 ‘정치적인 것’이란 금기로 향할 때에만 발생하는 운동이고(랑시에 르), 금기란 법 또는 국가의 인준이 아니다.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인식적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그게 민주주의라는 외피—쟁투의 가능성을 합의로 막아 세운 데서 비롯하는 감각적 익숙함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국가의 공식적인 집행 이전부터 감각이 이미 제도적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거짓 맹세의 배후’라는 요소와 연결된다. 질서를 대리하며 나타나므로 본질적으로 거짓된 맹세인 기억식 등이, 대체 어떻게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이 까닭에는 이성, 사유의 근거(‘ground’)가 때로 일종의 저주이자 속박으로 기능한다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어떠한 행위에 선제적이므로 개별 주체들은 이를 벗어나 있기 매우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 잉태된 존재들은 명백하게 담론적이다. 이때 근거가 실체가 명확한 것처럼 오인되면서, 일종의 오리지널리티로 향하게 만드는 흐름에서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면 이 세계가 당면한 곤경이 해결되리라는 식의 믿음이 그런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서 비슷한 논의가 발견되고 있었지만, 새 정부의 출범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다만 알게 되는 사실은 세월호 기억식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세월호를 제도화하는 일련의 시도”가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수정,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상동하다는 점이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복원, 이것이 이들의 의심될 수 없는 이상과제였으므로 세월호 기억식과 헌법의 진실과 거짓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기억식이 무언갈 참칭하며 나타났다고 하기보다(이것이 곧 윤리적 결정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왕의 법-질서를 다른 목소리처럼 반복했을 따름이라고 말해야겠다. 이처럼 세월호 직후 쏟아진 표현들이 자신의 선적 지향을 드러낼 때, 사건(을 전후하여 그것)의 상처를 현격하게 늘릴 뿐인 국가의 비정상성을 문제 삼고 있었을 때, 이 논의들이 쉽게 다다르고 말았던 곳은 민주주

서의 견해를 믿는 경우 등이 이 경향의 주된 근거다.

의라는 대계다.

2. 문학과 세월호 사건

비슷한 무/의식적 흐름이 문학의 사고와 실천, 곧 재현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1980년이 2014년의 ‘그라운드 제로’¹⁰⁸⁾라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학의 진술들은 다음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호가 사고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 곧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주관하는 일상에 원인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시선은 사건이라는 개념과 연동되어 있다. 사건은 라캉이 실재와 대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바랬던, 바디우가 현시에 대한 재현의 초과라는 표현으로 동의했던 주체적 사유의 순간과 관계가 있다. 상징적 질서가 더 이상 자신의 일관된 언어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때, 모든 익숙한 근거들이 무효가 되는 어떤 순간, 바로 이때 언어의 무능력에 직면해 ‘다른 것’은 나타나게 된다. 이를 아우슈비츠, 5.18, 또는 9.11과 3.11로, 그리고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건에 문학이 대응하는 순간 유효한 속도차가 두 가지 방식을 가름한다. 김형중에 의하면 “사건에 대한 문학적 증언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¹⁰⁹⁾는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순간을 고스란히 실어 나름으로써 ‘기록’하고, 사건에 대한 애도가 종결되어 갈 때 이를 불가능한 언어로 지연시키며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르포, 후자는 문학; 소설, 시 등에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건 직후 마음을 울리는 양식은 르포로 밝혀진다. 그리

108) 사전적 의미는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이라는 뜻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폭탄 투하와 폭발지점, 9.11 테러로 인해 붕괴된 장소(세계 무역센터)를 지시한다. 여기에서는 근본적 파괴의 경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09) 김형중, 앞의 글, 55쪽.

고 이것이 마치 장르적 위계의 전복(문학 < 르포)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장르의 위계는 왜, 어떻게 뒤바뀌는 걸까? 한 순간일지라도 한국 현대 문학장이 르포를 문학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창출되었을까? 다음과 같은 진단을 참조해볼 수 있다. “‘문학적 감동’을 ‘특정 텍스트를 읽으면서 추출하게 되는 감정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 문서들은 사실상 끝까지 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감정의 지출을 요구”¹¹⁰⁾하기 때문이라는 것. 감정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관계성과 운동의 문제로 살피져야 한다는, 이런 ‘정동’¹¹¹⁾ 개념이 세월호의 국면을 설명하는데 참조된다는 점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대중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감정적 기류가 정동을 매개로 유포되었다는 사실 뒤, 이 확산을 가능케 한 조건에 문학이 아니라 ‘받아쓰기’가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왜 받아쓰기가, 무언갈 그대로 옮겨 쓰는 행위가 문학적 글쓰기보다 더 많은 감정적 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 진실을 발굴해냄으로 위력을 얻는 문학의 기능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사태 앞에서, 그 전복으로 하여금 이미 뒤흔들어진 감각의 질서 앞에서는 별무소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해볼 필요가 있다. 사건에 맞닥뜨려 종래의 질서적 위계가 교란되고, 이때 이미 어떤 새로운 ‘감성정치’는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재차 다른 교란을 피하는 것은 그리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사태를 그저 받아쓰게 하여 사건의 충격량을 온존케 하는 시도가 모색되었다. 즉 문학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게 불가피했다는 의미이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록술과 기억술이라는 두 방식이 모두 세월호라는 사건의 충격을 감소시키지 않는 데 동의하며 나타나는 방편들로 이해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저 충격을,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소비’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아무도 그런 이름으로 불릴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 희한한 독재 체제”¹¹²⁾는 자본주의와 결합해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자본-민주적 절차’에 따라

110) 김형중, 앞의 글, 50쪽.

111) ‘정동’은 스피노자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들뢰즈가 다시 해석함으로써 주목받게 된 개념이다. 요약하자면 정동이란 개인에게서 일어난다고 보는 감정, 기분 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힘의 증대/감소에 밀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정동’은 그것이 재현되기 이전, 신체 수준에서 작용하는 강렬도이다.

일어난 사건의 해결을 지시한다. 이때 세월호 침몰은 사건으로 사유되지 않고 사고의 의미로 전환된다. 사고란 시장원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처럼 ‘사고-보상’의 프레임을 통해 세월호의 사건성이 완료되고 마는 것에서, 세월호는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통치성의 일상을 전후로 한 지점 어딘가에 세월호는 위치한다. 이 한편에서, 사건에서 사고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이를 재난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월호 침몰을 사건으로 이해하는 부류는 무척 대비되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항대립의 설정이 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가 강조하는 내용 또한 여기에 있는데, 세월호를 사건으로 이해함이 일종의 ‘혁명처럼’ 전유, 수렴되는 ‘경우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결정적인 계기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¹¹³⁾ 이 일반적인 공감에는 세월호 당시(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의 직무수행까지) 박근혜의 ‘불성실’이 토대가 되어있었다. 촛불집회의 촉발점이 세월호였고, 참사의 인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박근혜의 이름이 호명된 것이라 하겠다. 그의 무능이 물론 이러한 호명을 가능하게 하였겠으나, 다른 한편 박근혜라는 기표가 대표하는 것은 당시 있었던 (지금까지도 유효한) 어떤 대립의 차원이기도 했다. 세월호에 대해 “국가적 참사로 보는 시각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이에 의해 “침몰과 구조 실패에 대한 의혹과 사후 대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¹¹⁴⁾게 되었던 상황들 말이다. 당시 정부가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신뢰성을 잃으면서, 연장선상에서 ‘정부 對 반정부’라는 식의 극명한 대립은 형성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 반대, 저항하는 논의들이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 버렸다는 데 있다. 세월호를 사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박

112) 자크 아탈리, 양영란 옮김, 『생명경제로의 전환』, 한국경제신문, 2020, 275쪽.

113) 양선숙, 「2017-2022, 진보와 보수를 넘어」, 『철학연구』 제119집, 철학연구학회, 2017, 36~37쪽.

114) 안병우,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제44호, 한국기록학회, 2015, 234~235쪽.

근혜의 탄핵만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통치성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개별 주체에의 반성 내지는 각성을 바라는 눈담이었으나, 저 대립의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의도들이 어느 정도씩 무화되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사건으로 이해하기를 시도하는 일이 곧 이전 정부를 취하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정부가 완전히 새로울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한 일이다. 무언갈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그 의미와 다르게 아무것도 혁명적이지 않았으므로.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사유하는 주장에 반대한다기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촛불집회를 두고서 이를 떼면 ‘평화집회’, ‘폭력시위’라는 모델들을 겹쳐보는 것에 이미 어떤 역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 백낙청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하는 주요 조건 중에 이전의 혁명들을 배치하고 있듯이.¹¹⁵⁾ 무슨 말인가 하면, 1980년대라는 역사적 맥락을 이어받으면서 집회의 혁명성이 이전 담론에 의해 형성된 종착 지점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 순간 대체 무엇이 혁명일 수 있을까? 기성세대의 대부분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상상을 지금이 자리로 이끌어오고, 이때 기존의 가치들을 전복시키고 출현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되새긴다.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승리하리라.’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모습은, 늘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기를 강요받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런 의심. ‘세월호 사건’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그 역사가 신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적대 구도로 현안을

115) 백낙청은 “물론 2016년의 촛불은 87년 항쟁의 재연은 아니고 전혀 다른 유형의 시민혁명이 다.”(20쪽)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촛불의 평화적 성격을 제시한다. 기존의 혁명 개념과 동떨어진, 축제적인 시위의 모습에서 민주화의 길이 열린다는 논지다. 그리고 “87년에 일단 성취한 민주화된 헌정질서”(20쪽)는 이를 가능케 만든 객관적 조건 중 하나로 소환함으로써 집회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또한 촛불집회를 가능하게 한 요인에 “3.1운동 이래 백년 가까이 어어져온 평화적 저항운동의 전복과 학습”(20쪽)이 있다고도 말한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혁명적 계보를 짐작하게 되는 것은 무리한 독해일까. 이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수행적 측면보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백낙청, 「‘촛불’의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 『창작과비평』 통권 제175호, 창비, 2017.

청산할 때, 탄핵 소추에 이은 새로운 정부가 민주주의의 승리로 수렴할 때, 그러나 이 적당한 영역화를 통해선 이전 정부의 타락이 문제시될 뿐 종래의 제도 자체는 결코 의심될 수 없었다. 오직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수단화된 승리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문학이 이른바 소재주의라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다. 재현 주체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부’ 의식 없이 꿈꿀 때 문학은 재현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승인을 넘어선 자리로, 사건에 대한 주체의 윤리적 판단이라는 쪽으로 문제를 전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전향까지도, 과거로부터 기인하는 민주적 재현의 한 사례로 읽힐 때가 있다. 이런 가림막 뒤에서 꿈꾸어질, 귀환되는 민주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3. 규범적 재현 양상>은 시적 재현 아래의 심급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현이라기보다 ‘재생’에 가까운 시 쓰기가 또한 추동되지 않았겠냐는 의심이고, 이때 세월호는 ‘규범적으로’ 재현된다. 또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향 속에서 서정시들은 쓰여지고 있다. 때문에 <3. 2. 서정으로의 재귀>라는 절을 마련해 세월호 이후의 시가 규범적으로 재현할 때 삽입되는 정치적 측면과, 서정시라는 스타일에 의해 재현되는 세월호라는 것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불가능성을 재현’하는 시들의 출현이 있겠다. 이는 <IV.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규범적 재현의 양상

2014년 4월 16일 이후, 문학 잡지는 그 발행 현황이 각각 2014년 244종 1,175권, 2015년 387종 1,253권, 2016년 670종 1,853권, 2017년 715종 1,956권, 2018년 712종 1,929권, 2019년 764종 1,962권, 2020년 734종, 1,964권에 이른다.¹¹⁶⁾ 7년간

116) 『문예연감』 2015 ~ 2021년(2014~2020) 판본을 참조하였다.

발행된 문학 잡지의 분량이 12,092권에 이르는데, 이 방대한 양을 모두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기존의 문학 공론장에서 형성·통용되는 담론이 연구의 주된 목표가 되므로 『문학과사회』·『문학동네』·『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하여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발표된 시들을 우선(대상 텍스트를 특정하기 전) 살펴보았다. 검토를 통해 첫째로 발견한 특이한 현상은 구체적 정황을 담지 않아 세월호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확신할 수 없는, 하지만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시의 모습들이었다.

많은 시들이 마치 세월호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심한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4년 가을에 발간된 『문학과사회』 107호에 실린 시들을 보자. 함성호의 시 3편(「출렁이는 춤 위에서」·「시베리아 블루」·「못 돌아오는」)은 ‘바다’, ‘죽음’, ‘큰물’ 등의 어휘를 사용하지만 무리해서 읽어 내더라도 세월호를 통해 확장되는 사유의 전개가 감지된다고 밖에 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같은 책에 실린 김경후의 「실어」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은 혀”라는 표현과 이에 어울리는 조형(‘▽’, 혀 모양)을 통해 “대양을 말리고 해저를 퍼내도 이미 잃어버린 말”을 상상한다. 이때 언어가 불가능한 세계에서 묘사되는 ‘심해어’는 상상된 실재이겠다. 언어의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관련지어 말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시가 상징·언어가 담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향해있다는 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다. 같은 책에 실린 유희경의 「장마」와 안희민의 「화산섬」, 『창작과비평』 164호에 실린 김준태의 「무가(巫歌)」까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의 시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¹¹⁷⁾

117) 『문학과사회』 107호에 발표된 진은영의 「사실」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지시하는 듯하면서도(“별들이 움직이지 않는 물 위를 고요가 흘러간다는 사실/물에 빠진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다른 사실을 겹쳐 말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한양대학교 옆 작은 돌다리에서 빠져 죽은 내 짝은 참 잘해줬다, 사실은/전날 내게 하늘색 색연필을 빌려줬다”) 세월호라는 사실이 압도하는 힘에 약간 비켜선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사실과 느슨하게 연결되고, 그러면서도 긴밀해지는 데 성공한다. 아주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또 너무 그 사건과 멀어

물론 시가 세월호라는 사건에 접속하기 어려워질 때, 그것의 기의에 다른 게 달라붙어서 실패하는 현상을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기표, 기의의 언어적 약속이 무너질 때 문학은 문학성을 도구로 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언급한 시들은 문학적으로 실패한다기보다, 언어적으로 실패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두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본래의 상징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거절한 채 불가능해보이는 글쓰기를 어떻게든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주체는 항상, 그리고 이미 호명되어 있다(알튀세르). 세월호라는 재난에 슬퍼하며 기를 쓰고 상징의 복원에 반대하더라도, 그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배우자로, 어떤든 관계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기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시의 실패는 세월호 사건 당시 떠돌던 여러 음모론 및 사건으로부터 사고로의 전환이라는 시도와도 유관해 보인다. 붕괴된 상징적 질서의 복원이라는 전략 아래, 시인이 문학과 의 상상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월호를 파괴된 언어 현실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하는 식의 은유가 가능하다면, 세월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여 기존 의미 질서 내로 이끌어 들인다는 의미에서, 상황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없는 누군가(발화 주체, 시인)가 세월호를 상징질서적으로 복원하고 마는 현상도 아주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자아의 시선이 어딘가에 종속된 주체의 생산을 여전히 도모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일들은 쉽게, 자주 일어난다. 또 이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언어 내에서 발언하는 한 타자의 목소리가 종래의 것과 ‘다르게 말해져야’ 한다는 게, 그 다른 방법이라는 (권력적) 작용의 내부에 꼭짓점을 두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사건은 이야기되어야 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그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내면은 드러내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잘못된 발표와 언론의 오보라는 이유가 우선 떠오르지만, 그보다는 세월호 사건이 국가권력과 매스컴에 의해 ‘가공’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키틀러가 말했듯 실재를 포착하는 아날로그 미디어에 그것의 편집 능력이 주어지는

지지 않는 것.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부분적이다.

까닭에¹¹⁸⁾, 독자 또는 청자들이 이 기술을 다루는 자들의 (사실이 아닌) 의도만을 주입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¹¹⁹⁾ 다시, 이에 반대하여 많은 시들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침몰입니까? 아니 습격입니다 습격입니다!
 우리들의 고요를, 생의 마지막까지 번지던 천진한 웃음을
 이윤의 주구들이
 분별심 없는 관료들과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구조할 수 없는 구조대가
 선장과 선원과 또 천상에 사는 어떤 선장과
 선원들로부터의…… 습격입니다

문동만, 「소금 속에 눕히며」 부분¹²⁰⁾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그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떨어냈다

송경동,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부분¹²¹⁾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뒤집힌 배 안에서
 손가락뼈가 부러지도록 뭇가에게 매달렸을 그대들에게

118) “편집과 사운드 컨트롤은, 상징적 연쇄물들로 이루어진 예술에서라면 조작될 수 없는 것을 조작 가능하게 한다.”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김남시 옮김, 『죽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2019, 201쪽.

119) 거짓 발표된 세월호의 진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매체적 흐름에 초점하는 것이 또한 세월호 사건을 이해하는 다른 참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120) 문동만, 「소금 속에 눕히며」,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68쪽.

121) 송경동,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88쪽.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나 또한
 그런 나라의
 금수만도 못한 시인입니다
 이견 시도 아닙니다

이상국,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부분¹²²⁾

“사회를 정초하는 문학’으로서 기왕의 질서에 균열을 초래하는, 다른 감각의 반응 또는 질서를 이끌어내는 문학의 출현”이 강조되면서, 시들은 일종의 정치적 실천으로 근대문학의 미적 자율성이라는 원리를 위협하는 일로 ‘스스로 자리매김한다’. 재난이 체제 밖의 생명을 죽이는 신자유주의의 “이윤의 주구들”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얻는 대가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문동만의 표현, 세월호 참사가 “침몰”만이 아니라 “습격”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의하자. 이 표현은 “관료”와 “전문가”와 “구조대”와 “선장”과 “선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방기해버린 죄를 겨냥하면서 발언된 것이다. “우리들”로부터의 습격을 자인하면서 세월호의 문제는 원인론, 책임론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체제를 스스로 승인했고, 재난이 오기 전까지 이 일상을 안온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 등이 ‘하나같이’ 지적되었다. 너무 평화롭게 “부자들은 돈을 세고/올드보이들은 표를 계산”하면서 무책임한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으므로, 송경동은 “돌려 말하지 마라/온 사회가 세월호였다”고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는 자로써 시인들은 저 낮은 것들을, 지금껏 비가시화되어 온 사실들을 전면에 노출시키고자 열중한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이른바 재현’일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술되지 않는다. 시들은 마스크 또는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와 다른 것으로서 ‘주체의 모습’을 지향한다고 여겨졌다. 때문에 재현 형식에 대한 의구심은 좀처럼 형성될 수 없었다.

122) 이상국,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20쪽.

3. 1. 치안적 재현¹²³⁾

세월호라는 사건으로 분기하는 문학의 양태에는 ‘기억’이라는 화두가 있다. 이 전까지의 문학 담론에서도, 4.19, 5.18 등의 재현 불가능성을 재현해내야 한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기억은 상당히 친숙한 어휘다. 무언가가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세월호를 둘러싼 담론의 일정 부분들은 매우 ‘관성적’이다. 세월호의 자리와 입장에 개입하고 있을, 다사다난한 한국사가 도출한 합의된 결론 또는 대응으로서의 어떤 귀결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현이 의식의 종합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어떤 재현도 재현 주체의 무의식과 무관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경우 재현 주체의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라기보단 ‘역사적 결정’처럼 보인다. 세월호의 당사자성을, 타자성을, 실재가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은 1980년대의 방법, 실천을 낭독할 때 더욱 선명해졌다. “80년 광주가 지금 상주에서/테자뷔처럼 반복되고 있어요.”(나종입, 「80년 광주에서 2016년 성주까지」)¹²⁴⁾ 이처럼 어떤 시들이 세월호를 빌미로 종래에 합의되었던 의견들을 고집스레 반복하는 중일 뿐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지금 나라초상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감마마 승하가 아닙니다
 두 눈에 넣어둔
 내 새끼들의 꽃 생명이 초록생명이

123) 이때 ‘치안’은 랑시에르의 어법을 좇는다. ‘정치’는 ‘치안’에 도전하고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치안질서의 본질은 감각적인 것의 짜임에, 행위·존재·말하기 등의 양식들 사이의 분배를 정의하여 질서화 또는 고착화하는 데 있다.

124) 나종입, 「80년 광주에서 2016년 성주까지」, 『세월호는 아직도 향해 중이다』, 도서출판b, 2017, 61쪽.

어이없이 몰살된 바다 밑창에
 모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국민상 중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찬란한 아이들 생때같은 새끼들을
 앞세우고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몹쓸 살 판입니까

.....중략.....

이런 역적 같은
 이런 강도 같은 참변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나라 꼬라지인가 물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야만이 저지른 희생 앞에서
 이 사회가
 언제나 청정한 하루하루일 것인가를 따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인간이었던가를 뉘우쳤습니다
 영혼이라는 말
 양심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몰라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꽃들아 초록들아

이토록 외치는 이 내 심신 차라리 풍덩 내던져
 우리 모두 뺨(0)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둘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너도
 나라도 무엇도 다시 첫걸음 내디더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른바 고도성장의 탐욕으로 마비된 것
 이른바 무한경쟁으로 미쳐버린 것
 이른바 역대권력에 취해버린 것
 하나하나 각고로 육탈로 떨쳐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1인과 10인의 향연이 아닌
 만인의 영광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고은, 「이름 짓지 못한 시」 부분¹²⁵⁾

너의 이름 비겁한 자여 더러운 자여
 이리 사냥개의 피가 흐르는 두 얼굴의 피수들이여
 기품 높은 조국의 기쁨과 명예를 위하여
 법을 지키는 법도의 칼을 받아라

박진용, 「너의 이름 비겁한 자여 더러운 자여」 부분¹²⁶⁾

저들의 종상배들과 정상배들과
 관피아들이 걸탁한 인류의 학살자들 부르주아들
 이른바 면죄부를 준 수많은 부패의 고리
 본성의 올바름이여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라

박진용, 「저들의 금욕과 기도의 장소는」 부분¹²⁷⁾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
 너는 알고 있으리라
 그 뉘가 널 침몰시켰는지

125) 고은, 「이름 짓지 못한 시」,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9~24쪽.

126) 박진용, 『한 편의 시와 일흔 한 편의 시』, 지혜, 2014, 47쪽.

127) 박진용, 위의 책, 93쪽.

넌 보았으리 넌 들었으리

정동수, 「세월호야 넌 알고 있으리라」 부분¹²⁸⁾

고은의 “모두 머리박고 있어야 할 국민상”이라는 표현에, “이 찬란한 아이들 생때같은 새끼들을/앞세우고 살아갈 세상이/얼마나 몹쓸 판입니까”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의 은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시인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역적”이나 “강도”, “야만”의 어휘를 사용했던 것은 이를 책임져야 할 특정한 대상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시의 화자가 “과연 이 나라가 나라 꼬라지인가 물었습니다”라고, “언제나 청정한 하루 하루일 것인가를 따졌습니다”라고 발화하는 것도 이 물음을 받아야 할 특정 대상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테니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이 나라”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 시의 문장들은 할 말을 잃고 공중을 배회하게 되는 것도, “내 새끼”로 표현된 피해자의 죽음들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름 짓지 못한 시」엔 ‘물음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얼마나 인간이었던가를 뉘우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적 화자의 심중에 “이른바 고도성장의 탐욕”과 “이른바 무한 경쟁”, “이른바 역대 권력”이라는 죄의 표적들이 선명하므로, 그를 단죄하자는 게 이 시의 주된 요지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더 소박하게는,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 산하 일부 공직자의 책임의 소산인 듯 관측되기도 했다. 박진용은 “너의 이름 비겁한 자여 더러운 자여”라는 서술을 “관피아들이 결탁한 인류의 학살자들 부르주아들”로 구체화시키며 사건의 책임자들을 호명한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거나(“기품 높은 조국의 기쁨과 명예를 위하여/법을 지키는 법도의 칼을 받아라”), 그들(“관피아”¹²⁹⁾)과 관계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도덕적 일침을 가

128) 정동수,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 한림, 2014, 7쪽.

129) “관피아는 관료와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 학연·지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피아 방지법”, [https://terms.naver.com.\(2022.09.08.\)](https://terms.naver.com.(2022.09.08.))

하기도 했다(“본성의 올바름이여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라”). 또 정동수는 5.18과
 의 비교 속에서 세월호를 그와 비슷한 무언가로 결론짓고 있었다. “너는 알고 있
 으리라/그 뉘가 널 침몰시켰는지”라고 확인할 때, 이것은 “한뫼한 5.18 광주 민주
 화운동의 처절하고 참혹했던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하
 고 있다.¹³⁰⁾ 이런 식으로 세월호는 인용한 시인들의 사유 체계 내에서 (가해 ·
 피해의 경계, 죄의 책임이 명확하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애도 가능
 한 사건으로 안착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사건이 “1997년 이전까지, 5월마다 금남로에
 서 열리는 집회는 (최소한 제한적으로) 불법”¹³¹⁾이었던 데 반해, 이 경향은 너무
 이르게 찾아온 봄이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아니다. 시의 시점이자 주
 어로서 저 시기를 살아낸 ‘우리’에게는 이른바 ‘민주’를 획득했었다는 기억이 있
 다. 그런데 그것을 일순 빼앗겼다면, 이를 되찾자고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든 불온
 한 무리에 대해 성토했는 게 이들에게선 매우 마땅한 일이 되어있지 않을까. 고
 은이 사용하는 어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듯, “역적” 또는 “강도”에게 우린
 무언가를 빼앗겼다. “역적”이라는 단어가 지시하고 있으니 빼앗긴 것은 나라일
 테지만, 그게 조선이나 5공화국 같은 것은 아니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경우
 ‘민주주의의’라는 수식어구가 생략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관피아들,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주체들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른바 민주주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바다 잔물엔 꽃 못 핀다. 그 너울에 봄꽃 축제들, 전국적으로 모두 취소되
 었다.

산수유 벚꽃 진달래, 어여쁜 말들…… “카톡, 카톡,” 침몰하고 있었다.

문인수, 「침몰하는 봄」 부분¹³²⁾

130) 정동수, <저자의 말>, 위의 책, 9쪽.

131) 김형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주)난다, 2016, 162~3쪽.

132) 문인수, 「침몰하는 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73쪽.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해훼리호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슬픔은 장마처럼 지나가고
 아,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난 따윈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저들
 촛불시위와 행진과 민주주의가 더 큰 재난이라 여기는
 저들이 명령을 하는 동안은, 결코

뒤집어라, 뒤집힌 저 배를 뒤집어라
 뒤집어라,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탐욕으로 뒤집힌 세상, 부패와 음모와 기만으로 뒤집힌 세상
 이게 아닌데, 이럴 순 없어, 뒤집지 못한 우리들
 가슴을 치며 지켜만 봐야 하다니,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는구나, 뒤집어라,
 폭력과 약탈로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이렇게 내 버려둘 순 없어 저 죽음을 뒤집어라
 뒤집지 않고서는 살리지 못해 저 죽음의 세력을 뒤집어라

백무산,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 부분¹³³⁾

「침몰하는 봄」의 이미지가 아이들의 죽음만을 지시하지 않고(애초 죽은 이들은 단원고 학생들만이 아니기도 하며), “꽃”과 “봄꽃 축제들”과 “산수유 벚꽃 진달래, 어여쁜 말들……”이라는 식으로 의미가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겠다. 침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진실을 구성한다고 믿어 온 아름다운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보자면, 백무산의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에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보다 승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식의 기억법이 눈에 띈다. “뒤집어라, 뒤집힌 저 배를 뒤집어라/뒤집어라,

133) 백무산,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화사, 2014, 83~84쪽.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고 할 때, 이 명령문은 그 단호함으로 하여금 시인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그와 같은 발화가 가능했음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과 약탈로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는 문장에서 백무산이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미래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거의 순간을 다소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건을 타자로 불리움으로써 공론장에 ‘충돌’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은, 동시에 목소리가 말이 되어 ‘출현’하는 순간에 무감각하도록 만든다. 이때 말해지는 것은 재현 불가능성을 재현하는 재현과 거리가 멀다. 여기 도입되는 기표/기억의 관계에 의해 세월호가 사건성을 검열당한 뒤 호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스피박의 말마따나 “재현되지 않는 주체를 보도하고 권력과 욕망(에 의해 환원 불가능하게 전제된 이 이름없는 주체)의 작동”¹³⁴⁾을 이야기하게 될 따름이다. 제도 속의 주체들은 도통 이 되풀이를 벗어나 있기 어렵다. 하지만 목소리를 말이 되도록 할 때 ‘무엇이’ 말하도록 했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할 차례다.

세월은 잘 간다
 가는 세월만 원통하구나
 제가 떠난 것이야 누가 떠민 것이냐
 세월은 가고 세월만 가고
 더럽게 남았구나 나는 비겁하게도 남았구나
 주머니 속 지전 몇 장에 팔려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인지 세월인지 안중에 없었구나
 더러운 거러지로구나
 싸구려 허풍쟁이 똥걸레로구나
 백주 대낮에
 눈 뜬 채 코를 잃었으니
 모가지를 털렸으니
 이 우스꽝스러운 피칠갑을 아무도 동정하지 않겠구나

134)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73쪽.

세상은 낱낱 옷갓구나
 손톱 젖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할퀴어 잡으며 세월 가는 동안
 공포와 비명으로 흘러가는 동안
 물에 젖은 오만 원짜리 석 장이여
 풀쫄다 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한 나여
 아직도 꼭 쥐고 있구나

김사인, 「적폐(積幣)가 아니라 지폐(紙幣)」 부분¹³⁵⁾

생각하면 두 발로 꼳꼳이 서서
 자유와 정의와 노동의 참해방을 부르짖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의 시절이 있었다
 오천만 마리의 개가 아닌
 오천만의 따뜻한 피를 지닌 인간으로 서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절규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퍼렇게 멍든 몸뚱이로
 수배당한 대학생이 물 위에 떠오르고
 스무 살의 풋풋한 아들이 육조의 물고문에 숨을 거둘 때에도
 스무 살의 아름다운 딸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달라며 분신하던
 그 암울한 시절에도 우리에게 불같은 희망은 있었다
 페퍼포그와 지랄탄의 향연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아들딸에게 물려줄 꽃 같은 대한민국을 꿈꾸었다

개의 이름으로 묻노니
 언제부터 당신은 개가 되었는가?

135) 김사인, 「적폐(積幣)가 아니라 지폐(紙幣)」,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40~41쪽.

50층 펜트하우스에 살며 연봉을 수십 억 받는다고 해서 개가 아닌가?
 눈과 코와 귀를 지폐로 쑤셔 막고
 바닷가재 식사를 하고 로열 발레를 보고 나스닥 시세를 점검하고
 먼 나라 섬의 은행에 이름 없는 통장을 개설하고
 그림 같은 이국에 별장 몇 채를 지낸다고 해서 개가 아닌가?
 이 뉴스를 신지 마세요, 라고 사장이 말하면 살살 꼬리를 흔들고
 최저임금이며 비정규직이며 전세금을 날린 이웃들의 절망과 슬픔에는 관심
 이 없고
 오로지 내 땅값 내 아파트값 한 푼 더 준다는 노인 연금에 매달리는
 당신은 어느 나라의 잡종견인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절 다 지났다고 하하 웃는
 당신의 공화국은 당신의 어린 자식에게 물려줄 고향이 되었는가?

곽재구, 「반도의 자화상」 부분136)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의 다른 시들도 이 점을 방증하고 있었다. 인용문을 좀 더 상세히 보자.

먼저 김사인이다. 끔찍한 지폐의 적폐. 여기에 참여된 자료서의 인식이 “주머니 속 지전 몇 장에 팔려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앞 문장의 사정이 기묘하다.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채, 화자는 “더럽게 남았”고 “비겁하게도 남았”다고 고백한다. 물론 이 맥락을 아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세월호 사건이 신자유주의의 문제 아래 발생했다는 의심을 시의 기조로 보고, 이 체제에 복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시로 읽는 방편이 있다. 하지만 이 해석만으로는 “더러운 거러지”, “싸구려 허풍쟁이 똥걸레” 또는 “백주 대낮에/눈 뜬 채 코를 잃었으니”라거나 “모가지를 털렸으니”라는 표현까지가 어떻게, 왜 기술되는지를 아주 잘 납득하기는 어렵다. 가령, 이런 것. 줄지은 표현은 거지이거나, 뭔가 망해버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드는 수사들이었다. 그런데 지폐를, 자신이 속한 질서 내에 영향

136) 곽재구, 「반도의 자화상」,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30~32쪽.

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상징자본’¹³⁷⁾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만드는가? 아니다. 상징자본에의 참여가 실제 삶에의 참여를 뜻하기도 하는 바, 그것의 획득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부르디외는 상징자본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되는 것에 ‘아비투스’와 ‘구별짓기’, ‘신뢰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아비투스’는 “일정 방식의 행동과 인지, 감지와 판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메커니즘”¹³⁸⁾이다. 이에 근거해서 본다면 “더러운 거리지”, “싸구려 허풍쟁이 똥걸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심화되는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이전의 아비투스를 전유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같은 것을 의심해볼 수도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읽기가 시도된다. 「적폐(積幣)가 아니라 지폐(紙幣)」를 보면 실패한 어떤 사람의 한탄이라는 이미지를 대강 떠올릴 수 있다. 그는 왜 실패한 인물로 생각되는가? 화자의 몰골이 심상치가 않은 탓이다(“눈 뜬 채 코를 잃었으니/모가지를 털렸으니”). 하지만 단순 강도라는 차원의 비유를 넘어서 있으므로, 시적 화자의 처참한 모습은 흡사 존재의 부정을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독자는 무언가 다른 곡절이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꿀종다 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한 나여” 같은 문장에서도 그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같은. “우스꽝스러운 피칠갑”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 꼴이 참 우스운 모양새라는, 이런 식의 자조는 제 실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어떤 실수가 실패로 수렴되었고, 이것이 아주 큰 전환점이었다는 추측을 제기해볼 수 있겠다. 시를 보면, “주머니 속 지전 몇 장”을 담보로 화자가 팔아선 안 되는 무언가를 팔아버린 탓에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 그게 대체 무엇인가? “국민소득”과 “집값”으로 표현되는 경제

137) 경제, 문화, 사회자본의 축적 위에서 성립하는, 권력의 재생산에 투입되는 유동적인 성질의 자본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자본의 개념 안에서 지시되는 게 비정형적 자본이겠지만, 지폐로 상상되는 것이 화폐만이 아니라 통치의 심급으로서 경제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것을 상징자본의 은유라고 보고 있다.

138)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 새물결, 2005, 13쪽.

성이라는 심급이 우리를 “세월인지 네월인지 안중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의 알려지지 않은 교환비는 시의 반성과 죄의식을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로서의 ‘과거’, 민주주의다. 존재를 전환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적 인간은 어느새 경제적 인간이 되었고, 자신조차 이런 사정에 무관할 수가 없다.

곽재구의 시에서도 비슷한 표적이 분명하게 보였다. 시인이 스스로 각주를 달아 강조한 구절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중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의 시절”이 상기하듯 그는 5.18의 기억을 세월호 사건 위로 끌어오고 있었다. 다른 비유의 차원에서도 노골적이었다. “개들이/한 마리/두 마리/세 마리/……(하략)”(「반도의 자회상」, 29쪽)로 이어지는 시의 첫 연에 더해, “피렇게 멍든 몸뚱이로/수배당한 대학생이 물 위에 떠오르고/……(하략)”라는 이후의 구절들이 조용하면서 ‘반도’에 사는 이의 형상이 실체를 드러낸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다.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가 있던 탓에 가능한 이미지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곽재구에 의하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의 이미지는 “개”이다. 인간 개념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나’와 ‘너’ 모두를 ‘개’라고 하는 이 발언은 통렬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 설정 또는 정체성 형성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대신해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 있더라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눈과 코와 귀를 지폐로 쑤셔 막고”라는 구절에선 돈의 주구로서의 개인이라는 모습에 생각이 일러가고, “이 뉴스를 신지 마세요, 라고 사장이 말하면 살살 꼬리를 흔들고” 같은 문장에선 중대본 및 언론의 오보를 떠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 열거한 문장,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시를 읽는 독자는 줄곧 세월호라는 불행한 사건 앞에 당도해있어서 삼투되는 무의식을 통해 접속되는 서사, 이미지들을 읽어 내기 마련이다. 또 독자는 TV화면 밖의, 시대의 당사자로서 시의 화자가 제시하는 것 이상의 맥락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소 비약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시적 화자가 사건의 진실성을 참칭한다고 느낄 수 있기까지 하다.

진짜 개는
 주인과 함께 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멧돼지와 싸우다 죽는다
 온갖 탐욕과 부조리와 헛된 명예를 거부하며
 종장 안의 염소와 토끼
 어린 닭들과
 새로 피어날 아침의 나팔꽃을 위해
 피침 흘리는 멧돼지와 싸우다 죽는다.

곽재구, 「반도의 자화상」 부분139)

이런 문장 앞에서 특히 그렇다. “진짜 개는/주인과 함께 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멧돼지와 싸우다 죽는다”. 이 문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죽어간 ‘아이들’이라는 기표다. “주인”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비유이고, 이때 “개”는 “당신의 공화국은 당신의 어린 자식에게 물려줄 고향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가능케 하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화자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입장이 대변되는 것은 딱 그 지점까지다. “개”와 “주인”은 다른 무언가를 더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반복하는 발전도상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지시하게 되어버린다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렇게 도래하는 미래에는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선득하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김사인은 적폐에 지폐라는 자본(“물에 젖은 오만 원짜리 석 장이여”)을 갖고 참여되었다는 것을, 따라서 저 끔찍한 재난(“손톱 찢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할퀴어 잡으며 세월 가는 동안”)의 공모자로 자기 비난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곽재구는 “개의 이름으로 묻노니/언제부터 당신은 개가 되었는가?”라며 경제, 자본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 이때 시 속의 발화 주체가 발산하는 감정은 시간을 거슬러 있다. 이들의 분노 등이 세월호라는 사건 자체만으로 발원하

139) 곽재구, 앞의 글, 2014, 33쪽.

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들은 예정된 재난으로서 이 나라 때문에, 민주주의를 기획하고 이를 망친 사람들로서 무참하다. 그래서 다시 당시의 혁명을 꿈꾼다.

앙다문 입을 가린 흰 마스크가
 흘러내리는 물을 빨아들였다 콧잔등을 타고
 흘러내린 물은 분명 피눈물이었으나,
 핏기 없는 낮빛에서 나오는 물이기에 탁할 수조차 없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안쪽,
 깔장 치마에 깔장 양말 깔장 구두 신고 조문 온
 앞줄의 여자아이가 울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울었다
 사내아이의 거침없는 울음소리도 두어 줄 뒤쪽에서 보태졌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다
박성우, 「백일홍」 부분¹⁴⁰⁾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말 잘 듣는 아이들인 걸 아시잖아요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은 리본은 싫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이 땅을 떠난다는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우리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깐 너무 가슴 졸여 기다리진 마시고요
 같이 못 간 친구들에게도 너무 슬퍼하진 말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250개의 물방울이 되어
 천년의 장미를 찾아 떠나요

140) 박성우, 「백일홍」,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화사, 2014, 74~75쪽.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들 올게요
 엄마 아빤 다만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안상학, 「엄마 아빤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부분¹⁴¹⁾

무심한 세월이 우리 가슴에 박아두고 간
 수백 개 대못이라 기억하자
 온 데 퍼질러놓고 온 엉망진창 뒷덜미
 여기 와서 꽃힌 시빨건 불화살이라 기억하자
 뿌리치고 짓밟고 깔아뭉개고 깨부순
 개발 전진 오십 년의 피울음이라 기억하자
 오금을 못 펴고 조아렸던
 식민…… 독재…… 동족상잔……
 그 먼 백 년의 통곡이라 기억하자

최영철, 「기억하자 이 비겁을」 부분¹⁴²⁾

이 닭대가리들아! 나라나 국가는 바로 백성, 우리 자신이다.
 고장 나서 못 쓰게 된 기계나 떨어진 신발을 바꾸듯이
 단호하게 그를 갈아 치워라!
 그리하여 진정한 백성이 되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단 하나
 노예들만 있지 백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종천, 「이 닭대가리들아!」 부분¹⁴³⁾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중 여러 시들이 같은 이유에서 열거될 수 있으리라. 이들의 선한 의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용한 시가

141) 안상학, 「엄마 아빤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04~105쪽.

142) 최영철, 「기억하자 이 비겁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64쪽.

143) 최종천, 「이 닭대가리들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69쪽.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육망’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백일홍」이 보여주는 이미지 중, 특히 인용한 구절 중 마지막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다”라는 문장이 동반하는 운동성 같은 것들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왜, 어떻게 가만히 있어선 안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 가르쳤는가? 안상학의 「엄마 아빠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는 이 지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의 시가 겨냥하는 것은 ‘노란 리본 운동’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알다시피 노란 리본 운동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희생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데서 확산된 캠페인이었다. 따라서 노란 리본 운동은 최초 ‘죽지 않은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들의 생존을 바라던 마음이란 당시 골든타임을 놓쳤음을 알았을 때 어느 정도씩 소진되고 있었으리라는 데 있다. 안상학의 시도 이 점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화자의 말은 일종의 유언으로 나타났다. 시신을 찾지 못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의 말을 대신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독자에게, 가족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첫째, ‘보지 못한’ 죽음을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 실종 처리된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이 추정되고 있었다. 망자를 천국으로 배치하여(“더 이상 차가운 벽은 없어요/제주도에서 한 사흘 머물다가/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알래스카로 갈 거예요”, 「엄마 아빠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¹⁴⁴⁾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성 내로 편입시키는 일이 남은 자들을 위해 필요했다. 또한 (둘째) ‘노란 리본을 달고 있겠다’는 약속이야말로 무겁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화자의, 피해 당사자 단원고 학생의 목소리를 빌린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무사 귀환의 바람이 아니다. 저들이 돌아올 수 없으므로, 약속의 기한은 남은 자들이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한 유지된다. 그리고 노란 리본의 약속을 기억하는 한, 이 땅은 같은 사건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될 장소로 남는다(기시감, 아니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흡사한 생각이 최영철, 최종천의 시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최영철에

144) 고은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01쪽.

게서는 “뿌리치고 짓밟고 갈아뭇개고 깨부순/개발 전진 오십 년의 피울음”이자, “식민…… 독재……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역사로 이 시대는 성찰되고 있었다. 무릇 성찰이란 반성을 요구하는 바, ‘비겁’을 기억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지도 명확하다. 최중천이 말하듯 “고장 나서 못 쓰게 된 기계나 떨어진 신발을 바꾸듯이” “그를” 갈아치우면 될 일이다. “우리 자신”은 “닭대가리들”이 아니므로. 그렇게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평가가 적절할지 모르겠다. 살펴본 시들은 대체로 지금 사회가 ‘정치적으로’ 약속된 땅이라고 이해하는 데 의심이 없고, 그에 의한 맹세의 실현으로서 혁명을 ‘마땅히’ 기대한다. 이 성사가 오래전에 경험되었던 과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탓에 그렇다. 과연 역사는 힘이 세다. 하지만, 앞서 III장 <1. ‘거짓 맹세’라는 현상>에서 말했듯, 세월호 기억식 같은 실천은 언어적 명령의 발동, 법적 공포를 동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거짓 맹세로 밝혀진다. “법-권력의 규약 내부에서 상기 사건들이 약속되고 기억되지 못”한 까닭에 도덕적 양심이 정치적 저주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선택되지만, 이 결정은 자의적이거나 부분적이다. 실은 종래의 법-질서를 대신해 다르게 나타나지도 못한다. 이 자리의 시들이 요구하는 혁명에 의해선 세월호의 피해자 등, 곧 타자는 기왕의 법-질서의 내부에서 식별을 강제 받는다. 사건을 공회전하는 법-질서를 대신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공중도덕과 같은 원리’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탓이다. 여기가 현실 정치에 반대하여 나타나며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문학”이 정초하는 장소라면, 예외가 정상의 주된 근거라는 사실만을 말하게 될 따름이 아닐까. 법-질서는 “예외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비로소 자신을 규칙으로 만들 수 있”¹⁴⁵⁾어서, ‘예외상태’를 통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존재들은 인가되어 왔다.

정리해보자.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사회체의 일방적인 몰락이나 개인과 사회 맺고 있을 계약의 완전한 파기 같은 것은 꿈으로만 꿀 수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몰락을 상영하는 듯한 세월호 사건의 실제 책임자들로 박근혜 정부가 지목되고 있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탄핵을 통해 정권을 뒤바

145)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61쪽.

꾸는 일은 곧 혁명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법적 작용으로, 수많은 예외들을 인준하는 명령이었음이 밝혀진다. 이런 결여의 복속은 ‘비투쟁적 투쟁’, 국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질서적으로 전개되는 시위를 통해 이미 예견되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박윤영이 살펴본 것처럼(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고 있다), “‘낫’과 ‘몽둥이’, ‘쇠파이프’, ‘짱돌’ 대신 “촛불”을”¹⁴⁶⁾ 든다. 이는 촛불이라는 상징 또는 흔적만으로 가능한 혁명의 기능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개념화되고 정전화된 민주주의의 이미지가 역사의 피 흘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그러니 당시의 ‘그것’이 쉬이 작동된다. 이것을 일단 ‘촛불집회’가 ‘촛불혁명’으로 기입, 전유되는 근거라고 하자.

계산되지 못하고 예측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 불확실한 사건에 충실할 때 자아에게 주체화의 길이 펼쳐진다. 하지만 진리가 자아를 시도되지 않은 영역으로 밀어 넣으려 할지라도, 다시 이것은 어떠한 객관적 집합으로 소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가 곧잘 쉬우며,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 역시 그러한 식별력 속에 있다. 상황을 지배하는 대세적인 논리를 인식의 준거로 삼고 있는 까닭에, 사건성 또한 편집, 질서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이 개별 주체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결정짓게 만든다. 함께 부기해 강조할 점은, 세월호에서 발화 주체들이 취하는 태도의 바탕에, 실제 정치에 작용하면서 변동, 전환의 폭이 매우 협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1980년대의 ‘정치적 봉합’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적 승리’라는 식으로 지금 모두의 원망이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1980년대를 에워싼 역사적 사건들 및 기억이 있다. 물론 이때 민주주의는 상징과 흔적으로 남은 치안질서적 ‘민주’다.¹⁴⁷⁾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동

146) 박윤영, 앞의 글, 23쪽.

147) 랑시에르에 의하면 ‘정치’는 대상을 공유의 것으로 지정하는 등과 관련된 갈등이다. 따라서 정치의 본질은 특히 ‘불화’에 있는 것으로 익숙히 알고 있으며, 랑시에르 자신조차도 “정치의 본질은 두 세계가 하나의 유일한 세계 안에 현존하는 불일치를 현시하는 것”(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223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하므로(사회적 동의와 합의 하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투표)한다) 본질적으로 비혁명적인. 진보라는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보수적이며, 등 뒤에 자본주의를 감추고 있는. 정치에 의해 봉합된 문학의 인간들이 목격되는 이유다.

“정치는 권력 행사가 아니(며) …… 정치적 주체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적 관계이지, 그 역이 아니”¹⁴⁸⁾다는 표현을 곱씹어야 할 때다. 이 지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시들의 일부는 시기적으로는 ‘이후의 시’이지만 발생계통적으로는 ‘이전의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재현보다는 무언가를 ‘재생’하는 것에 가깝다.

3. 2. 서정으로의 재귀

한편 이렇게 주목한 규범적 재현의 양상과, 세월호 직후 순간적이거나 ‘서정시’의 시대가 돌아온 듯했던 모습은 서로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를 이번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며, 세월호를 주제로 한 시 가운데 서정적 형식의 시들을 분류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서정시는 보통 ‘세계의 자아화’라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슈타이거에 의하면 서정시로 분류하게 만드는 몇 특징들은 음악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질서가 통사적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시인이 객관적 세계의 일 또는 사건 등을 자아 속에 흡수하여 내면화해 일치, 상호융화된 것을 발화하는 데서 비롯하며, 주체와 객체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술되는 ‘회감’의 방식이 서정시의 주된 특질이다.¹⁴⁹⁾ 그런데 서정시를 이렇게 이해하면, 질서와 바탕이 무너진 세계를 철회하는 힘을 서정적 자아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정이 무너진 세계를 ‘복원’하며, 따라서 서정시라는 양식은 이후를 살아가기 위한 처방으로써 요청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148) 괄호 및 내용은 인용자 삽입. 자크 랑시에르, 위의 책, 207쪽.

149)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 역, 『시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78, 88쪽.

있다. 세월호 사건이 휩쓸고 간 상흔 뒤 이전 질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시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그렇게 등장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서정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므로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토방 밭 귀뚜라미
 밤새워 가을을 부르는 소리
 갈대가 호느끼고
 낙엽이 훑날리고
 가을이 오는 소리

장독대 귀뚜라미
 긴긴밤 가을을 만드는 소리
 뒤편에 유자 송이송이 노오랗게
 마당가 석류도 빠알강게
 가을이 물씬 익어간다.

「가을을 부른 귀뚜라미」 전문¹⁵⁰⁾

본고에서 주요 텍스트로 선정한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나 이차적으로 참조하기로 한 텍스트들(공동 추모시집; 『엄마. 나야.』, 『세월호는 아직도 향해 중이다』, 『꽃으로 돌아오라』,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 등)은 아니지만, 2014년 당시 발간된 ‘개인의’ 추모시집이라는 점에서 몇 시집들을 살피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이 중 2014년 6월 27일 자로 발행된 정동수의 시는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시적 양상 중 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글은 권두시를 제외하면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없으나 “전 세계가 안타까워 하고 슬퍼하는 눈물겨운 세월호 참상을 마냥 보고 넘어갈 수 없어”¹⁵¹⁾ 시집을 엮게 되었다는 <저자의 말>도 그러거니와 시집의 제목 또한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로, 세월호 사건을 의식하고 추모의 의미에서 출간되었음이 명

150) 정동수, 앞의 책, 18쪽.

151) 정동수, 앞의 책, 9쪽.

백해 보였다.

위에서 인용한 시는 첫머리에 오는 「가을을 부른 귀뚜라미」이다. 정동수의 시는 어느 쪽을 무작위로 펼쳐라도 이처럼 서정적 자아의 발견이라는 측면에 비슷하게 골몰하는데, 이것과 세월호 사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세월호와 거리가 먼 듯한 자아의 노출이지만, 그것을 통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무할 수 있다고 시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핵심이 있겠다. 까닭은 어렵지 않다. 그에게 여전히 “갈대가 흐느끼”듯이 느껴지는 것은, 세계가 제 감각의 차원에서 재편되기 때문이다. 자아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에 의해 세계는 ‘풍경’으로 호출된다. 삶이 이 가운데 펼쳐져 있으므로, 세월호라는 참사를 겪은 후더라도 아름다운 인상이 지속된다. 세월호가 갖는 ‘사건성’이 시인에게 약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마치 사고의 하나로 이해되는 듯한 태도의 탄생 배경이다. 민주적 재생이라는 것 더 너머에서 평화가 이야기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때 중점은 ‘자아 = 세계’라는 일치 속에서 원점 회귀를 바라는 것에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개되어왔다. 김수이는 당대의 몇 서정시에 대해 “자동화된 반복’의 상태에 들면서 시의 생산성이 떨어진 것”¹⁵²⁾이라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가상에의 비생산적 함몰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장욱에게서도 종래의 서정은 “만상을 일인칭의 내면적 고도(高度)에 걸어두는 방식”¹⁵³⁾이었다. 논의의 연장선에서 신형철은 “어떤 자아인가를 묻지 않”는 ‘세계의 자아화’라는 규정 속에서 다만 “현실에 의해 강요되는 정념…… 어떤 초월적인 이념”으로부터 “그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축’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더 섬세하게 후술한 바 있다.¹⁵⁴⁾ 압축적으로 말해서, 근대에 이르러 현실은 (실체가 아닌) 원근법에 의한 배치를 의미하게 된다. 신의 시점에서 인간의 시점으로 바뀐 ‘근대적 배치’ 속에서 자아라는 소실점으로서 세계는 재구성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깊이’의 권위가 문학하는 이들에게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왔

152) 김수이, 「자연의 매트릭스와 현실의 사막」, 『창작과비평』 통권 129호, 창비, 2005, 286쪽.

153) 이장욱,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창작과비평』 통권 128호, 창비, 2006, 70쪽.

154) 신형철, 「미니마 퍼스펙티브아minima perspectivia」, 『문학과사회』 통권 제79호, 문학과지성사, 2007, 283~284쪽.

다.

그런데 ‘세계의 자아화’라는 경향을 받아들인 이후, 전개되는 시들을 익숙한 체계에 의해 구성된 자아들의 키재기라고 일반화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 세월호 이후 나타난 시의 민주적 재생이라는 현상과, 정동수의 시가 성취하는 것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사라진다. 두 유형 모두 자신의 주관성을 통해 언어의 선차라는 현실을 이끌어내는 일들이므로, 높고 낮음이라는 차이만이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납득할 수 있는가? 아니다. “서정의 본질이 ‘세계의 자아화’라는 규정은 혈겁”고 “이 규정 안에서 전근대적 자아와 근대적 자아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상기시키듯 자아의 유형들은 큰 간극이 있다.¹⁵⁵⁾ 일점원근법에 의해 구축된 세계가 저마다 다른 시선을 견지한다는 층위에서 보자면, 자아의 시점에 따라 혁명이 무용한 세계인지 혁명 이후의 세계인지를 판별케 하는 갈림이 또한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세월호 이후 나타난 서정시의 자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건 이후 (지금 역시)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사건의 비참이 순간적일 수 없는 탓에 자기 파괴, 죽음에 가까운 각인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이겠다. 저 반복을 이끄는 것은 이 나라 전체였다. “내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상실을 인정할 수조차 없”¹⁵⁶⁾는데, 도처에선 ‘지겨우니 그만하라’고 했다. 아주 사적이고 개별적인 슬픔이 어느 순간 허용되지 않았다.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았었냐는 반문이었다. 왜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회하여 새로운 대상에게 리비도를 흘려보내지 않았냐는, 무관심한 비난이었다. 세월호라는 사건에 일정한 가공을 가해 “세월호가 정권 차원의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걸 막”¹⁵⁷⁾는

155) 신형철, 위의 글, 283~284쪽.

156) 인용문은 정혜신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최미량, <(인터뷰)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 이웃’ 정혜신 씨 “평목향에 안 갔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경향신문, 2017.04.13.,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4131612001#c2b>.

157) 이정환, 「참혹했던 세월호 보도, 언론은 어떻게 ‘기레기’가 됐나」, 『릿터』 5호, 민음사, 2017, 37쪽.

식의 일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대상이 없어서, 그러한 경험을 간직한 자들—피해당사자, 유가족,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젠 잊으라며 너무 쉽게 충고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상실로 이해되어야 하는 종류의 트라우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4.16 근저에 상영되었던 ‘편집된’ 영상과 기사, 발언들이 위 트라우마를 재생시키는 기제였음은 분명한 듯싶다. 그것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끌어안고 살게끔은 했어야 했는데, 어려움을 무릅쓴 대면이 계속적으로 좌초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가족, 또 이들의 아픔에 공감했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도 모르게 세월호의 실재를 마주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 상황 속으로 참여하는, 단원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시인이 받아 적는¹⁵⁸⁾ 시들의 경우 치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이 시도들은 “애도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애도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글쓰기”¹⁵⁹⁾다. 4월 16일의 충격과 고통이 결코 재현될 수 없음을 알지만, 세월호의 실재를 끝내 바라보게 하여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세월호 이후 쏟아져 나온 서정시들을 크게 가름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이 지점에 걸쳐져 있다.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언어적 질서가 있다. 이것이 한 인식적 구조의 반향이라는 점 때문에 발화자 스스로가 눈치채지 못하면서 내포하게 되는 어떤 경향성, 의도가 또한 있게 된다. 그래서 언표들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후까지를 ‘위해’ 다른 삶의 형태와 기준들을 제공하는 창으로도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월호의 실재를 드러내도록 (그것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또는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에 대해 통감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세월호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4월 16일 직후 발표되었던 시들 모두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살아가게끔 하는 치유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서려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쏟아지는 시들은 각기 다른 원근감 속에서 다

158) 『엄마, 나야.』라는 시집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리운 목소리로 아이들이 말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인들이 받아 적다.’

159) 정원옥, 「4·16과 애도 담론」, 『자음과모음』 제26호, 자음과모음, 2014, 319쪽.

른 지향점을 향해 발언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 나라의 역사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재생에 골몰해있는 듯했다. 서정시가 자아의 시점으로 세계를 구성하므로, 이 경향의 시들이 서정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세계의 바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감각과—그래서 민주주의적 재생으로 몰두해가는 것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라는 인식은 극명하게 다르다. 전자는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이를 수복하려 하는 시도들로 수렴되어 갔다. “사건의 정동적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트라우마를 ‘정상적 의식’ 내로 통합하는 식으로.¹⁶⁰⁾ 정상적 의식은 트라우마가 생기기 이전의 세계로, ‘그라운드 제로’에서의 방법으로 기존의 질서를 다시 상상했던 것은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III장 <3. 1. 치안적 재현>에서 인용 및 분석했던 시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중 백무산의 시를 다시 보도록 하겠다.

저 환장하도록 눈이 부신 4월 바다를 보면서
 아이들은 성적 걱정이나 했을까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뛰쳐나간 너희들 반성문 써야 할 거야
 물이 목에 차올라오는데, 이러면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했을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해훼리호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슬픔은 장마처럼 지나가고
 아,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난 따윈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저들
 촛불시위와 행진과 민주주의가 더 큰 재난이라 여기는
 저들이 명령을 하는 동안은, 결코

160) 양석원, 「정신적 상처의 원인과 치유의 탐구—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 다시 읽기」, 『비평과이론』 통권 57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91쪽.

뒤집어라, 뒤집힌 저 배를 뒤집어라
 뒤집어라,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탐욕으로 뒤집힌 세상, 부패와 음모와 기만으로 뒤집힌 세상
 이게 아닌데, 이럴 순 없어, 뒤집지 못한 우리들
 가슴을 치며 지켜만 봐야 하다니,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는구나, 뒤집어라,
 폭력과 약탈로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
 이렇게 내 버려둘 순 없어 저 죽음을 뒤집어라
 뒤집지 않고서는 살리지 못해 저 죽음의 세력을 뒤집어라

백무산,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 부분161)

위의 시에서 세월호 사건은 재현되고, 살펴본 바대로 치안 질서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이 질서는 단순히 ‘기왕의 질서’라고 뭉뚱그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백무산은 세월호 앞에 “상품백화점”,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또 대구의 “지하철” 참사 등을 호명하여 지금 시대의 재난이란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면 여태껏 무엇도 바뀌어 온 게 없었다는 점(“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을 꼬집는다. 이러한 생각은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비민주주의적 진영(“촛불시위와 행진과 민주주의가 더 큰 재난이라 여기는”)에의 반발에서 촉발되며, 따라 이들이 위정자로 자리매김하는 세상은 전복되어야만 한다. 이때 전복이 일정한 기대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는 무엇을 어떻게 뒤집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대답 없음은 실천과 전략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시’ 제시되는 까닭에서 오는 축약이겠고, 또 이 뒤얽음이 세상을 살리리라는 식의 전망(“뒤집어라,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야 살린다”)에는 본디 이 세계가 옳게 존재했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4.19 등에 의해 수립된 세계로, 이전의 질서를 ‘전복’하여 나타났다고 여겨지는 가상의 지대를 의미하겠다. 공광

161) 백무산, 「세월호 최후의 선장 박지영」,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83~84쪽.

규에게서도 이러한 정황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났다.

한 사람의 죽음에서도 그 나라를 본다고 하는데
 이런 수백의 죽음 앞에서 나는 나라의 침몰을 보았다
 이런 나라의 정당에 가입하고 집단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광화문 촛불 앞에서
 검은 글씨로 극락에서 행복하라는 메모를 붙였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가 빨아서 너 교복을 체육복을 입고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는 너희들에게 미안했다

공광규, 「노란 리본을 묶으며」 부분¹⁶²⁾

공광규의 “부끄러웠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처럼, 이 시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하다. 죄책감과, 미안함과, 슬픔, 세월호로 겪는 참담한 감정은 이 세계에 기입된 자(“이런 나라의 정당에 가입하고 집단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내가”)로서 오는 것이다. 이로써 그가 바라보는 것은 “나라의 침몰”이다. 표현의 일정한 차이를 떠나면, 공광규의 시에서 감지되는 의식은 백무산의 그것과 그리 멀지 않다. 죄는 “사람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나라”(「노란 리본을 묶으며」, 27쪽)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마음의 순간에 있다. 이처럼 백무산과 공광규가 사용, 이해하는 언어와 현실의 원리는 매우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나라의 침몰”은 예견되거나(“아, 세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웠다”고 “미안했다”고 소회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점유하는 사회적 역량에 기인한다(“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는구나, 뒤집어라”). 그런데 재난의 근거를 스스로 제시/납득하고, 따라 이러한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때, 몰두해 있는 것

162) 공광규, 「노란 리본을 묶으며」,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화사, 2014, 27~28쪽.

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실천처럼 보인다.

전복의 의미는 뒤얽음이 아니라 ‘되돌아 감’에 가깝다. 일찍이 겪었던 재난의 사건 이후 수립된 것으로서, 이 경험이 근원으로 작동하는 공통감각 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월호에 대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었던 실천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 역시도 다수가 그렇다.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선언들까지도.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재현되는 게 세월호 사건 자체일 수는 없더라도—지난 시기의 재난을 가리키고 있을 뿐더러 그 자장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서의 세계가 원점으로 사유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 시도들이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 역시 ‘폐허 이후’에 수립된 세계라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시는 사회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다. 특히 서정시는, 사회에 가장 깊이 근거한 것으로서 제 주관을 통해 사회를 말하게끔 한다. 다만 이때 종종 나타나는 서정시의 나쁜 문제들이 있으니, 그것은 대상과 상상적으로 맺는 관계 속에서 타인의 타자성을 ‘남김없이’ 동일화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면 참사, 재난 같은 일들 앞에서 이것의 실재들이 더 모색되지 않게 되었다. 타자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나’다.

이 점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형태 중 하나가 ‘치안적 재현’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신자유주의라는 합리성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투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발화 주체의 도리를 끝나도록 한다. 발화 주체가 사건을 호명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호에 대한 사유를 무엇인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과거로부터 유지되어 온 상상적 관계의 일면이 드러난다. 5.18은 이때 다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18의 ‘그 경험’을 지금 여기로 끌어왔던 것은 ‘그’ 1980년을 다만 맞대놓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의 기원을 발설하던 ‘경험’이 절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경우, 5.18을 이용해 “세월호 사건을 ‘억압과 저항’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민중적 차원의 저항정신이 필요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감대와 합치하게”¹⁶³⁾ 만든다. 시인과 독자는 모두 자

163) 김동근, 앞의 글, 165쪽.

죽한다. 물론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이들의 자기동일성에 붕괴 이후의 대안이자 도저한 고민으로서 타자에게로의 열림을 의식한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중 하나다.

반면에 (이들과 한 묶음처럼 간주 될 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라는 인식”에 근거한 시는 다르다. 그러한 시들은 자족적 위안 더 너머에서 머무른다. 이 가운데는 어떤 자연적 풍경이 전경화된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자연들은 등장하면서, 자아를 위해, 현실의 오욕들을 씻겨 내기 위해 소비된다. 이때 시는 희생자, 살아남은 자들, 유가족이라는 부류의, 세월호 사건이라는 기표 아래에서 더 말해지 못한 타자성에 접선하고 어렵지 않게 관계 맺는다. 자아는 쾌락을 더는 은밀히 만족시킬 이유가 없다.

다른 한편 서정시의 좋은 점은 누구도 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시대에¹⁶⁴, 경험을 표백 받고 제작된 경험들을 갖게 되는(‘구매’) 개인들에게 진정한 경험의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시의 언어가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매개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주관성을 통해 대상의 실체를 ‘겪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1980년대의 정치적 경험으로 밀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월호 앞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다음과 같은 시를 만날 수 있다.

슬픔의 과적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았다
 슬픔이 한쪽으로 치우쳐 이 세계는 비틀거렸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것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알 수 없
 어 포기했다
 기도를 하던 두 손엔 검은 물이 가득 고였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갔다

164) “그의 노동은 경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봉 처리되어 있다.” 발터 벤야민, 김영옥, 황현산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6』, 길, 2010, 218쪽.

나는 딱딱해지고 있었다

해변에 맨발로 서 있던 유가족
 맨살로 닿을 수 없는 거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죽을 때까지 악몽을 꾸어야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학살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꾸는 악몽 같은 것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피가 돌지 않고
 눈이 심장과 바로 연결된 것처럼 쿵쾅거렸다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곳이 지옥이다
 꽃도 나무도 시들지 않고 살아 있는 곳
 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못처럼 박혀 있는 곳
 죽은 마음, 죽은 손가락, 죽은 눈동자

위로받아야 할 사람과 위로할 사람이 한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떠올라야 한다
 우리는 기어올라야 한다
 누구도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가을이 멀었는데 온통 국화다
 가을이 지난 지가 언젠데 국화 향이 이 세계를 덮고 있다
 킁킁한 방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앉아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힌다
 꿈속에서도 공기가 희박했다

해변은 재단이 되었다
 바다 가운데 강철로 된 검은 허파가 떠 있었다

신철규, 「검은 방」 전문¹⁶⁵⁾

세월호가 가라앉은 순간을 생중계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다른 참사들보다 방대한 양의 감정을 지출하게 했다. “슬픔의 과적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았다”. “세계는 비틀거렸다”. 그러므로 이런 단언이 그리 어색해 보이지 않지만, 시의 목소리가 누구의, 무엇의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우선 시적 화자가 “나”로 등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사실부터 지적해야겠다(“나는 딱딱해지고 있었다”). 이 “나”가 누구인지 독자는 아직 모르는데, 자꾸 “우리”의 이름으로 시의 모든 것이 발설되는 까닭에(“우리는 떠올라야 한다” 등) 화자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이 더 미궁 속에 빠진다. 이것이 무슨 효과를 갖는가?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서정적 시선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만든다.

참사의 당사자가 아닌 한 세월호란 사건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세월호를 말한다는 것은 일정한 ‘간극’을 갖는다는 사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 시간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진술(“가을이 멀었는데 온통 국화다”) 등에 유의하라. 그래서 화자가 참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격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의 목소리 속에는 종종 목격자의 자리를 넘어선 진술들이 등장한다. “우리는 떠올라야 한다”. 세월호의 고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물음으로 읽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럴 경우 ‘그들은 떠올라야 한다’고 기술하는 게 더 정확할뿐더러, 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절박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팽목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와, 저 장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의 신체적 반응을 거의 분별할 수 없도록 섞어두고, 그렇게 ‘나’와 ‘너’를 묶어 “우리”라는 기표로 소환한다. 또 시의 “우리”는 외연이 넓어서 “유가족”이나 사건의 목격자로 참여되어 있을 이들까지가 모두 포함되는 듯하다(“확살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꾸는 악몽 같은 것”). 이 “모든 사람”의 집합으로서 “우리”가 (시의) 질서를 구성하게 하는 바, 이들이 ‘겹쳐진’ 모습으로 상상되는 이유다(“위로받아야 할 사람과 위로할 사람이 한사람이라면”). 이때 “나”의 경험을 넘어서, “유가족”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모

165) 신철규, 「검은 방」,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95~97쪽.

든 사람” 중 하나로 이 시를 읽는 독자까지가 시의 자리에 초대된다.

이 점은 다시 증명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목숨이 죽었으니, 신체의 경직은 비유적으로 ‘죽음’을 암시하고 있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중심으로 맴을 도는 경험은 최소한 세 가지다. “나”의 죽음과(“나는 딱딱해지고 있었다”), “유가족”의 죽음 (“맨살로 닿을 수 없는 거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죽음(“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곳이 지옥이다”). 특기할 부분은 제 것이 아닌 경험들이 함부로 짐작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시의 사유가 자아의 주도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화의 논리는 타인의 경험을 “죽을 때까지 악몽을 꾸어야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정도로,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피가 돌지 않고/눈이 심장과 바로 연결된 것처럼 쿵광거렸다”까지만을 부기한다. “우리”의 사정,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 작성되는 것이다.

신을 부르는 방법을 몰라서/모르게 되었고(“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것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알 수 없어 포기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이 파국을 대신하는 질서를 화자는 알지 못하므로, 여직 무엇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이곳에선 희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이를 해결해버리는 것은 이 시의 작법이 아니다. 때문에 자아는 ‘본다’. “컴컴한 방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앉아 있는 것처럼” 어둡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면 이후로 이곳에 있을 것은 어둠이다. “바다 가운데 강철로 된 검은 허파”가 내내 공기를 “국화 향”으로 뒤바꿀 것이다.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있었다”.

서정시의 지엄한 측면은 자아에 의해 관측된 세계에서 대상이 파악, 거의 재조립된다는 데 있다. 반면, 이 시의 원근법을 관장하는 하나의 시선은 어쩐지 중층적으로 구성되는 듯싶다. 시의 화자는 아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멈춘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듯하다. “나”를 중심으로, 타인에게로 열린 자아의 경험이 ‘그저 있다’. 서정시의 방법은 대부분 타인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불러내는’ 일에 가깝지만, 꼭 그런 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가 그런 분류를 염두에 두고 쓰이지는 않는 것처럼. 「검은 방」은 타인을 타자에 가

짧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하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이야기를 침묵한다.
 화자는 겸허하고, 그럴 때 서정은 아름답다.

김중일의 「꽃처럼 무거운 마음」, 신용목의 「그리고 날들」도 비슷한 이유에
 서 거론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가능한 조심스럽게 펴 올린다.

꿈속에서 밝혀놓은 촛불이 다 타 버리자 해가 떴다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떨어진 달처럼 무거운 마음 내가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마음이
 내 정수리 위에 비행접시처럼 떠 있다 그 그림자는 잠시 지구를 덮고 내
 정수리 속으로 서서히 내려앉는다, 가라앉는다 ……중략…… 내 발목에 매
 달려 걸을 때마다 모래 위로 끌리는 마음 날 매달고 바다 속에 산 채로 던
 져진 마음

온몸이 통제로 마음이 되던 날
 찬바람이 붙여놓고 간 촛불로도 밝힐 수 없는 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몸

김중일, 「꽃처럼 무거운 마음」 부분166)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밥을 먹을 시간이다,
 백반집 앞에
 빨간 오토바이가 받쳐 있고
 여섯 시 반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는 노란 버스
 일곱 시면 경종 소리가 들리지
 밥을 삼키면,
 나는 입을 가졌구나 부드러운 목을 가졌구나 따뜻한 배를 가졌구나
 알게 된다
 일곱 시면 철길 앞에 내려오는 차단막, 그 너머로 아이들이 들고 뛰는 삼색
 리본 같은 것들이 휘날린다

비 오는 밤 외진 골목처럼 형광등 뜬 미역국에 얼굴을 비쳐봤을 뿐인데

166) 김중일, 「꽃처럼 무거운 마음」,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화사, 2014, 60~61쪽.

미안하다,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나갈 수가 없다
 ……하락……

신용목, 「그리고 날들」 부분¹⁶⁷⁾

「꽃처럼 무거운 마음」에서는 흡사 사실의 나열에 가까운 구절들이 눈에 띈다. 그렇게 보이도록 한 의도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으리라. 가령, 시적 화자는 내내 “내가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은 “정수리 위에 비행접시처럼 떠 있”었으나, 영영 알 수 없는 무언가다. 그도 그럴 게 저 “마음”과 시적 화자는 별다른 접면을 갖지 않는다. “내 정수리 속으로” 마음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을 뿐이며, 그마저도 “잠시 지구를 덮”은 뒤에 온 것이다. 이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세월호라는 문맥 없이 읽는다면 무얼 지시하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나”는 항상 몇 걸음쯤은 물러서다가, 왕왕 “날 매달고 바닷속에 산채로 던져진 마음” 같은 문장에서 대상과의 거리를 성큼 좁혀버린다. 거의, 가까스로 맞닿은 듯한 간격 속에서 ‘그’ 슬픔이 자아의 것이 된다. “꽃잎 없는 꽃처럼 무거운 마음”(「꽃처럼 무거운 마음」, 60쪽)이다.

세월호의 고통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목은 이 모름에 자신이 아는 것을 가만히 덧대어 본다. 시의 구절들은 자신이 보고(“백만집 앞에/빨간 오토바이가 받쳐 있고”), 듣고(“일곱 시면 경종 소리가 들리지”), 경험한(“밥을 삼키면/나는 입을 가졌구나 부드러운 목을 가졌구나 따뜻한 배를 가졌구나/알게 된다”)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순간들은 “외로움”의 현전이다. 바쁜 식사 시간의 때를 지나 우두커니 남겨진 오토바이, 와글와글한 아이들을 내려놓고 고요해진 버스. 이럴 때 문득 몰려오는 허기 같은 게 있다. 외로움은 그렇게 끼니를 잇는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세월호 앞에서 문득 맞닥뜨리곤 하는 자아의 ‘맹목’이다. 타인의 삶을 ‘나’는 알 수 없다(타인 역시 ‘나’라는 타인의 삶을 결코 알 수 없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이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고백은 그러므로

167) 신용목, 「그리고 날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93쪽.

가능하다. 하지만,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슬픔이 내게 머무른다.

시의 부제는 ‘Bitter Moon’이다. 사이가 나빠 쓰라린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인데, 시의 ‘나’와 세월호의 ‘당신’을 가리키는 듯하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늘 이런 식이므로. 와중에 삶은 지속되리라. 그러다, 어쩌다 ‘나’의 얼굴이 비춰보인다 (“비 오는 밤 외진 골목처럼 형광등 뜯 미역국에 얼굴을 비쳐봤을 뿐인데”). 마음이 상한다. 나는 나의 슬픔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 “미안하다”는 고백은 이 때문이다. 타자에게로, 상처받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나갈 수가 없”는 ‘날들’이다. 이것이 지속된다. 타인에게서 거세할 수 없는 타자성과 함께, 동시에 그것을 ‘사랑’(혹은 기만)할 수 없는 자아의 고백과 함께.

재난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시가 추구하는 것들은 한 경향 아래로 결집해있다. 사건에 맞닥뜨려 목격된 것들을 재난의 원인되는 체제, 감각의 질서가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재현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때 신철규, 김중일, 신용목이 보여주는 태도가 여기에 대한 응답 중 한 규범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싶다.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시선 속에서, 동시에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럼으로써 타자성을 보존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이것이 소기의 성취를 거두고 있는 이유에는 자아에 대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실천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히 요청되어왔던 이론적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발화 주체의 감각적 재분할이다. 그리고 전복된 감각의 위계 속에서 모색되는 윤리를 위하여, 최초로 의식되었던 것은 감각적 재분할 ‘이전의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모습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 재현의 향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의심은 필요하며, 이때 ‘나’의 무의식적 영토를 쉽게 변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미심쩍은 것인지 알게 된다.

따라 스스로의 무의식을 점점, 의심하기 어려워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만을 쓰기가 강조된다. 타자의 그것을 타인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나’의 이해와 시선이 도달해도 되는 곳이 어딘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것까지만을 비

취 보여주는 것. 즉 세 시인은 타자를 헤집지 않는 자아의 반경을 탐색하는 것이
 재난, 사건을 시로 쓸 때 필요한 태도임을 묵시적으로 동의한다. 그들의 시가 거
 대한 표상을 불러오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과 부분들 속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을
 머무르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서정이 도달하는 곳은 서정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비
 단 서정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건 앞에서 시가 상징질서로의 복무라는 명을 받
 들지 않겠다 하더라도, 언어에 구성적인 한 재현의 모든 난관을 피해갈 수는 없
 는 노릇이므로. 가령, 이런 물음이 가능한 것이다. 자아가 타자적인 것과 유지하
 고 있다는 거리의 진실은 무엇이 보증하는가? 이를 시인의 주관, 또는 해석자의
 주관에 맡긴다면, 이때 목격되는 것은 좀 더 넓은 크기의 서정적 세계관일 뿐은
 아닐까, 같은. 만일 그렇다면 시는 사건이라는 관측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그것
 에 가까울 정도로 가름할 따름이다. 이때 재현 불가능한 것들의 재현이라는 썩
 난감한 종류의 실천은 실마리를 얻는 동시에 그 한계를 맞는다.

IV. 세월호 이후의 시¹⁶⁸⁾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

1. 재현 형식의 실험

재현 형식의 실험이란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재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며, 세월호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무성한 서정의 소문에 의구심을 갖는, 갖게 하는 것으로서의 시들에 대한 주목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III장 <3. 2. 서정으로서의 재귀>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정의 매커니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사건을 논하기 이전에, 자아와 세계 사이의 마찰과 균열을 포착하면서 고전적인 서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권혁웅이 미래파를 이야기했을 무렵이다. 세계와 자아의 불화, 둘의 비동일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파만파 커져 나가면서, 그렇다면 이 환원주의적 비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겠느냐는 물음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것은 ‘윤리’다.

도덕은 사회가 나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호명하면서 강제하는 습속에 가
 잡고, 윤리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명령이라고

168) 본고의 3장과 4장의 제목은 ‘세월호 시와 규범적 재현’,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으로 그 구분이 분명하다. 이 중 세월호 시/세월호 이후의 시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는 대상으로 삼는 시의 범주가 장별로 달라진다는 까닭이 있다. 세월호 직후 그것을 대상으로 쓴 시와, 세월호를 지나 또는 통과해 쓰인 시라는 구분 속에 있는 것은 일종의 변곡점이다. ‘이후’라는 표현에 부여되어 있을, 양근애의 표현을 빌자면 “‘since then’, 즉 벗어날 수 없는 사건과 그 이후”(양근애, 『‘이후’의 연극, 달라진 세계』, 연극과 인간, 2020, 5~6쪽.)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내 이야기해왔지만, 이것은 종래의 감각질서를 위반함으로써 가능하다. 세월호 사건에 의해 재분할된 감각의 질서 내로 스스로를 내던져야 한다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이를 구조화하고 있을 담론적, 무의식적인 측면까지도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 이를 행하지 못하거나, 행한다고 여기면서 실패하는 것들을 세월호 시로, 세월호의 타자적인 모습을 현전하는 것들을 세월호 이후의 시로 편성하였다.

칸트에 기대어 말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이었다. 선과 악이라는 초월적 기준에 근거하는 강제적 규율이 도덕이고, 좋음과 나쁨이라는 내재적 기준에 근거하는 임의적 규율이 윤리라고 스피노자에 기대어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말하든 우리에게 자유, 선택, 책임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라는 층위다.¹⁶⁹⁾

윤리란 자신의 진실과 대면하기 위해 무엇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도덕의 입장에서 보자면 몰락으로 향하는 일이다. 주체가 대면하려는 진실은 결코 착하거나 아름답지 않고, 외려 위협적이다.

그런 까닭에 자아의 상상적 도덕률이 진실, 실제로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지대를 무의식중에 회피하도록 하고, 정형화된 말하기를 만들도록 한다. 서정시의 매커니즘이란 이런 자아의 우위로 돌아감 속에 있는 것이다. 즉 윤리는 몰락의 편에서 무언갈 피어나게 하는 것이면서도, 경계하지 않는 순간 언제든 주류 담론 속으로 편재되어버릴 위험에 놓여 있다. 주체화의 순간이 다시 축소되고 있지만, 이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자아가 돌아오고 있을 때, 타자를 타인으로서 발견하면서 ‘나’의 폭력적인 이면이 감추어지고 있는 순간은 시에서 잔혹과 우스꽝스러움으로 나타나던 진실이 평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재현하는 행위와도 상관적이다. III장의 <3. 1. 치안적 재현>에서, 도덕적 독재를 의심하는 ‘나’로 인해 의심되지 않는 재현의 진실성이 있었음을 함께 떠올려 보자. 공통적으로, 이미 묻고 대답했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의 물음을 멈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계속해 묻게 하는 것이 문학의 할 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구일 수 있을까?’ 자아로부터 ‘주체화’의 과정으로 돌려놓을 때, 재현은 사건이 갖는 재현 불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선다. 그런 의미에서 재현 형식의 실험이란 재현-윤리에의 물음이다. 이것이 세월호 이후의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 사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69)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142쪽.

1. 1. 당사자의 시

우선 논의할 것은 당사자의 시이다. 등단 시인의 그것은 아니지만, 이 시들을 통해 시사되는 점은 함께 주목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여 한 꼭지로 삼았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시가 대체적으로 회고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른 시인의 시들에서도 많은 경우 세월호를 기록, 기억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는 점들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경향이다. 다만,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닐 텐데도, 아래에 인용한 유인애의 시에서 특정한 시점을 통해 다시 구성되는 어떤 날의 기억은 조금 다른 작용을 함께 이끌어 내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아주 가까스로, 무언갈 예시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장롱 서랍 속 깊숙이 흔적을 찾아 눈과 손을 빌린다
 신생아 때 입었던 배냇저고리, 두 벌이 예쁘게 개어져 있다
 큰 아이 입히고 작은 아이도 입혀서 앞섶부분이 누런 배냇저고리
 손을 짚 펴서 재어보니 한 뺨하고도 반 정도
 요렇게 작았구나.

얼굴 대보며 17년 전 아기였던 너의 냄새 맡는다.
 아기분과 젓 냄새, 분유냄새
 그 냄새를 애써 찾는다.
 내 분신이었고 내 사랑을 한없이 준 아기
 요 배냇저고리 다시 입히면 좋으련만
 지난 흔적만 아련하게 끌어낸다.
 그래도 이 순간 배냇저고리 입은 아기는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다,
 사랑해 아가야...

유인애, 「배냇저고리」 전문170)

눈썹 몇 개가
 이따 아래에서 양쪽으로 길게 휘날린다.
 유난히 밝을 좋아하는 몇 가닥
 얼굴 정 중앙 기둥 미로 숲
 나이 읽는 모습을 담아야하는 것일까.
 아빠 자화상 일부분 밑그림들

거실에 누워계신 아빠 곁에서
 아이 지지분해 하는 말도없이
 가만가만 쪽가위로 손질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했는데
 “아빠 콧구멍 크다”
 “궁아, 동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부엌에서 들려주는 엄마 말에
 “그럴지도 몰라”
 비유하며 둘러대도
 아빠는 좋아서 환하게 씩씩-.

코끝에 만지작, 만지작 닿던 작은딸 향기
 아빠 자화상 밑그림을 덧칠해주던 딸
 참사랑을 들쭉날쭉 변덕스럽지 않게
 가지런히 다듬어주던 딸
 아빠는 술래잡기의 술래가 되었다

유인애, 「그리운 손길」 전문¹⁷¹⁾

슬픔으로 가득 찬 회고의 이야기들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자신을 살게 할 마지막 시도이기도 했을 것이다.¹⁷²⁾ 이러한 종류의 서정에

170) 유인애,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 굿플러스북, 2017, 57쪽.

171) 유인애, 위의 책, 82~83쪽.

172) “초기에 아빠에게 막 핀잔을 쳤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아빠가 미웠다. 아빠가 당뇨가 있어

는 깎아질러진 절벽만큼의 깊음이 도사리고 있겠다. 자녀와의 헤어짐은, 그들의 만남을 슬회함으로 더 선명해진다. 「배넛저고리」에서 시적 화자는 장롱 속 배넛저고리를 꺼내어 17년 전 아이의 크기와 냄새를 떠올린다. 「그리운 손길」에서도, 화자는 “궁아”(이혜경)와 있었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아빠의 눈썹을 손질하면서, 아빠의 콧구멍 크기를 두고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과 딸이 이별해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게 된다.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의 시들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거나¹⁷³⁾, 또는 이처럼 과거의 어느 순간을 슬회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들로 양분되어 있다. 시가 이전적 세계를 영사하면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의 붕괴는 강조된다.

그러므로, 자아와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자아의 슬픔이 자꾸만 세계를 압도해 가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고삐를 쥔 유인애는 저 사무치고 익숙한 슬픔들을 이용해 그들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는다. 아주 잘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넛저고리」에서 “애써”, “한없이”, “아련하게” 같은 수사를 통해서 유도되는 곳은 시적 화자의 슬픔이 거하는 장소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만을 되새기는 게 아니었고, 전문 시인이 아니면서도 최대한 담담한 서술을 유지한다는 점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었다.

이 측면에서 「그리운 손길」은 조금 더 귀하다. 시의 1연은 “아빠”(이중섭) 얼굴에 대한 묘사로 일관되어 있고, 2연부터는 그 얼굴에 깃든 세 사람(유인애, 이중섭, 이혜경)의 서사가 전개된다. 주목할 대목은 여기다. 세 사람 중 “엄마”가 ““궁아, 동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장을 통해 등장했다. 시의 발화자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런 일로 좀 부대꼈다. 감정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겠구나’ 싶은 생각에 큰애(혜경이 언니)와 아빠 등 다 모아놓고 그랬다. “혜경이 보고 싶으면 우리 서로 숨기지 말고, 참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전홍기혜, 이명선, <엄마와 딸의 마지막 포옹, 그날을 詩로 적었다>, 프레시안, 2017.08.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6632>.

173) 처음 실린 시 「뒤돌아보아도 아프다」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시의 1연은 “뒤돌아보아도 아프다./시간을 가슴에 짓이겨 뭉갠지./땀추어도 아프다./시간을 어미 발꿈치로 짓밟고/한 발짝 태어도 아프다./시간은 너리에 정박해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가 유인애라는 것을 아는 독자에게 약간 이상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유인애가 기억의 참가자로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육성으로부터 텍스트 내부의 목소리(시적 화자)를 분리시키고 있어서다. “부엌에서 들려주는 엄마 말”까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화자는 이 시의 내용을 기억하는 자아로서 자신의 시선 아래 모든 서사를 구성하지만, 그러면서도 “엄마”의 발성에 이르면 화자와 유인애의 입장이 분별된다. 이를 발화의 근원지와 다른 의미의 원천을 형성한 것이고, 어딘가 이질적인 게 교통할 수 있도록 둔다고 말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추측을 강화하게 하는 다른 근거로 ““아빠 콧구멍 크다””나 ““그렇지도 몰라”” 같은 아이의 목소리들에 대해 “아빠는 좋아서 환하게 씨익-.”처럼 끝내 해후해버리지 않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만 하는 마주침이 아니다. 어떻게든 “궁아”의 목소리가 이곳에 나타나길 바라는 데서 비롯하는, 애처로운 제어력이다. 이때 시의 세계가 일순 두 개의 소실점을 갖는다. 이른바 서정의 독법을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듯싶다.

시에서 회고하고 있는 상황의 위 또는 아래로 더 개입하지 않으면서 머무르는 게 흔한 실천은 아니다. 물론 이를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고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소멸”¹⁷⁴⁾로 보기에 는 어렵지만, 서정의 기능이 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조를 확인할 정도는 되겠다. 강조할 점은 서정의 중단이라는 현상이 유인애의 것일 때, 어떤 이론과 테크닉에 의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요소, 다시 분배되는 감각들의 순간에서 이루어진다.

1. 2. 직접 인용

‘나’는 ‘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승객 여러분, 승무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대기하

174) 신형철, 앞의 글, 292쪽.

십시오”)(「노란 리본을 묶으며」)175), ““어, 이거, 배가 기울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데, 가만있으라고?””(「침몰하는 봄」)176) ““너를 그냥 보낼 순 없어, 꿈속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주라””(「어미의 말」)177) 등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해 재구성한 표현들과 또 다르게, 이 시들은 유가족의 말과 목소리를 고스란히 싣는다.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2015년 1월 27일, 열아홉살의 증인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광주고등법원 법정 201호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재판

- 증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해주십시오.

증인 A 아침 여덟시 오십칠……갑자기 배가……자판기와 소파……쏟아지…… 복도 쪽으로……캐비닛……구명조끼를 꺼내……친구들은……기다리고……문자를 보내고……가만히 있어……우현 갑판 쪽……커튼을 찢어……루프……여학생들……물이……바닷물이……탈출……아홉시 오십분……갑판 위로……헬기……해경……아무도……아무도……

증인 A 저……저, 저는……3층 안내데스크 근처……배가 기우는……미끄러져……벽에 부딪쳤……피가……매점에서……화상을 입은……좌현 갑판……비상구……열려 있었……승무원들……우리……대기하라고만……비상구……친구 셋이……끝내……아홉시 사십……물이……차올랐고……잠수……를……4층 갑판 쪽으로……헬기 소리가……탈출 후에야……해경……와 있

175) 공광규, 「노란 리본을 묶으며」,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26~27쪽.

176) 문인수, 「침몰하는 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72쪽.

177) 교육문예창작회, 『세월호는 아직도 향해 중이다』, 도서출판b, 2017, 12쪽.

다는 걸……

- 증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증인 B 할 말……말이 있지만……그만……그래도……할 말이……해야 할
 말이……정신없이……살아나오긴 했지만……우리 반에서……저 말고는……
 아무도……구조되지 못했……친구들도……살 수 있었을……아무도……저
 말고는 아무도……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말. 모래 한줌의 말. 혀끝에서 맴돌다 삼
 켜지는 말. 컷속에서 웅웅거리다 사라지는 말. 멍멍한 물속의 말. 해초와 물
 고기들의 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말.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난
 말. 깨진 유리창의 말. 찢겨진 커튼의 말. 모음과 자음이 뒤엉켜버린 말. 발
 음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말. 더듬거리는 혀의 말. 기억을 품은 채 물의
 창고에서 썩어가는 말. 고름이 나오는 말. 헬리콥터 날개소리 같은 말. 커커
 이 잘려나가는 말. 잘린 손과 발이 내지르는 말. 아직 핏기가 가지지 않은
 말. 시퍼렇게 멎는 말. 눌린 가슴 위에 다시 내리치는 말. 땅. 땅. 땅. 망치
 의 말. 뺏속 깊이 얼음이 박힌 말. 온몸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된 말. 화상
 입은 말. 타다 남은 말. 재의 말.

그래도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입은 열어두어야 한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바다 저 깊은 곳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말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나희덕, 「문턱 저편의 말」 전문¹⁷⁸⁾

178) 나희덕, 「문턱 저편의 말」,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 걷는사람, 2019, 47~50쪽.

“저도 바닷가에서 자라 잘 아는데 바다엔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좀 세면 어때요? 저 바다가 반드시 우리 애를 엄마 곁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간절한데 바다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돌아오면 내 곁에 하룻밤 꼭 재워서 하늘로 돌려보낼 거예요. 그거 밖에 없어요. 지금 제 희망은…….”

이시영, 「5월 3일, 뉴스타파」 전문179)

“가난한 집에 태어난 죄로…… 2만원밖에 못 썼는데 고스란히 남아 있던 지폐 두 장. 배 안에서 하루를 보냈을 텐데 친구들 과자 사 먹고 음료수 사 먹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시영,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글로 지정함」 전문180)

물론 경우가 다르다. 이시영과 나희덕이 쓰는 것 사이에는 끝내 사건의 전달자 이기를 선택하는 자와, 사건의 슬픔을 껴안기를 바라며 걸음을 딛는 자라는 차이가 있다.

먼저 나희덕이다. 시인들, 아니 문학하는 이들 모두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 있다. 이들은 시, 소설 등을 통해 어떤 그의 슬픔, 타자성의 지대로 가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심을 품은 말들을 스스로 좌초하는 상황이 목격되곤 한다. 타자의 슬픔을 ‘나’의 이해 내에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적 질서 내부에 터무니없는 장벽이 있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탓이다. “문턱을 넘지 못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존재들을 증언하는 최후의, 유일한 “증인”들로서 소년들을 소환할 때(“2015년 1월 27일, 열아홉살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앉아 있다”) 느껴지는 아슬함, “증인A”와 “증인B”에게서 점줄로 지시되는 무수한 말의 구멍들을 다시 언어로 건져 올릴 때(“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말. 모래 한줌의 말. 혀 끝에서 맴돌다 삼켜지는 말.……하락……”) 느껴지는 충격은 그 때문에 놀랍다. 가령 시인은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일종의 정언명령을 하는데(“그래도 문은 열

179) 이시영, 「5월 3일, 뉴스타파」 전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125쪽.

180) 이시영, 『하동』, 창비, 2017, 104쪽.

어두어야 한다/입은 열어두어야 한다/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문, 입을 열어두라’는 자아의 명령은 세월호라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의무이자 실천적 행위인 것인 양 사유하게 만든다. 놀라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다음 지점이다. 이렇게 시를 쓰는 행위가 ‘선’적인 것이 될 때, 하지만 거기서 말해진 모든 내용들이 도덕적 올바름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여기 법정에서 앉아 있듯이(“2015년 1월 27일, 열아홉살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앉아 있다”) 거기 4월 16일에 머물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또 미처 전해지지 못한 말들이 사건의 현장에서 단 한 걸음도 밀지 못한 채 증인들의 침묵 속에, 시의 점줄 가운데 ‘있음’을 나ହି덕은 증언한다. 그것이 “모음과 자음이 뒤엉켜버린 말. 발음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말. 더듬거리는 혀의 말. 기억을 품은 채 물의 창고에서 썩어가는 말.”이면서 “헬리콥터 날개소리 같은 말. 켜켜이 잘려나가는 말. 잘린 손과 발이 내지르는 말. 아직 찢기가 가시지 않은 말.”이겠다. 그것은 시가 “-증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해주십시오.”라는 재판관의 말처럼 무심하고 또 “-증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습니까?”라는 질문처럼 집요한 태도를 취하는 덕분에 가능한 ‘들려움’이다.

한편 이런 시 쓰기란 사건성에 육박해가면서도 시를 쓰는 행위 자체에 선적 지향을 품고 있는 것이라서, 종종 시인의 의도를 넘어 도덕을 골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해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당부할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ହି덕의 선량함과 슬픔에의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것’이 되어버린 타인이라는 투의 흔적을 읽기도 하게 되는 까닭이다.¹⁸¹⁾ 세월호의 고통이 이미, 그대로 ‘나’의 고통이 되어버린 듯한 사정을 알게 만드는 다른 표현도 있다. “그래도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굵은 글씨로 강조한 ‘그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갖는다는 것에 유의하라. 점줄의 말들—“증인

181) 물론 여기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나ହି덕인 탓으로, 시인의 이력이 시의 독해의 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겠다.

A”, “증인B”가 견디기 힘들지만 애써,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발화한 흔적 뒤에 붙은 문장으로서(실제 점줄은 8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이 문장은 10연 1행에 해당하지만, 9연의 표현들이 저 침묵들을 언어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모두가 이 참혹을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안쓰러움과 자애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말해야하지 않겠니.’ 같은. 물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턱 저편의 말」이 시인의 바람처럼 저편의 말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 무심해 보일 정도로 사건과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와 열띠게 다가가고 마는 태도, 발화들 사이 어느 순간에서 그의 시는 어쩐지 가까스롭다.

다음은 이시영이다. 진은영은 이시영의 시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글로 지정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고통 곁에서 침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은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곁에 있는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¹⁸²⁾ 즉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시인은 듣는 자, 오직 듣는 자가 될 뿐이다. 이 점을 방증하기라도 하듯, 이시영은 인용한 두 편의 시를 모두 세월호 당사자의 목소리로만 채워 넣는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들은 제목조차 「5월 3일, 뉴스타파」거나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글로 지정함」이었고, 여기에 겹따옴표로 시를 묶은 것은 시인의 사려 깊음이었으리라. 그러면 이시영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를 두고서 화자가 없다고 할 수는 있을까? 이러한 점으로 지시되는 것은 ‘당사자성’의 문제이면서, ‘시인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재현)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오해가 산적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야겠다. 첫째, 당사자성은 보통

182) 진은영, <이시영,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글로 지정함」>, 문학광장, 2018.04.12., <https://munjang.or.kr/archives/277370>.

자신과 텍스트 속 인물, 화자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오해는 화자가 텍스트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하면서도, 실상 선형적으로 요청된 존재자로 가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하지만 화자의 어조, 입장, 태도 따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들은 당사자의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둘째) 이는 재현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가령 세월호를 주제로 한 시에서, 1차적으로 당사자성은 ‘시인’과 ‘화자’의 등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작동하리라. ‘시인 = 화자’라는 식의 접근은 시의 실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겠지만, 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재현을 시인의 인식만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화자의 동일자로서 시인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계속해 강조하는 것이지만, 재현이라는 행위 아래에서 현실을, 실재를 써내기를 시도할 때 맞닥뜨리는 게 질서화의 시간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인의 일정한 약속, 위계 가운데서 구성된 현실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시인의 자기적 이해가 반복되는 것으로서의 재현은 일종의 재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부딪을 때, 이시영은 시 속에 어떤 자기 자신도 개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화자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2014년 5월 3일에 뉴스타과의 인터뷰를, 2014년 9월 19일에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의 트윗을 보면서 그가 생각했을지 모른다. 저 말을 들어야 한다고. ‘들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일종의 확성기로 둔 채, 무심코 무슨 말을 덧붙이지 않기로 한 것에는 이런 연유쯤이 있지 않겠나. 세월호를 두고 시인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물음이 있었고, 이시영은 ‘나’라는 당사자성의 틀에 가두어 발화자의 입장을 마련하지 않는 방법으로, 라고 대답한다.

한편 당사자성에 대한 질의는 시인이 아니라 ‘세월호 당사자’를 향해있기도 하다. 이 경우에도 비슷한 식의 대답이 가능하다. 당사자성이 그 위치가 늘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되는 것처럼 여겨져 있었겠다. 당사자는 ‘선’의 이름으로 독해되어 왔으므로. 이것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변환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위험할

뿐 아니라 해석의 범주를 축소하는 결과로도 이어져 있다. 이 자연한 변환, 착종을 거부하면 된다. 「문턱 저편의 말」이 정초한 위험이 여기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시영은 증언을 ‘그대로’ 남기기를 택했다. 아주 같지는 않지만, 이런 선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사례가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른바 ‘목소리 소설’, ‘소설-코러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착했는데, 그에게서도 관건은 조화롭게 짜인 문맥 속에서 수정되고 편집된 증언이 아니었다. 알렉시예비치의 관심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들은 이야기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이해하려 하지만, 모두 어찌해볼 도리가 없”¹⁸³⁾은 종류의 순간에 있다. 그것을 언어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택한 방법은, 재현의 ‘내부로’ 스며드는 것이다. 눈 여길 부분은 여기 있다. 알렉시예비치가 “도시의 아파트들에서, 시골의 농가들에서, 거리에서, 기차 안에서”¹⁸⁴⁾ 그저 듣기로 할 때, 사건을 제 의미의 맥락 내로 배치하는 경험과 습관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물론 이시영과 알렉시예비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알렉시예비치가 (비교적) 자신의 언어 속으로 향해있으면서 현실에 접촉한다면, 이시영은 어딘가 ‘실어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관련 사례로 나희덕의 시에서 증인들이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즉 나희덕의 작문이 아니라 증인들의 발화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¹⁸⁵⁾)부터 살펴보자. 야콥슨에 의하면, 실어증이란 낱말을 ‘선택’하고 문장으로 ‘결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때 선택은 어떤 단어를 유사성에 의해 다른 단어로 바꾸어놓는 일이라는 점에서 ‘은유’의 문제이며, 결합은 어떤 사물을 인접성에 의해 다른 사물로 바꾸어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유’의

183)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24쪽.

184)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아파트들에서, 시골의 농가들에서, 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나는 듣는다…… 나는 점점 커다란 귀가 된다.”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앞의 책, 23쪽.

185)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27일에 4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증인 김○○, 신○○, 김○○, 김○○ 출석.’ 「문턱 저편의 말」은 이들의 증언을 인용해 작성된 것이다.

문제가 된다. 「문턱 저편의 말」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환유, 인접성 장애의 측면이다. 가령 “-증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증인B”는 “할 말……말이 있지만……그만……그래도……할 말이……해야 할 말이……정신없이……살아나오긴 했지만……우리 반에서……저 말고는……아무도……구조되지 못했……친구들도……살 수 있었을……아무도……저 말고는 아무도……”처럼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말을 습관적으로 따라 한다.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파편적으로 나열된 단어들을 발화하면서 “날말을 보다 고차적인 언어 단위로 형성시키는 구문 규칙을 상실”¹⁸⁶⁾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접성 실어증적 문체는 그것이 문장 성분들의 연결과 관련된 많은 어사들을 탈락시킴으로 인해, 일종의 이미지 범람을 야기”¹⁸⁷⁾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어지는 9연에서 이미지들이 문장 구성성분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문장성분과의 결합에 실패한 채로 개개의 독립적 이미지들로 제시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

이시영이 이와 흡사한 병증을 앓았다. 그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5월 3일, 뉴스타파」와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 글로 지정함」이 은유, 유사성 장애를 병인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양상이 보통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므로 독해에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역시 야콥슨에 의하자면, 유사성 장애를 앓는 환자는 “어떤 단어를 그것의 동의어나 우회적 표현, 또는 이음이의어 heteronym(다른 언어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로 바꿔 말하지 못”¹⁸⁸⁾한다. 특정한 어휘를 다른 어휘로 선택해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곤란을 겪는데, 문학에서라면 이것은 특정 언어를 다른 낯선 언어로 대체하는 작업이 불가해짐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확장해 적용해보자면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시영이 자신의 시를 타자의 목소리로 채워 넣는 행위는 시의 발화 가운데 제 말과 타자의 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186)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106쪽.

187) 김형중, 「오월 문학과 실어증」, 『동서인문학』 제4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79쪽.

188) 로만 야콥슨, 앞의 글, 103쪽.

모르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고, 곧 자신의 실어적 상황 그 자체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이 순간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¹⁸⁹⁾라는 경구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도르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직면하고 있던 것이 ‘언어의 부정확함’과 ‘아름다운 가상에의 거절’이었다는 점을 함께 숙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언어를 초과한 감정, 어떤 사건 앞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 느끼는 무력감을 지적하는 것이겠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약속하지 못하는 (세계의 고통에 대해 보장하는/해왔던) 예술의 행복과 화해의 이행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이었겠다. 것처럼 현실의 부정성은 형용할 수도, 그렇다고 화해될 수도 없다. 손쉽게 제공되는 위안이 있다면, 그건 그럴싸한 모습의 기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접 인용’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고안된 한 방법이다. “시 속에 어떤 자기 자신도 개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사건에 충실하므로, 나희덕과 이시영은 다른 이미지의 선택과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시공간의 경험을 목격하고 보여준다.

1. 3. 생일시

그러나 발화자의 입장을 언제나 특정한 당사자성의 틀에 가두어 수용하거나, 그런 틀 안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위험 등은 여전히 상존한다. 타자에게 자아의 자리를 비켜주는 방법에서 타자를 자아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지는 시들에서 문학의, 재현의 길과 지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저자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받

189) 테오도르 W.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프리즘』, 문학동네, 2004, 29쪽.

아 적었다고 말하는 시들에 대해 살펴보면, <4. 1. 당사자의 시>와 <4. 2. 직접 인용>과 좀 더 다른 시적 재현의 사례들로서 참조해보고자 한다. 정혜신, 이명수의 주도로 세월호 피해 당사자의 말을, 그 육성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리운 목소리로 단원고 아이들이 말하고 시인들이 받아 적는’¹⁹⁰⁾ 시도가 있었다.¹⁹¹⁾ 『엄마. 나야.』의 시들은 전부 그렇게 작성되었는데, 그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당사자, 유가족 등 상처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 ‘상처가 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강박’이라고 불렀고, 이 충동은 자신의 트라우마로 반복적으로 돌아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강박에 대한 유명한 한 예화를 보자.

어떤 아버지가 병든 아이의 침상 옆에서 며칠 밤낮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그는 아이가 죽은 다음 옆방으로 가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의 시신(屍身)이 커다란 촛불들로 둘러싸여 안치된 것이 보이도록 방문을 열어 놓는다. 한 노인이 그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시신 곁에 앉아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다. 아버지는 몇 시간 동을 잠을 잔 후, <아이가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의 팔을 잡고 비탄하듯이 속삭이는 꿈을 꾸다. 《아빠 내가 불에 타는 것이 안 보여요?》> 그는 잠에서 깨어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밝은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노인은 잠이 들었고, 불이 불은 채 넘어진 촛불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의 수의(壽衣)와 한쪽 팔이 타고

190) 예를 들어 시 아래에 “—그리운 목소리로 수인이가 말하고, 시인 성미정이 받아 적다.”(곽수인 외 33명, 『엄마. 나야.』, 난다, 2015, 16쪽.)라고 병기하여 지금 말하는 이가 시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시집의 참여자들은 시 내부에서 복수형 주체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 중 저자로 소개되는 것은 ‘곽수인 외 33명’—세월호의 피해당사자로서 단원고 학생들이다.

191) ‘치유공간 이웃’에서 2014년 9월 27일 안중근 군의 생일을 기점으로 생일모임 활동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 또는 지인 등이 모여 피해자 단원고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생일시 낭독으로 끝을 맺는 형식이다. 34명의 시인이 참여했고, 활동 6년 5개월여 만인 2021년 1월에 문을 닫았다.

있었다.¹⁹²⁾

프로이트는 불빛이 잠든 사람의 눈에 비쳐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에 불이 붙은 것을 추론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붙여,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죽은 아이를 꿈꾼 것은 그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아버지는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해 수면을 한 순간 더 연장한다.”¹⁹³⁾ 다시 말하자면, ‘죽은 아이가 불타는 꿈’이 소원 성취이듯 세월호 유가족의 그것도 소원 성취를 위한 강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최소한 신형철에게서는 그런 듯했다. “이 꿈은 고통일 테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는 일은 그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다. 2년 내내 그러했으리라.”¹⁹⁴⁾

‘치유공간 이웃’ 활동으로, 특히 피해자 단원고 학생들의 생일모임으로 그 곁을 오래 지켜온 이영하는 한 인터뷰에서 “어머님들 대부분 검안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 그때 보았던 아이의 모습과 장례 과정을 무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¹⁹⁵⁾라고 소회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에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이들의 애 닳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잠시 기갈을 면했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 반복 강박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허용’되는 공간일 때, 가까

19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숙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593쪽.

193)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594쪽.

194) 신형철, 「2년 동안의 꿈」,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문학동네, 2018, 36쪽.

195) 원문을 밝혀 옮긴다. “이영하 대표 : 어머님들 대부분 검안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가 처음 물에서 나왔을 때, 아이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그 장면, 아이를 찾기가 애가 탔던 과정을 얘기하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몸에 어떤 반점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확인하던 일, 전광환에 뭐가 뜰 때마다 내 아이인가 싶어서 쫓아갔던 일들. 그때 보았던 아이의 모습과 장례 과정을 무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느리게 장면이 흘러가는 영화처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에게서 났던 냄새, 그때의 소리, 울부짖는 나를 잡아주던 손의 느낌, 까무룩 기절하던 순간의 전등 불빛까지 세밀하게 떠올리면서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원활동가들은 다 외울 정도예요. 누구 어머님 아들은 언제, 또 누구 어머님 딸은 며칠 만에 나왔는지, 누구는 까무라치셨고. 뭐 그런 것들이요.” 류란, <[취재파일] ‘이웃’이 문을 닫는다 (1)>, 스포츠뉴스, 2021.01.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8638.

스로 “통증이 아니나 그리움으로 기억”¹⁹⁶⁾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트라우마에 의한 반복이 상기시키는 게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기를 바라며 쓰인 이 시들은 그 목적 때문에 “시라기보단 어떤 이야기, 죽은 아이가 부모님께 “나 여기서 잘 있어요”라고 말하는 편지에 더 가깝”¹⁹⁷⁾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인상은 생일시 창작에 참여하는 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면 서¹⁹⁸⁾, 그래서 육성의 생생함이 실로 중요하였고(이 활동 자체가 낭송을 통해 한정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시의 당사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이를 위해 유가족 등이 자신의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기 등 갖은 자료들을 시인에게 전달했으나, 그렇다고 한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게 그리 쉽게 성취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엄마. 나야.

모두들 내 생일 축하하러 온 거, 맞죠?
따뜻하게 입고 온 거, 맞죠?

196) 광수인 외 33명, 위의 책, 4쪽.

197) 인용한 내용은 오은의 인터뷰. 주혜진, <[세월호 3주기, 문학의 자리를 묻다①] “희생자 ‘생일시’ 쓰며 시의 힘 믿게 됐다”>, 북DB, 2017.04.14.,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77683.

198) 시인들은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쓰고 말한다. 다음에 인용한 글은 이 양상을 잘 드러내는 일화로, 박성우, 김민정 시인의 인터뷰다. “이름도 비슷한 박성호 학생의 생일시를 쓴 박성우 시인도 “평소 안 마시던 술을 마셔야 했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게 썼다”며 “그렇지만 시를 쓰고 난 뒤 성호 어머니와 여러번 문자를 주고받으며 성호를 대신해 위로해 드리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제훈 학생의 생일시를 쓰고 이번 시집을 책으로 내기도 한 김민정 시인도 “시를 쓴 뒤 제훈이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제훈이 정말 잘 있어요?’라고 물으셔서 ‘그럼요, 완전 잘 있어요. 환해요!’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전화 통화 뒤 어머니가 기운을 내서 전국을 다니며 봉사를 하시는 등 아주 좋아지셨다고 들었고 나 역시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최재봉, <세월호 아이들이 말하고 시인들이 받아 적은 ‘생일시’>, 한겨레, 2015.12.1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22448.html>.

바람.
 구름.
 빛.
 더러워질 줄 모르는 것들.
 여긴 그래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하고
 야구공의 포물선이 까마득하게 아름다워요

캐치볼을 하고 기타를 치고 책을 읽으며
 부푼 꿈을 꾸고 또 꾸어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하루.
 25시간보다 훨씬 더 긴 하루.
 하루와 하루가 찰랑찰랑 잠 없는 꿈처럼 이어져서
 모든 시간이 그저 하루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여요.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내가 없는
 나의 생일까지.

갓난아기인 나에게 살며시 다가옵니다.
 아기는 엄마 심장을 빼앗은 줄 알고 겁이 나서 막 울고 있어요.
 세상에 나와 힘차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엄마 심장은 물에 잠긴 듯 가만히 멎어 있으니까.
 아기는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기다려요.
 겨우 깨어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아기는 또 막 울고 마네요.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두근두근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하루가 다르게 소매와 바지가 썩충해집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 됩니다.
 다감한 엄마 덕분에.
 묵묵히 울타리가 되어준 아빠 덕분에.
 든든하게 곁에 있어준 형 덕분에.

엄마. 미안해요. 좀더 살가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등이 따뜻하도록 뒤에서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 나는 괜찮아요.
 우진이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아.
 눈을 감은 채 박효신의 새 앨범을 듣기도 해요.
 구름 한 조각을 빈자리에 끼워넣어 퍼즐판을 완성한 다음
 야호,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요.

형, 알지?
 내가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내 곁에서 나보다 조금 먼저 세상을 느껴줘서
 못다 한 나의 수학여행을 대신 다녀와줘서
 얼마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 안 해도 알지?
 꿈속에서도 알지?

바람.
 구름.
 빛.
 여긴 그래요.
 바람은 엄마처럼 부드럽고
 구름은 아빠처럼 두둥실 떠 있고

빛은 형처럼 환해요.

커다란 곡선을 그리며 날아와 나의 글러브 안에 착 감긴 야구공에는
짧은 편지가 적혀 있어요.

<내 아들 호연아,

16년 5개월, 짧지만 아들 땀에 참 많이 행복했다.

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해.>

저도 고마워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형, 나의 친구들이 되어주어서.

나의 16년 5개월이 되어주어서.

아직도 가슴 벅찬 꿈을 꾸어요.

노래와 야구와 달리기와 책을 좋아하는

멋진 하늘의 경찰이 되는 꿈을.

땅과 바다의 경찰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가 먹고 싶어지는 계절

오늘은 나의 열입곱번째 생일.

따끈한 미역국 냄새가 여기에도 가득 퍼져요.

귀빠진 날이라고 우진이는 내 귀를 바짝 당기며 싱긋 웃네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생일에는 활짝 웃는 게 좋잖아요.

내 손가락으로는 눈물을 닦아줄 수 없잖아요.

밝고 환하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여기서 나는 그 노래에 맞춰 기타로 반주를 할게요.

숨을 가득 모아 촛불을 불어주세요.

그 입김에 나의 숨결이 섞여 있을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애타게요.

그럴 때는 살짝 고개를 돌려 옆을 봐요.

내가 팔짱을 끼고 있을 테니까.

바람.

구름.

빛.

더러워질 줄 모르는 것들.

나는 그렇게 곁에 있을 테니까.

—그리운 목소리로 호연이가 말하고, 시인 신해욱이 받아 적다.

김호연(신해욱), 「바람과 구름과 빛과 호연이와」 전문¹⁹⁹⁾

인용한 시 「바람과 구름과 빛과 호연이와 부분」에서 ‘호연이’로 상징되는 목소리에 깃든 것이 같은 지점의 어려움이다. 시는 호연이가 좋아했으리라고 추정되는 것(“빵”, “야구”, “기타”, “책”, “노래”, “달리기”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동원해 “나”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까마득하게 아름”다운 곳에서 거하여서 현실의 사람들을 향해 발화하고 있다 하더라도(즉 그곳이 이른바 천국 일지라도), 이와 별개로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내가 없는/나의 생일까지” “한꺼번에 다 보”이는 일들이 정말로 ‘나-호연’이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발화 주체로 가정된 것은 ‘나-신해욱’일 수도 있고, 또 ‘나-엄마(또는 다른 유가족의 기대)’의 그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목소리가 상존한다, 라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 이는 발화자를 교차하고 있는 목소리가 여럿으로 확인되므로 시의 “나”가 곧 ‘김호연’이라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199) 김호연(신해욱), 『엄마. 나야.』, 난다, 2015, 106~110쪽.

시인은 ‘김호연-되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하는가?

분명히 시의 다성적 목소리를 분별해내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하지만 독자가 ‘단원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쓰인 육성 생일시 모음집’이라는 표제를 의심 없이 수긍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²⁰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화자의 목소리 가운데 최소한 11월 26에 태어난 단원고 2학년 4반의 호연이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신해욱과 유가족이 어렵게 공유하고 있었을 사실들이 있겠다. 신해욱이 전해 들은 자료와 같을 순 없지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의 ‘아이들의 생일’란에 게재된 <11월 26일이 생일인 4반 김호연을 기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호연의 기억과 호오 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일부를 발췌한다. “호연이는 하고 싶은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보여 고교 야구 선수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기타와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었습니다.”²⁰¹⁾ 이 같은 사실을 진실로 발화하기 위하여 신해욱이 피해야 하는 것은 이성의 쇠락이다. 시의 화자는 일차적으로 그를 기술한 시인 자신일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고집한다면 시인의 발성 속에서 유지되는 언어적 질서가 호연이의 삶을 편집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화자는 타자에게 시적 주체성을 양도하여, 다른 존재가 되는 실존적 기투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때 사회의 규율이 ‘아닌 방식의 규율(윤리)’을 따르는 가운데 호연이의 시간을 ‘겪은’ 존재로서 시적 화자는 발생한다.

“우진이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아.”라고 말할 때 호연이가 친구들과 맺었던 관계가, “눈을 감은 채 박효신의 새 앨범을 듣기도 해요.”라고 할

200) “‘단원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쓰인 육성 생일시 모음집’인 이 시집의 표지에는 ‘그리운 목소리로 아이들이 말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인들이 받아 적다.’라고 써어 있다.”(이경수, 「현실 접속의 실재와 가능성」, 『서정시학』 통권 제69호, 계간 서정시학, 2016, 21쪽.) 이처럼 독자는 시를 쓴 이들이 34명의 시인들임을 알면서도, 이 시들의 발화자, 저자를 단원고 학생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201) 416가족협의회, <11월 26일이 생일인 4반 김호연을 기억합니다>, 2017.11.27., https://416family.org/index.php/remember-n1/?board_name=remember&search_field=fn_title&search_text=%EA%B9%80%ED%98%B8%EC%97%B0&vid=248.

때는 호연이의 취미가, “형, 알지?/내가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라고 할 때는 그들의 우애가, “<내 아들 호연아,/16년 5개월, 짧지만 아들 땀에 참 많이 행복했다./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해.>”라는 구절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맺고 있을 사랑의 관계가 구체화되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다. “생존자가 없기에 ‘죽음/죽임’의 당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건의 기억”은 발화 자체가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하지만 이성적, 자발적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목숨을 건 기투, 생일시에 참여한 오은의 표현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보는 체험”²⁰²⁾을 통해 불가능한 발화의 조건은 충족된다. 그러니 여기 말해지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기억으로서 실재의 순간이 되며, “‘지금 여기’ 시의 시간에 존재하는 ‘우리-나’”²⁰³⁾로서 사실성에 발 딛는 무엇이라고 하겠다.

앞의 이야기는 조금 더 확장 시켜 말할 여지가 있다. 김호연-되기에 신해욱이 실패하는 지점이 있다면 자아의 단일한 목소리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순간에 김호연이라는 시선의 단일성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의 지식체계에 의해 말할 수 없던 것이 나타나고, 이를 재현하는 양상 중 다수가 기존의 법칙성 내부로 공백을 다시 편입하고 있었다. 살펴보았듯 이 까닭에는 사유의 명확한 근거로서, 일종의 원본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하는 힘이 있다. 정치적 무의식, 자아…… 이들에 의해 반복되는 것은 동일화의 오류다. 바뀌서 말하면, 시적 화자의 단일성을 강조할수록 사건의 이질성이 격감된다는 소리다. 때문에 이질적인 사건의 출현에 있어, 이것의 유지는 치안적이거나 서정적인 방식 이외의 것으로 추구되어야 할 듯하다. 이 점을 「바람과 구름과 빛과 호연이와」는 방증한다.

다른 생일시들에서도 비슷한 독법을 일괄 적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생일시는 죽은 단원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지만, “트라우마에 의한 반복이 상기시키는 게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기를 바라며” 쓰이기도 했다. 둘은 반드시 양립되는 게 아니다. 정슬이와 허수경의 시를 보자.

202) 오은,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매년 태어나야 해」, 『실천문학』 통권 121호, 실천문학사, 2016, 111쪽.

203) 함돈균, 「불가능한 몸이 말하기」, 『창작과비평』 169호, 창비, 2015, 435쪽.

수경 이모랑 며칠 동안 같이 놀았어요.
수경 이모는 독일이라는 먼 곳에 살아요.

이 나라에 너도 오고 싶었을지 몰라.
여기에도 네가 좋아하는 음악, 춤, 연극 들도 있고
아름다운 성도 있고
대학, 도서관, 박물관, 화랑,
네가 어른이 되면 다 보고 싶었을 것들.

수경 이모는 울었어요.
자꾸 울어서 제가 말했어요,
수경 이모,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울지 마세요.

그제야 수경 이모는 눈물을 닦았어요.
식구들, 보고 싶지? 물었어요.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삼촌, 한결이, 친구들,
은율이, 소율이 다 데리고 와서
이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소시지도 먹고
라인 강, 로렐라이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오늘은 내 생일.
19년 전 내가 태어난 그날은
할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했지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생일은 조금 특별한 날이razio.
 특별한 날이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은 날.

이제 식구들 옆에 있고 싶어서
 수경 이모 떠나서 왔어요.
 다른 말은 못해도 이 말만은 꼭 하려고요.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슬(허수경),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204)

이 시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은 “수경 이모”라는 이름으로 시의 전면에서
 노출되는 시인의 모습에 있다. 바로 앞의 시 「바람과 구름과 빛과 호연이와」에
 서, 아니 다른 『엄마. 나야.』의 시들에서, 또는 앞 절인 IV장 <2. 직접 인용>에
 서까지도, 즉 유가족 등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한 시인 자신이 노출되는 경우
 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의 기획은 여타의 것들에 비해 특이한 것처럼 보
 였다. 이것의 이유에 물론 허수경이 시인으로서 정서적, 공감적 역량이 탁월한
 것, 또 그에게 생일시 청탁이 주어졌던 탓이 있겠으나, 그보다는 유가족이 ‘했어
 야만 하는’ 추모과정을 그가 ‘대리’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적절한 대답으로 보
 인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추모기억 체계를 언어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용되
 는 언어가 다르고 이에 의해 구축되는 기억망이 역시 다르다는 논의가 있다. 이
 완수와 최명일의 연구가 그것인데, 「가족이 기억하는 죽음, 기자가 기록하는 죽
 음」에 의하면 “죽음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죽음이 어떤 언어로 선택, 강

204) 박정슬(허수경),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야.』, 난다, 2015, 120~121쪽.

조, 재현”²⁰⁵⁾되는지가 다르며, 이때 “유가족들은 추모과정에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망자와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슬픔을 회복하고, 상실감을 줄여 나간다.”²⁰⁶⁾ 이를 참조하면 시적 화자는 유가족들과의 유대 속에서 망자의 삶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몇 가지 사실들을 기초로 “정슬이”의 삶을 재구성한다. 먼저 “정슬이”의 생일이 할아버지의 생일이기도 하여서(“오늘은 내 생일./19년 전 내가 태어난 그날은/할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했다지요.”), 생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은 날”이라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수신자의 위치를 특정짓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삼촌, 한결이, 친구들,/은율이, 소율이” 모두가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의 수신자들로 호출되는 이유다.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와 당부를 전하는 것으로 시의 내용은 이어진다.

그리고 이 기억의 장이, “수경 이모”와의 인사 이후 단일하게 유지되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 또한 함께 특기할 만하다(“이제 식구들 옆에 있고 싶어서/수경 이모 떠나서 왔어요.”). 어째서 두 화자가 등장하고, 또 둘은 하나로 나타나는가. 우선 의심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구절 이후 서술되는 “정슬이”의 ‘전언’이 사실 허수경의 그것이라는 점이다. “수경 이모”는 상술한 것처럼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정슬이”의 목소리를 길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삼입된다. 이후 시의 화자가 남기는 전언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수경 이모”와 작별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수경 이모”를 투과함으로써 “정슬이”는 자기의 것이 아닌 성질을 얻는다.

한결아 친구들아.

우린 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205) 이완수, 최명일, 「가족이 기억하는 죽음, 기자가 기록하는 죽음」,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21, 484쪽.

206) 이완수, 최명일, 앞의 글, 487쪽.

잊지 말자,
 나는 영원한 네 친구, 정슬이야.
 사는 게 힘들 때 나를 부르렴.
 나, 금방 너희들 곁에 서 있을게.

박정슬(허수경),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²⁰⁷⁾

무엇보다 눈 여겨야 할 부분이다. 생일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단행권으로 묶여 나왔지만, 허수경의 시는 신해옥의 그것과 다르다. 신해옥이 호연이의 시간을 힘겹게 겪고 타자의 존재를 증언하는 반면, 허수경은 “정슬이”의 목소리를 자신의 도덕적 기준 내부에서 재구성하는 듯 보인다. 가령, 죽은 자의 존재에 대한 증언이 이 폭력을 잊지 말아 달라는 약속으로 뒤바뀌어 있을 때 그렇다. “우린 잊으면 안 된다./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잊지 말자” 다짐받았으므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 때”, 그 어느 날 세월호를 상기시키는 비슷한 사건의 앞에서 “우리들”은 “정슬이”를 부르도록 된다. 그러나 불러일으켜 지는 것은 도덕적 규율의 반복이다. 그러하더라도 정슬이의 식구들을, 그들의 삶을 좀 더 정상의 범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무용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르다. 이러한 설명으로도 무언가가 부족하다.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허수경이라는 자신이 시에 드러날 필요 등은 어디에 있을까? 또 “정슬이”가 생각하는 존재로 “수경 이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도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다. “정슬이”와 “수경 이모”의 목소리가 시의 1~5연을 가로지를 때, “수경 이모”는 “정슬이”로 가정된 시적 화자의 목소리 다음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의심들 속에서 해석의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정슬이”의 존재를 현시하기 위해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 맞아떨어만 하는 고초, 타자의 불가능성을 규정하고 마는 것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어떨까. 11연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되더라도 내용 등 어떠한 이상이 없을 구성이라

207) 박정슬(허수경), 앞의 글, 126쪽.

는 점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굳이 ‘나(허수경)’를 삽입하면서, 시는 이 글의 소설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독자가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식의 글쓰기는 왜 이렇게 시도되는가? 짐작하건대 ‘나’의 인식적 토대, 사고의 무의식적 흐름을 잘 털어낼 수 없다는 이유가 있겠다. 사실 타자로의 수행이란, 그것과 이물감 없이 접합되어있는 자아의 존재 때문에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살펴보았듯 많은 궁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서도 재현의 위험은 상존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위험성을 적시하는 게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나’라는 화면을 구성하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상징적 질서의 장악력의 무화와 강화가 동시에 가리켜진다는 문제가 있다. 윤리적 위험은 돌파되는 동시에 저지된다. 「‘저 정슬인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1)“수경 이모”가 생각하는 “정슬이”와, 2) “정슬이”가 생각하는 “수경 이모”의 목소리가 교차되어 나타난다고 정리해보자. 이것이 이중의 덧을 가설한다. 가설된 것은 자아의 시선에 의한 타자의 포획이라는 면에서 ‘이중의 월권’으로 작동하거나, 타자의 시선에 의한 자아의 무화라는 면에서는 ‘이중의 돌파’로 나타난다.

상징 질서적 편집 능력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시들은 자신의 말을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세월호 ‘체험’이라는 것 내에서 현시될 수 있도록. 재현 불가능한 것들이 추구, 겨냥될 때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어떤 시들은 이를 자신의 증후, 어떤 징후 가운데 드러나도록 했다. 그렇다면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란 시인의 몸으로, 병증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엿보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아의 역할을 최소화시킨다기보다, 그것의 자리를 전면에 노출시킴으로써 시는 해석의 곤경에 처한다. 하지만 이 위험이야말로,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 자체를 가리킨다. 허수경의 시는 독자를 자꾸 과정에 머물도록 한다. 타자성이라는, 자아라는 결과가 아닌, 이를 구분짓기 전의 과정에서 사건의 실재 중 하나로서 모든 말들은 배치되는 것이다. 이후 허수경의 시에서 독자가 읽는 것은 세월호를 마주한 자신의 윤리다.²⁰⁸⁾

208) 한편 생일시의 시도 자체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부기한다. 사건성이 휘발되기 전 당사

2. 타자의 표정

그런데, 이런 시적 실천들과 III장 <3. 2. 서정으로의 재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신철규, 김중일, 신용목의 시가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언어에 매개되어있는 한 실재에의 편집이라는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면 두 부류의 사정이 썩 달라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호의 시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도 없었다는 의미로 수렴하는 것은 또 아니다. 재현 불/가능성을 오가면서 명백해지는 것은, 이 물음의 귀착점이 재현의 수량적인 척도일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재현 형식의 실험이 곧 재현-윤리에의 물음이라는 점에 더 유의하게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자를 대리하는 시들이 취하는 태도는 사실 ‘비윤리적’인데, 이것이 좀처럼 의식되지 않는다. 사전에 피해유가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와 삶을 발화해야만 한다는 사실 등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보통 당사자의 말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할 준비가 된(본인의 동의 하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를 받아적는 형식을 취한다. 가장 흔한 사례가 녹취다. 하지만 생일시들은 “아이의 시선으로 쓰는 ‘육성시’의 형식”(곽수인 외 33명, 『엄마. 나야.』, 난다, 2015, 4쪽.)을 갖고 있다. 타자의 목소리를 대신 말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죽은 존재가 그 대상이다. 이때 당사자성이 마치 시인, 또는 피해유가족에 의해 부여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반감이 생성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실천은 흔히 지적하는, 오인된 당사자성이라는 것과는 다른 층위에 있다.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순간 체험의 배타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당사자/비당사자라는 식의 이분법 속에서, 물론 당사자의 경험을 보편화하는 전략이 일정한 성취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논리가 특정 영역의 정당성만을 보장할 경우 이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당사자 이외에, 즉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다른 타자로서 목격자 등이 발언할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타자와의 상호 이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는 생일시라는 시적 실천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존재의 목소리를 어떠한 결함을 무릅쓰고 들려오게 함으로써 타자를 타인으로 전유하는 자아중심적인 자발성에 의문을 가하는 것이 생일시다. 따라서 발화 불가능한 존재의 목소리를 독점적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식의 논법으로 생일시 일반을 곧바로 지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알다시피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실천에 가깝다. 허수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실재는 언제나 ‘대리’라는 형태로 재현된다. 물론, 그러니 어떤 것도 재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상징질서 아래에서 잉여, 소음으로 규정되는 어떤 목소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들은 재현의 격자를 통과하지 못한 것일 뿐, 그 실체는 어디에선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현 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건너뛸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사건에 이르러, 사건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윤리 탓에 새롭게 분배되는 감각의 질서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고 하자. 재현 불가능한 것이 재현되는 가능성의 순간, 주체화의 현전이다. 이론적으로는 사건에 충실하므로, 감각의 재분배에 따르므로, 재현 불가능한 것들이 재현으로 일어나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사건을 포위하는 상징질서의 계속된 포위망을 또 끊임없이 뿌리치기란 실로 벽찬 구석이 있다. 드러난 존재를 언어로 옮겨올 때, 이미 위험은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란 시도 앞에서 다시 가능하게 되는 점은 재현된 것이 정말 실재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편으로 기울지 않는다. 기울어지는 게 있다면 윤리적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재현-윤리에 입각해 그것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있을 것이다.²⁰⁹⁾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의식으로 언어를 고르지도 않고, 오로지 ‘대상’을 생각하고, 이 마음이 읽는 이에게 잘 전달될까를 고민하는 글쓰기요.”²¹⁰⁾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아직 말한다. 사건 속 타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한, 이를 받아적는 작업이 계속해 전개되고 있다.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다음의 조건들을 승인한 한에서일 것이다.

209) 세월호 이후의 시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이라는 작업을 수행할 때, 물어야 하는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1조건으로서의 윤리에 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도 재현-윤리를 탐문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210) 김소연, 신혜옥, 박연준, 박준, 김민정, 「[좌담] 엄마. 나야.」, 『문학동네』 통권 83호, 문학동네, 2015, 543쪽.

무언가 강제하고 그래서 폭력이 되는, 확고한 권위와 표현들을 넘나들면서. 어느 순간에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던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가 그곳에 스스로 자리 잡게 되는 방식으로. 타자에 대해 더 민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므로 꾸준히 윤리적 감각에의 지배를 철회하면서. 이 지점에서 강조되고, 특기할만한 현상이 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연준이 “이 마음이 읽는 이에게 잘 전달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오로지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겠다. 이 새로운 변화가 타자에 대한 다른 감각을 ‘상시적인’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미적인 것의 골몰과 다르게, 세월호 이후 펼쳐진 중심성의 해체라는 전략은 문인‘만’의 결론이 아니게 되었다. 세월호라는 사건 이후 불안들은 더 쉽게 마주쳐졌으며, 시인들에게서도 참사에 관한 부분이 선동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무기력함과 우울함 등이 기저에 깔린 듯한 모습은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변화였다. 타자성에의 응시는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주관하는 차원 너머에서, 피부가 맞는 코앞의 현실에서 비롯되므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되어있다.²¹¹⁾ 이 지점에서 황선희는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정다연의 「산책」에서, 세월호를 통과해 나타나는 흔적으로서 “두 개의 무력”²¹²⁾을 지적한다. 하나는 감정, 고통이 주관적이라는 고정관념의 무력화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에 대한 위로가 무력해지는 순간이다. 이때 그가 무척 자연스럽게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슬픔은 사적인 것이 아니게” 되는, “슬픔과 고통의 당사자성이 이렇게 무력”해지는 게 ‘한국 사회 일반’에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²¹³⁾

참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누구의 삶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물속에 가라앉은 타인들이 ‘나’의 얼굴에 다름 아니게 되는, 세월호를 말하

211) 그래서 목소리를 변환하는 컨버터로서 언어가, 가정 주파수 이하, 이상의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커서 들리지 않을 때 이를 들리게 만드는 과정이자, 동시에 일정한 의도 아래 그를 가공해버리는 심급으로서의 기능들이 한층 예민하게 의식되기 시작한다.

212) 황선희, 「포스트휴먼—팬데믹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통권 44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22쪽.

213) “시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그날의 충격은 ‘옆’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황선희, 앞의 글, 22쪽.

는 일이 자칫 자아의 목소리만으로 뒤덮이는 이유다. 그런데, 이 얼굴 속에는 ‘너’의 얼굴도 깃들여 있다. 세월호가 특이한 지점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타자의 비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이도록 해왔다는 데 있다.

5.18도 오래 이야기되어왔지만, 세월호 담론이 이끄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5.18은 특정 지역, 연령대, 장르, 또는 이해 속에서 편향적으로 그것의 ‘정치성’을 이야기하기를 지속했다. 반면 세월호를 둘러싼 의미망은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없다.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뒤바뀐 ‘매체’의 조건 때문도 있겠다. 이외에도 1980년대와 달라졌거나, 다르게 생겨난 무수한 기준들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들 덕에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국민’이라는 수준에서 인지되고 있고, 이들이 어떤 각각 ‘반응을’ 내놓는다. 세월호를 환기하는 작업과, 여기에 대한 ‘전 세대의 비/동의’ 속에서 감론을박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5.18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냈던 게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것이 ‘슬픔’을 사유하도록 만든다.

“담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곳”²¹⁴⁾으로서 ‘슬픔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고 하면 어떤가. ‘4.16 기억저장소’처럼 실체를 갖는 장소는 중요한 사유의 거소이다. 세월호 사건이 촉발한 정동적 흐름이 4.16 기억저장소로 수렴하는 단일한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²¹⁵⁾, 세월호 사건의 흔적들을 유형적으로 간직함으로써 세월호에 접속할 수 있는 일반의 경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또 ‘304 낭독회’를 보라. 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명령 앞에 희생된 304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 ”계속해서 오늘에 그날을 포개어

214) 아를레트 파르주, 앞의 책, 55쪽.

215) “국민 대다수가 두 눈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혹은 직접 그 현장에서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그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권력에 의해 부정되는 상황, 즉 ‘기억학살(memoricide)’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은 자율적인 기록활동을 수행했다.”(이경래,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4호, 한국기록학회, 2022, 25쪽)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4.16 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는 마치 세월호에 대한 최종의 실천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세월호를 목격한 사람들의 발성은 생일시로도, 304 낭독회로도 기록, 기억된다.

놓”기 위해 “각자의 문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²¹⁶⁾

그러던 어느날,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 결국 택시를 잡아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아저씨, 안산올림픽기념관으로 가주세요”라고 했어요. 얼마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를 말리며 말씀 하셨습니다.

“그냥 가.”

당황해서 아저씨를 바라보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단원고 학생이지? 내가 택시기사라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태워 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 힘내고 학교 잘 다녀라.”

유가영, 성현아(낭독),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부분

이끼 같은 그리고 양쯔강 돌고래 같은
 빛나는 표정
 어제로부터도 오늘로부터도 오지 않은
 빛깔들의 움직임
 강렬한 빛

지나간 시간의 무질서
 밤을 없애기 위해 나는
 어제 산 자들 사이에서
 내일의 죽은 자들 사이에서
 깊은 꿈과 깨어남에 저항하여
 내 모든 잠을 걸었지

폴 엘뤼아르(조윤경 읊김), 안태운(낭독), 「우리의 해(年)와 용기」 부분

개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른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216) 백세 번째 304 낭독회 「빛을 가져오는 사람」 중 <낭독회를 시작하며> 부분을 참조하였다. 낭독회는 시작된 이래로 줄곧 이 실천의 이유를 명기해왔다.

사실 다들 잘 모른다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지금부터 믿어버릴 것이다
 그 영혼의 고통을 모를 리가 없다고
 며칠 내내 눈앞에서
 숲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말해버릴 것이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끝말잇기를 한다
 사람 이름은 안 된다
 나라도 안 된다

들어가자
 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현지, 「하나의 문만 열린다면」 부분²¹⁷⁾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고, 글(시, 소설, 에세이, 수필 등의 창작과 발췌), 낭송, 노래 등 꽤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그날의’ 슬픔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접속의 경로는 다양해서 지금(백세 번째 낭독회 기준, 2023년 5월 25일)에 이르러서는 단원고 학생의 겪은 어느 날의 기억을 가져와 대독하는 것,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시를 지금 읽는 것, 어떤 죽음의 경험을 통과해 쓰인 시를 세월호라는 맥락에 대어보는 것 등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낭독이라는 실천들이 이접하면서 더 ‘커다란’ 집합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선 304 낭독회가 갖는 ‘집회’의 성격과, 이것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정혜

217) 인용문들은 백세 번째 304 낭독회 「빛을 가져오는 사람」의 원고를 부분 발췌한 것이다. 작성자와 낭독자가 다른 경우 ‘이름(낭독)’의 형식으로 별도 표기하였다.

육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가능성을 고찰하면서 “집회의 집합적 주체는 기존의 상징질서를 뒤흔들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새로운 상징 질서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²¹⁸⁾고 말했다. 집회, 집회의 주체는 ‘아직-아닌’의 방식으로만, “그 정의상 어떤 법적 양식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²¹⁹⁾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혼돈의 상태가 ‘이상’과 결합하여 물질화된 담론으로 구축할 때, 집회는 ‘혁명’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재탄생한 것은 집회라는 양식과 유리되어 있다. 집회는 본성상 사회질서에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 텐데, 촛불혁명은 다음 정권으로의 안정적 기입을 요구하기에 그렇다. 그러면 촛불‘집회’가 갖고 있던 불건전하고 이질적인 동력은 모두 소진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304 낭독회는 촛불집회처럼 대규모로 나타나지 않아서 집합적 주체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호명되지는 않지만,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정되지 않고 합치되지 않은 몸들의 목소리가 교동하게 하면서 집회가 갖는 문제적 특징들을 보존해왔다.

이러한 결과가 304 낭독회의 의도 아래 전개되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 집회의 참석자들이 상당 부분 일반인으로 구성되었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복수적인 몸이 대중 일반에게서 긍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읽는다. 세월호에 대한 ‘여러 말들’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통해 세월호의 다른 모습들은 감지된다. 세월호에 대한 타인들의 기억이라는 이질적 집합속에서, 타인이 ‘나’의 거울이 아니라 타자로의 입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304 낭독회를 보거나 들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월호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접해가면서.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슬픔의 한계들을 갱신해가면서. 타인의 슬픔으로부터 외부자인 내가 언제나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와 ‘그’가 언제나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은 부각된다. 그러므로 슬픔을 생각할수록, 다른 감정들보다도, ‘자신’이라는 관념을 추궁하는 힘에 대해 의식할 수 있다. 자신을 추궁한다는 것은 ‘타자’를 끌물한다는 말이기도 하겠다. 슬픔, 자아,

218) 정혜욱,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비평과이론』 통권 44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8쪽.

219) 정혜욱, 앞의 글, 8쪽.

주체, 타자를 말하는 일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은 이제 시대의 소양인 듯싶다.

그로써 전개되는 다양한 발화의 벡터 속에서 시인들 또한 여전히 세월호 사건의 재현 불가능한 순간을 제 몸으로 겪어내고, 이를 반출시키고 있다. 반출된 것들은 거리에서, 어딘가에서 낭독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여러 반응이 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타자를 ‘생각하는’ 힘이 지속될 수 있겠다. 문학의 소임이 여기에 있다. 이 슬픔들로, 자꾸 무언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에.

V. 결론

이 연구는 “세월호 이후에 발표된 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곱따옴표로 표기한 문장 내부에는 몇 갈림이 있는데, 첫째, 세월호 이후의 문학 일반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시라는 장르에 초점해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를 서론을 할애해 설명하였다.

둘째로 세월호 이후에 발표되었다 함이 세월호를 대상으로 쓴 시와, 세월호를 지나 또는 통과해 쓰인 시라는 범주를 모두 아우르며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와 후자는 대부분 겹쳐져 있지만, 그것이 둘의 상동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간략히 말해, (전자의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이 대상으로 축소될 때 시는 이를 하나의 소재로 소비한다. 많은 시들이 이러한 한계에 부딪어 좌초되고 마는데, 그것은 발화 주체가 참사의 슬픔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시 쓰기가 시도될 때 세월호의 타자성, 실재를 한 시적 소실점 아래에서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러한 서정의 독법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립이라는 측면을 함께 거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시는 세월호를 치안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 가운데서 재현하며, 때문에 재현이라기보다 재생에 어울리는 특질을 보유한다.²²⁰⁾

언어를 초과한 거대한 감정이 있었다. 이를 시스템이 제어하고 관리한다. 익히 알듯, 그게 추모‘식’이다. 우리의 반응은 익숙한 형식 내에서 표출될 수 있었고,

220) 위의 설명이 연구의 중심을 통어하면서도 시점을 어느 한 경향으로 매몰시키는 듯한 구석이 있어 조금 덧붙인다. 서정시는 자아의 시선 속에서 세월호를 구축하는데, 독자로 하여금 한참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서정시는 서정 나름대로 치유 등 그 역능을 전개해가고 있으며, 다만 이 글이 재현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분류되지 않은 다른 재현의 양상을 주목하는 까닭에 다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사건성이라는 것과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세월호라는 사건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던 문학의 해석들이 얼마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재현이라는 신화 앞에서 그것의 기율을 들여다봄으로, 우리는 사건과 재현 사이의 ‘일정해 보였던’ 경로를 이탈해 그것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관례적인 애도가 낱낱이 쪼개어진 삶을 순식간에 정상의 범주 내부로 끌어들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이 시간이 갈수록 더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전쉬이 잊히고 마는 이유다. 이러한 중력을 감각은 따른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슬픔의 표현에 의심이 필요하다. 한편, 자신의 슬픔에 ‘만’ 몰두한 글쓰기에도 의심이 필요하겠다. 목격하 사건 슬픔은 제 것이 아닌데, 어떤 이들은 제 슬픔의 지경에서만 그것을 출력했다. 이상스럽지 않은가. 타자의 목소리를 옮겨 온다고 할 때, 이를 배치, 편집하는 과정에서 발화 주체의 의도가 자기에게로 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것들. 이러한 경우를 시적 소실점에 의해 운용되는 행위로 규정했고(서정), 그것이 이전 세계의 반복을 지시하도록 할 때 ‘규범적인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²²¹⁾

이곳의 자아가 확정한 타자의 세계로 가는 것에 어떤 새로움은 없다. 세계를 관측하는 시선의 깊이가 있을 뿐. 그러나 이것이 아주 무용한 일만은 아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시선 속에서 이것의 역사성이 몰고 가 당도하는 곳에서 목격하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이유가 있고(재난, 폐허 이후에 시도된 윤리적 분투라는 지점에서), 다른 하나는 이에 의해 상기되는 ‘욕망’의 측면에 있다.

후자에 부연이 필요하다.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물의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언어다.²²²⁾ 그래서 언어적 질서를 통해 필요한 것들은 ‘요구’된다. 이때 요구는 본능적으로 찾아지는 것으로 생물학적 ‘욕구’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욕구가 요구를 통해 충족되기를 바랄지라도 언제나 남는 것이 생긴다. 이것을 시의 문제에 적용시켜 보자.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참사 앞에서 시인들이 마주치는 것은 무력감이고, 그럼에도 말해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시들이

221) 물론 타인을 타자로 초대하는 이들이 또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서정시란 실은 재현 형식의 실험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당시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나왔던’ 서정적 스타일들의 시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자의 존재가 세월호 이후의 시들에 나타난 서정에 계층적인 듯한 인상을 부여한다.

222) 라캉에 의하면 언어는 타자성, 상호주체성을 함축하는 “하나의 신기루”다. 언어의 차원에 의해 솟아난 “개념^{concept}에 다름 아닌 사물 자체”로, 차이 속의 동일성을 통해 우리는 사물에 대해 말하게 된다. 자크 라캉, 맹정현 옮김, 『세미나01』, 새물결, 2016, 각각 421, 425쪽.

쓰여지지만, 그것이 세월호의 실재를 관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정시는 자아의 개입(요구)으로 답해야 하는 까닭에, 세월호 사건의 타자성(욕구)에 비해 많은 잉여들을 발생시킨다. 이 불일치를 발견하는 독자가 욕망을 앓는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이 글 또한 시가 미처 감지해 내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해 탐문하는 데 골몰하였다.

다른 한편, 세월호 사건에 의해 재분할된 감각의 질서 속에서 작성되는 시들에 대하여 <IV. 세월호 이후의 시와 재현 불가능성의 재현>에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세월호를 구조화하고 있을 담론적, 무의식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발 앞서 의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1. 1. 당사자의 시>, <1. 2. 직접 인용>, <1. 3. 생일시>를 통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발화 주체는 언어를 떠나있을 수 없으며, 이 구조 속에서 사건의 편집이라는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듯싶다. 때문에 세월호 시의 문제가 재현 불/가능성을 공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재현-윤리에의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더 많은 시들을 분석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과 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지면이 용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는 부록만 살펴보더라도 세월호 이후 상기 사건과 관련해 발표된 시의 양은 매우 많다.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개별 시편들을 예로 들어 해석,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시들 앞에서 연구자의 부족을 여실히 깨달을 따름이다. 또한 이 글이 재현 양상의 공통된 부분들을 그러모아 몇 지향을 분류하고 있지만 시들은 개개가 다각적 편차를 갖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해 시 하나마다 하나의 다른 재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전과 어딘가가 다른 시의 출현에 대해서도 본고와 더 다른 논의가 또한 가능할 것이므로²²³⁾,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

223) 이 글에서는 작가, 해석자의 무의식적 기율이 치안에 관심을 두는 시들을 모아 치안적 재현으로 묶고, 또 재현의 일반적 방법으로서 서정의 형식을 거론하였으나, 이것으로 자아의 유형들을 모두 말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요함을 제언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고은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2. 논문 및 평론

곽은희,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 제9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권성훈, 「한국 재난시에 나타난 죽음 의식 변화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김미지,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랑시에르의 ‘문학 정치’ 개념 적용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김소연, 신혜옥, 박연준, 박준, 김민정, 「[좌담] 엄마. 나야.」, 『문학동네』 통권 83호, 문학동네, 2015.

김수미, 「고통과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언론과 사회』 23(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김수이, 「자연의 매트릭스와 현실의 사막」, 『창작과비평』 통권 129호, 창비, 2005.

김수이, 「자체제작 소리를 내는 상자들, 그리고」, 『창작과비평』 통권 150호, 창비, 2010.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감성연구』 16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김형중, 「문학과 정치 2009」, 『문학과사회』 통권 제87호, 문학과지성사, 2009.

김형중, 「문학과 증언」, 『감성연구』 1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김형중, 「사건으로서의 이방인」, 『문학들』 제14호, 심미안, 2008.

- 김형중, 「오월 문학과 실어증」, 『동서인문학』 제4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
 구소, 2011.
-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 김홍중, 「마음의 부서짐」,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문
 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문신, 「추모시에 나타난 애도의 시적 전략」, 『국어문학』 제66집, 국어문학회,
 2017.
- 박윤영,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 그리고 문학의 참여」, 『실천문학』 통권 제
 125호, 실천문학사, 2017.
- 박종희,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보』 50(1), 한국정치학회, 2016.
- 백낙청, 「‘촛불’의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 『창작과비평』 통권 제175호,
 창비, 2017.
-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작과비평』 통권 142호, 창비,
 2008.
- 백지은, 「‘가능한 미래’를 성찰하는 문학」, 『창작과비평』 168호, 창비, 2015.
- 백지은, 「수평선이 보인다」, 『문학동네』 83호, 문학동네, 2015.
- 신셋별, 「부모의 자리에 서서」, 『창작과비평』 168호, 창비, 2015.
- 신형철, 「2년 동안의 꿈」,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문학동네, 2018.
- 신형철, 「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1」, 『문학동네』 82호, 문학동네, 2015.
- 신형철,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 신형철, 「미니마 퍼스펙티비아minima perspectivia」, 『문학과사회』 통권 제79
 호, 문학과지성사, 2007.

- 심정명, 「재난을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 『한국학연구』 제5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안병우,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제44호, 한국기록학회, 2015.
- 안지영, 「‘포스트-’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 『인문논총』 제59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양경언, 「눈먼 자들의 귀 열기」, 『창작과비평』 167호, 창비, 2015.
- 양석원, 「정신적 상처의 원인과 치유의 탐구-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 다시 읽기」, 『비평과이론』 통권 57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 양선숙, 「2017-2022, 진보와 보수를 넘어」, 『철학연구』 제119집, 철학연구학회, 2017.
- 양재훈, 「불/가능한 공감」, 『작가들』 제53호, 인천작가회의, 2015.
- 오은,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매년 태어나야 해」, 『실천문학』 통권 121호, 실천문학사, 2016.
- 오형엽, 「환상의 심층」, 『문학과사회』 통권 제76호, 문학과지성사, 2006.
- 우찬재, 「애도의 윤리와 소통의 아이러니」, 『문학과사회』 108호, 문학과지성사, 2014.
- 이경래,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4호, 한국기록학회, 2022.
- 이경수, 「현실 접속의 실재와 가능성」, 『서정시학』 통권 제69호, 계간 서정시학, 2016.
-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문학과사회』 108호, 문학과지성사, 2014.
- 이성혁,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증언시의 시학」, 『어문론집』 제75호, 중앙어문학회, 2018.
- 이소연, 「더블클릭을 향한 열정」, 『문학과사회』 114호, 문학과지성사, 2016.
- 이영진, 「2014년 여름, 비탄의 공화국에서」,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2014.

- 이완수, 최명일, 「가족이 기억하는 죽음, 기자가 기록하는 죽음」,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21.
- 이장욱, 「꽃들은 세상을 버리고」, 『창작과비평』 통권 128호, 창비, 2006.
- 이정환, 「참혹했던 세월호 보도, 언론은 어떻게 ‘기레기’가 됐나」, 『릿터』 5호, 민음사, 2017.
- 이진혁, 「세월호를 이제 그만 잊으라는 사람들에게」, 『창작과비평』 166호, 창비, 2014.
- 임지연,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적 주체의 능동적 역할」, 『문학치료연구』 제6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 정원옥, 「4·16과 애도 담론」, 『자음과모음』 제26호, 자음과모음, 2014.
- 정현, 「세월호 이후 정치적인 것의 세속화」, 『창작과비평』 170호, 창비, 2015.
- 정혜욱,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비평과이론』 통권 44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 비평』 통권 142호, 창비, 2008.
- 진태원, 「좌파 메시아주의라는 이름의 욕망」, 『황해문화』 통권 제82호, 새얼문화재단, 2014.
-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 최강민,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엄마. 나야.』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1집, 중앙어문학회, 2017.
- 최종환, 「2000년대 현대시론의 정전 구성과 메시아주의 수용 문제」, 『우리어문연구』 51집, 우리어문학회, 2015.
- 함돈균, 「불가능한 몸이 말하기」, 『창작과비평』 169호, 창비, 2015.
- 함돈균, 「연옥에서 기도하는 시인들」, 『문학과사회』 107호, 문학과지성사.
- 함성호, 「‘타인의 고통’과 만나는 문학의 자리」, 『작가들』, 제53호, 인천작가회의, 2015.

황선희, 「포스트휴먼—팬데믹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통권 44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3.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근대 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5.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태혜숙 옮김, 『서발
 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공동성 · 심동현 · 윤기웅, 『세월호 침몰』, 대영문화사, 2016.
- 곽수인 외 33명, 『엄마. 나야.』, 난다, 2015.
- 교육문제창작회, 『세월호는 아직도 향해 중이다』, 도서출판b, 2017.
- 김에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 김에리자, 『시에 나타난 소통과 치유의 과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형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주)난다, 2016.
-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 문인수, 「침몰하는 봄」,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 미셸 푸코,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 길, 2014.
- 박진용, 『한 편의 시와 일흔 한 편의 시』, 지혜, 2014.
- 발터 벤야민, 김영옥, 황현산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6』, 길, 2010.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 신경림 외,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 걷는사람.
- 아를레트 파르주, 김정아 옮김, 『아카이브 취향』, 문학과지성사, 2020.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 양근애, 『‘이후’의 연극, 달라진 세계』, 연극과 인간, 2020.

-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 역, 『시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78.
-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미지북스, 2015.
-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 옥타비오 파스, 김홍근·김은중 옮김, 『활과 리라』, 솔출판사, 1998.
- 유인애,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 굿플러스북, 2017.
- 이시영, 『하동』, 창비, 2017.
- 이영광, 『끝없는 사람』, 문학과지성사, 2018.
- 자크 라캉, 맹정현 옮김, 『세미나01』, 새물결, 2016.
- 자크 랑시에르, 김상운 옮김, 『이미지의 운명』, 인간사랑, 2014.
- 자크 아탈리, 양영란 옮김, 『생명경제로의 전환』, 한국경제신문, 2020.
- 정동수,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 한림, 2014.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언어의 성사』, 새물결, 2012.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오윤성 옮김,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레베카, 2017.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숙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 최지혜, 『2010년대 시에 나타나는 슬픔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콜린 고든 외, 심성보 외 옮김, 『푸코 효과』, 난장, 2014.
- 테오도르 W.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프리즘』, 문학동네, 2004.
-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김남시 옮김,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2019.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 새물결, 2005.

4. 기타

- 416가족협의회, <11월 26일이 생일인 4반 김호연을 기억합니다>, 2017.11.27.,
https://416family.org/index.php/remember-n1/?board_name=remember&search_field=fn_title&search_text=%EA%B9%80%ED%98%B8%EC%97%B0&vid=248.
- 강승희, <304명 희생 참사…세월호 침몰 원인 ‘아직도 캄캄’>, 무등일보, 2023.04.13.,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92743>.
- 곽영빈, “세월호 참사와 문화연구” 학술 세미나, 서울, 2015.04.10.
- 네이버 지식백과, “관피아 방지법”, <https://terms.naver.com>.(2022.09.08.)
- 류란, <[취재파일] ‘이웃’이 문을 닫는다 (1)>, 스프스뉴스, 2021.01.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8638.
- 류이근, <돈이 곧 메뉴얼이 된 한국사회>, 한겨레신문, 2014.5.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7063.html.
- 문학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전문] 문학인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14.06.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0642.html.
- 백지은, <‘K문학/비평의 종말’에 대한 단상(들)>, 문장웹진, 2017.02.01.,
https://webzine.munjang.or.kr/board.es?mid=a20104000000&bid=0004&list_no=2396&act=view&ord=B&nPage=1&c_type=A&c_page=.
-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4.6.5.,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19929&lawCd=2000000134168&lawType=TYPE5&pageIndex=&rowIdx=8519>.
- 전흥기혜, 이명선, <엄마와 딸의 마지막 포옹, 그날을 詩로 적었다>, 프레스시안, 2017.08.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6632>.
- 정철운, <세월호 참사, 언론은 ‘오보 참사’>, 미디어오늘, 2014.04.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74>.

- 주혜진, <[세월호 3주기, 문학의 자리를 묻다①] “희생자 ‘생일시’ 쓰며 시의 힘
 믿게 됐다”>, 북DB, 2017.04.14.,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
 mreviewNo=77683.](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77683)
- 진은영, <이시영, 「2014년 9월 19일, 어느 세월호 어머니의 트윗을 관심글로 지
 정함」>, 문학광장, 2018.04.12., [https://munjang.or.kr/archives/277370.](https://munjang.or.kr/archives/277370)
- 최미랑, <(인터뷰)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 이웃’ 정혜신 씨 “팽목항에 안 갔
 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경향신문, 2017.04.13.,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4131612001#c2b.](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04131612001#c2b)
- 최재봉, <세월호 아이들이 말하고 시인들이 받아 적은 ‘생일시’>, 한겨레,
 2015.12.1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22448.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22448.html)

※ 부록 - 세월호 사건 관련 문학 자료(224)

본고의 취지는 ‘세월호 이후의 시’라는 표현 속에 중첩 결정되어 있는 다수의
 요인과 원인들을 다시 바라보는 데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이후에 발표된 시가
 대상이므로 시, 범주를 넓게 잡더라도 문학 장르가 자료 수집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고, 이때 본고에서 주목한 공동 추모시집 등처럼 발간된 단행본을 중심으로
 <1. 단행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하지 않고, 인접
 한 논의더라도 사회과학, 기술과학, 종교, 철학, 예술, 또는 평론 등 2차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 단행본들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김애란의 「입동」이나 황정은의
 「웃는 남자」 같은, 세월호 사건의 자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직
 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와, 파편적으로 세월호에 관한 텍스트들이 실린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세월호 이후의 문학 텍스트들이 세월호를 말한다든 식의, 그런
 징후를 발견하고자 하는 충동은 해석자의 것이고, 이 지점까지 이르면 세월호 사
 건과 관련된 문학 자료가 사건 근년의 ‘거의 모든’ 문학을 대상으로 하게 되더라
 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까닭에 그렇다. 다만 에세이와 증언, 즉 문학의 범주 외
 로 판별키 어려운 사적 기록 등은 포함해 목록화하였다.²²⁵⁾

1. 단행본

224) 현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그간 모아온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23년 4월 21일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에서 개최한 제1회 재난 인문학 아카데미-다
 크 투어리즘을 위한 재난 기록과 기억의 영토, <세월호 참사의 기록과 기억의 영토화>(진상규명
 부서장 정성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료실 ‘서가 기록물’의 분량은 약 9000권에 달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록물’이 있다).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수조사 진행률은 26.8%
 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4.16 모으
 다>(http://archive.416sewolfamily.org/) 항목을 참조.

225) 한편 작품 활동, 쓰기의 차원을 넘어선 문학의 실천이 ‘304낭독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 내용 및 낭독 자료 등은 304낭독회 홈페이지
 (https://304recita.tumblr.com/)에 업로드된 PDF파일을 참조.

번호	발행년도	저자	제목	발행자
1	2014	NCK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곁에 머물다	대한기독교서회
2		강경숙 외	0416 : 세월호 참사 글쓰기 공모작	한겨레신문사
3		고은 외 68명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4		권상우	상우일기	북인더갭
5		김강호	팽목항 편지	시산맥사
6		김애란 외 11명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7		김영오	못난 아빠	부엔리브로
8		김진휘	통곡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희망	Longtail Odyssey
9		박진용	한 편의 시와 일흔 한 편의 시	지혜
10		유시민 외 7명	기억의 방법	도모
11		유종민	세월호, 꿈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타래
12		이향영	미안하다 더 사랑해요.	문학의식사
13		인디고서원	새로운 세대의 탄생	궁리
14		전영관	슬퍼할 권리	삼인
15		정동수	입 다문 세월호야 말 하려마	한림
16		주하아린	멈춰버린 세월	아마존의나비
17		한미령	세월호에서 온 편지	진원
18		한뼘작가들	세월호 이야기	별숲
19	홍춘표	꽃으로 피어라	신한영상미디어	
20	2015	416가족협의회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출판
21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
22		강산에봄잔치	팽목항에서 파발로 띄운 편지 1	월간문학
23		곽수인 외 33명	엄마. 나야.	난다
24		김은 외 14명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옥
25		방민호	내 고통은 바닷속 한방울의 공기도 되지 못했네	다산북스
26		송용만	시간이 멈춘 바다	북랩
27		심명숙, 최윤정	세상 밖으로의 슬픈 여행	서문당
28		이호진	인연	이파르
29		정의행	노랑 리본	문학들
30		지영희	사월의 편지	서해문집
31		최봉희	5.18 엄마가 4.16 아들에게	레디앙
32		2016	416단원고 약전 작가단	416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세트;

			너와 나의 슈가젤리 작은 새, 너른 날갯짓 우습게 보지 마, 후회할 거니까 제 별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게요 엄마,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그만 울고 웃어 줘 착한 놈, 씩씩한 놈, 행복을 주는 놈 우리 형은 열아홉 살 네 잎 클로버를 키운 소녀 팔빙수와 햇살 우리 애기들을 살려야 해요 세월호와 함께 사라진 304개의 우주	
33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창비
34				
35		김옥선	이젠 레테의江을 건너고 싶다	하얀나무
36		김탁환	거짓말이다	북스피어
37		나해철	영원한 죄 영원한 슬픔	문학과행동
38		서동찬	세월호는 달린다	으뜸사랑
39		최숙란 엮음	4월이구나, 수영아	서해문집
40	2017	광주MBC 라디오 칼럼니스트 31인	기억을 기록하다	알렘
41		교육문예창작회	세월호는 아직도 향해 중이다	도서출판b
42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안녕하세요?	구세군출판부
43		김연수, 홍진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사월의눈
44		김탁환	그래서 그는 바다로 갔다	북스피어
45		김탁환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돌베개
46		방현석	세월	아시아
47		송영철 외 4명	우리들의 세월이 침몰했다	부크크
48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	4.16기억의 숲	스토리밥
49		안도현 엮음	검은 시의 목록	걷는사람
50		유인애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	굿플러스북

51		유현미	촛불을 들었어	보리
52		윤후명 외 4명	숨어버린 사람들	예옥
53		이생진	맹골도	우리글
54		이오장	노랑리본	엔크
55		이종화	엄마의 노란 손수건	신아출판사
56		정원선, 배영란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않을게	해토
57		조소희	봉선화기도 304	컬처북스
58		한국작가회의 자 유실천위원회	꽃으로 돌아오라	푸른사상
59		한유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날의 약속	한티재
60		허가윤	노란 리본	우리교육
61	2018	4·16기억저장소	그리운 너에게	후마니타스
62		이경태 외 5명	세월호 마지막 네 가족	북콤마
63	2019	4·16기억저장소	<p>그날을 말하다 세트1; 그날을 말하다: 미지 아빠 유해중 그날을 말하다: 고운 엄마 윤명순 그날을 말하다: 이수연 아빠 이재복 그날을 말하다: 문지성 엄마 안명미 그날을 말하다: 우소영 엄마 김미정 그날을 말하다: 연화 아빠 이종해 그날을 말하다: 애진 아빠 장동원 그날을 말하다: 수진 아빠 김중기 그날을 말하다: 소희 아빠 박윤수 그날을 말하다: 수정 아빠 김종근 그날을 말하다: 세영 아빠 한재창 그날을 말하다: 혜경 엄마 유인애 그날을 말하다: 도연 엄마 이지성 그날을 말하다: 은지 아빠 한홍덕 그날을 말하다: 예진 엄마 박유신 그날을 말하다: 예슬 아빠 박종범 그날을 말하다: 윤민 아빠 최성용 그날을 말하다: 승희 아빠 신현호 그날을 말하다: 예진 아빠 정종만 그날을 말하다: 지현 엄마 심명섭</p>	한울

		그날을 말한다: 혜원 아빠 유영민 그날을 말한다: 예은 엄마 박은희 그날을 말한다: 도언 아빠 김기백 그날을 말한다: 수현 아빠 박종대 그날을 말한다: 동혁 엄마 김성실 그날을 말한다: 승묵 엄마 은인숙 그날을 말한다: 동혁 아빠 김영래 그날을 말한다: 차웅 엄마 김연실 그날을 말한다: 옹기 엄마 윤옥희 그날을 말한다: 하용 아빠 빈운중 그날을 말한다: 강혁 엄마 조순애 그날을 말한다: 범수 아빠 김권식 그날을 말한다: 요한 엄마 김금자 그날을 말한다: 경빈 엄마 진인숙 그날을 말한다: 성호 아빠 최경덕 그날을 말한다: 성호 엄마 엄소영 그날을 말한다: 형준 아빠 안재용 그날을 말한다: 차웅 아빠 정윤창 그날을 말한다: 수현 엄마 이영옥 그날을 말한다: 휘범 엄마 신점자 그날을 말한다: 준혁 엄마 전미향 그날을 말한다: 성호 엄마 정혜숙 그날을 말한다: 창현 아빠 이남석 그날을 말한다: 건우 엄마 김미나 그날을 말한다: 준영 아빠 오홍진 그날을 말한다: 준영 엄마 임영애 그날을 말한다: 창현 엄마 최순화 그날을 말한다: 건우 아빠 김정윤 그날을 말한다: 준민 엄마 김혜경 그날을 말한다: 건우 아빠 김광배	
64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창비
65	권순자	청춘 고래	문학수첩
66	박상현	명왕성에서	이음

67		신경림 외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	걷는사람
68		이창우	(17자 詩로) 세월호 품다	진포
69	2020	4·16기억저장소	그날을 말하다 세트2; 그날을 말하다: 예은 아빠 유경근 그날을 말하다: 시연 엄마 윤경희 그날을 말하다: 예슬 엄마 노현희 그날을 말하다: 시우 엄마 문석연 그날을 말하다: 동영 아빠 김재만 그날을 말하다: 호성 아빠 신창식 그날을 말하다: 순범 엄마 최지영 그날을 말하다: 영만 엄마 이미경 그날을 말하다: 호성 엄마 정부자 그날을 말하다: 동영 엄마 이선자 그날을 말하다: 태민 엄마 문연옥 그날을 말하다: 준우 아빠 이수하 그날을 말하다: 재강 엄마 양옥자 그날을 말하다: 동수 엄마 김도현 그날을 말하다: 준우 엄마 장순복 그날을 말하다: 근형 아빠 이필운 그날을 말하다: 찬호 엄마 남궁미녀 그날을 말하다: 찬호 아빠 전명선 그날을 말하다: 동수 아빠 정성욱 그날을 말하다: 중근 아빠 안영진 그날을 말하다: 주현 엄마 김정해 그날을 말하다: 재욱 엄마 홍영미 그날을 말하다: 준형 아빠 장훈 그날을 말하다: 우재 아빠 고영환 그날을 말하다: 상준 엄마 강지은 그날을 말하다: 진혁 엄마 고영희 그날을 말하다: 세희 아빠 임종호 그날을 말하다: 세희 엄마 배미선 그날을 말하다: 혜선 엄마 성시경	한울

			<p>그날을 말하다: 다혜 엄마 김인숙 그날을 말하다: 경미 엄마 전수현 그날을 말하다: 아라 아빠 김응대 그날을 말하다: 수진 엄마 김인숙 그날을 말하다: 윤희 아빠 진광영 그날을 말하다: 다영 아빠 김현동 그날을 말하다: 지혜 엄마 이정숙 그날을 말하다: 경주 엄마 유병화 그날을 말하다: 유민 아빠 김영오 그날을 말하다: 잠수사 제1권 그날을 말하다: 잠수사 제2권 그날을 말하다: 잠수사 제3권 그날을 말하다: 잠수사 제4권 그날을 말하다: 유가족 활동 단체 제1권 그날을 말하다: 유가족 활동 단체 제2권 그날을 말하다: 유가족 활동 단체 제3권 그날을 말하다: 유가족 활동 단체 제4권 그날을 말하다: 유가족 활동 단체 제5권 그날을 말하다: 동거차도 주민 제1권 그날을 말하다: 동거차도 주민 제1권 그날을 말하다: 동거차도 주민 제1권</p>	
70		416합창단 외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	문학동네
71		권윤현	세월호의 통곡	(주)유펜이퍼
72		김은지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의숲
73		김하은 외 7명	슬이는 돌아올 거래	문학동네
74	2021	김홍모	홀	창비
75		손혜숙	세월호야, 아! 세월호야!	CLC
76		유인애	그리운 길은 참으로 모질다	굿플러스북
77		이창우	무료책방에서 자본론을 읽다	진포
78	2022	박정선	꽃들은 말이 없다	푸른사상
79		최봄	노란 리본	가문비